



9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9호

(루게 599)



◇◇◇◇◇◇◇◇◇◇

차 례

◇◇◇◇◇◇◇◇◇◇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만방에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자 ..... 5

조선의 축포 ..... 7

사랑하시는 경치 ..... 8

백두의 장군 김정일장군 ..... 9

내 마음 고향집과 함께 ..... 10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을 위한 강령적지침 ..... 11

장군님 걸음 ..... 14

명작창작을 선도하는 우수한 평론을 많이 써내겠습니다 ..... 16

위대한 애국애족 ..... 16

9월에 부치여 ..... 17

로동계급의 새 거리가 태어난 이야기 ..... 20

평양이여 그대가 있어 ..... 22

연구사의 일기 .....	23
조선의 국화 목란꽃 .....	30
나의 공민증 (외1편) .....	31
첫딸의 이름을 올리고 .....	31
푸른 산천 .....	32
김정숙어머님께 드리는 시 .....	42
보통날의 그밤은 (외1편) .....	43
손거울 .....	43
나는 알았어요 .....	44
수령 형상단편소설에서 혁명적량만성의 구현 .....	45
우리가 바치는 그 효성은... ..	48
배움의 나라 .....	49
명언해설 .....	50
시대의 참된 교육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	51
병사들과 아이들 .....	55
보람 .....	56
인간사랑의 화폭속에 .....	65
내 삶이 시작된 곳에서 .....	68
농장원들속에서 .....	70

웃음소리 .....	79
애국자 문익점 .....	80

##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만방에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년상을 앞두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고전적로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 독립, 민족번영의 길을 뚜렷이 밝힌 혁명투쟁의 교과서이며 자주,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류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로작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한길로만 끝까지 전진시키며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대를 이어 만방에 떨치려는것이다.

로작의 전체계와 내용, 매 구절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끝없는 애국애족의 정신, 투철한 자주정신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로작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심장을 주체의 피, 애국의 피로 더욱 높뛰게 하고있으며 혁명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식대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게 하는 귀중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체현되어있는 고전적로작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은 커다란 격정에 넘쳐있으며 로작에서 제시된 사상을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사상전선의 초병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고전적로작에서 천명된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을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드높이 구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뜨겁게 심어주는데 적극 이바지할 작가적 신념과 량심으로 들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어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으며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있다.》** 로작에 밝혀진바와 같이 민족의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높이 발양된다.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왔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있으며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력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높이 발양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품성을 문학작품에 반영함으로써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이 대대손손 자기 수령, 자기 당에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대를 이어 만방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책으로 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는것이다.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가 완벽하게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애국의 일념으로 혁명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

회주의, 애국애족의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게 된 데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진군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게 하신 분도 우리 장군님이시고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드물지 않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 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시는 간고한 투쟁을 승리에도 이끌어오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정치과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압살책동에도 단호히 맞서 자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오시고 계시기때문이다.

이 로작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풍부한 투쟁경험이 그대로 집대성되어있다. 이것으로 하여 로작은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존엄이 대를 이어 고수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필승불패한다는 진리를 드림없는 신념으로 새기게 하고있다.

작가들은 모든 사색과 탐구, 열정과 재능을 최대한 발양하여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대를 이어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빛나는 형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사업에서 특기할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창조하는 위업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우리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가장 주되는 사업으로, 문학창조의 기본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최근에 만 하여도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동해천리》, 《력사의 대하》 등 기념비적작품들이 창작된것을 비롯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히 창작되고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현실은 작가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다 더 철학적으로 깊이있고 미학정서적으로 감흥이 있게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창작의 붓을 예리하게 버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형상의 중심에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령도풍모와 위인적풍모를 생동하고 격이 높게 최상의 사상에술적수준에서 빛나는 화폭으로 창조해야 한

다.

작가들은 또한 고전적으로작에서 정식화한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에서 핵을 이루는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깊이있게 형상해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을 형상하는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론리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격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더우기 우리의 현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김일성**사회주의조국이 있고 그 무궁한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불의의 정황속에서도 장군님을 결사옹위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체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태여났는가.

우리 문학은 응당 **김일성**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어떤 풍파속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튼튼히 키우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결사옹위하는 충신들의 전형을 더욱 활발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으로작에는 애국애족의 립장을 지키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기 위한 기본요구라는데 대하여 지적되어있다.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전력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본요구라는데 대하여 지적되어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도록 적극 고무해주어야 한다.

이 로작에 제시되어있는바와 같이 주체적력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답보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지난 기간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새로운 역사적사실들을 적극 찾아내어 형상으로 무르익혀나감으로써 로작의 사상이 작품전반에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들은 민족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족적립장과 계급적립장, 력사주의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켜 낡은것, 사회주의에 맞지 않는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사람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본성과 지배주의적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또 제국주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시대를 다 산 력사의 퇴물이라는것을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신념과 량심을 저버리고 배신의 길을 걷는 민족반역자들의 추악한 말로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이며 우리 문학을 영원히 주체문학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불멸의 기치로 된다.

모든 작가들은 이 로작을 자자구구 학습하고 창작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사회주의위업에 복

무하는 우리 문학의 사명과 작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더없이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는 로작학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량심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또한 로작에 제시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가 우리 문학의 모든 형상들에 뜨겁게 맥박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에 들어서고있으며 그 앞길에는 끝없이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을 높이 받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조선의 축포

안정기

여기 김일성광장에 서면  
언제나 보여오누나  
저 하늘 가득히  
축포는 오르고 꽃보라는 날리고  
그속에 우리 장군님 환히 웃으시고

보여오누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가슴에 별무리처럼 떠있는 그 축포  
장군님 우러러 한껏 만세를 부르며  
감격에 젖어 바라보던 그 축포

세월의 광풍을 맞받아  
승리에서 승리를 이어가시며  
장군님 안아올리신 축포여서  
오늘도 내 마음의 창공에  
피어서 사라지지 않는것인가

반세기전에 수령님 터쳐올린  
전승의 첫 축포를  
저 하늘에  
더 아름답게 펼치고싶어  
장군님 먼길 험한 길 얼마나 걸으셨던가

파도높은 섬초소를 찾으시며  
휘뿌리는 물보라를 꽃보라로 날리시고  
판문점에 내려앉은 전설의 안개도

억만송이 꽃보라로 띄여올리시며

때로는 초음속 비행기로  
먹구름 헤쳐 하얀 송이구름 피우시고  
최전연 전사들을 품에 안으신 날엔  
소원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신입병사의 소박한 노래에도  
군인정신이 나래친다고 기뻐하시며  
걸음마다 시간마다 마련하신 장군님의 축포

그 위대한 사랑의 품에  
무수한 길영조들이 하늘의 꽃으로 피고  
수백만의 신념의 전사 정광선들이  
금별이 되어 누리에 빛을 뿌리나니

오늘의 승리로  
그날의 승리를 빛내시고  
래일의 승리도 열어가시는  
천출명장의 광망어린 축포  
폭풍도 지울수 없는 불멸의 축포

아,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조국의 하늘에, 인민의 가슴에  
꽃보라는 언제나 피여있으리라  
태양이 은하수를 빛내듯 영원히 영원히  
조선의 축포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 사랑하시는 경치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명승지들이 많다.

사람들은 어떤 경치를 좋아하는가고 물으면 흔히 금강산이나 묘향산, 칠보산 그리고 총석정이나 송도원 같은곳을 꼽는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꼽는곳을 보면 대체로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들이다.

풍부한 정서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들을 더없이 좋아하신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는 그토록 이름난 명승지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경치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경치이겠는가.

1969년 9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점심무렵 평양시교외로 나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느 한 골짜기어구에서 차를 세우시었다.

차문을 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밤나무를 살펴보시다가 동행한 일군에게 《저 밤들을 두고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떨어진 밤알도 줏고 경치구경도 하고 갑시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밤나무밑에는 기름독에 담가낸것 같이 반들거리는 까만 왕밤알들이 무수히 떨어져있었다.

일군은 동심어로 되돌아간듯 환성을 울리며 밤알을 줏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산에 와서 산천경관을 바라보기전에 욕심스레 밤알부터 주으면 《산신령》이 노한다고 하시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골짜기에 짙 들어찬 밤나무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었다.

《올해에는 밤이 류달리 잘되었습니다. 저 밤나무들은 온통 밤송이천지입니다. 참 멋이 있습니다. 개울물소리도 들립니다. 밤나무잎이 짙 덮이다보니 흐르는 물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돌돌돌 하고 울리는 소리가 정다웁게 들려옵니다. 풍년이 든 밤나무풍경에 정다운 개울물소리가 들려오니 그야말로 황홀경을 이룹니다. 화가들이 보면 붓을 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것입니다.》

밤알을 줏던 일군은 그제서야 허리를 펴고 골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밤나무들과 금방 떨어질것 같은 밤알들을 가까스로 그려안고 있는 누런 밤송이들밖에 보이는것이 없었

다.

《밤송이가 지난해보다 곱은 더 달린것 같습니다.》

일군의 말은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동무가 밤알을 줏는데만 정신을 팔다보니 좋은 경치를 보지 못한다고 하시며 지난날 가난한 집 아이가 지주놈의 밤나무밑을 지나다가 떨어진 밤알을 줏고 도적으로 몰려 매를 맞고 병신이 된 이야기를 들었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이 들었다고 대답올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밤나무가 인민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한의 대상으로 되어있던 그때에는 이렇게 밤이 많이 달렸다 하여도 그것이 좋은 경치로는 될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밤이 아무리 많이 달렸다 하여도 그 밤나무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 인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같았기때문입니다.

밤나무가 우리 인민의 소유로 된 오늘은 풍년든 밤알마다에 인민의 기쁨이 어려있기때문에 밤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 개울물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저런 개울물을 논밭에 대자면 땅과 개울을 다 차지하고있던 지주놈에게 엄청난 물값을 물어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땅값, 물값으로 다 빼앗기고 빈 쪽박을 차고 나갔게 되었다, 그러니 그때에 저 개울물소리가 농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허비였겠는가고 하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런 개울물이 저수지와 관개수로들에 흘러들어 논밭을 적시고있습니다. 결국 돌돌돌 하고 울리는 개울물소리는 인민의 재부가 늘어나는 소리입니다.

오늘 수령님의 은덕으로 자연의 모든것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으니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다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이는것이며 지어 개울물소리도 정답게 들리는것입니다.》

그제서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일군은 새로운 눈으로 골안을 살펴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밤알마다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어려있다고 생각하고 락엽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소리를 인민의 재부가 늘어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밤송이와 밤나무, 개



울물이 전에 없이 소중하게 가슴에 안겨왔고 그 모든것이 그치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 그래서 그이께서 차에서 내리시며 밤알도 줏고 경치구경도 하자고 하시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 훌륭한 경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일군이 이런 사색속에 잠겨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떨어진 밤알을 집어 그에게 주시면서 물으시었다.

《동무의 고향에는 밤나무가 없지요?》

일군은 자기 고향에는 밤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러다보니 이런 이채로운 경치도 볼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이 주인이 된 우리나라에는 그 어데 가도 아름다운 경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 물으시었다.

《동무의 고향에도 맑은 시내와 푸른 들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군이 그런것은 있다고 대답을 올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푸른 들판에서 소나 양을 방목하는가고 물으시었다.

방목을 많이 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러면 맑은 시내를 끼고 가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을 따라 구름처럼 흐르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거기에서 울려나오는 방목공처녀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를 상상해볼수 있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가 사는 마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데 그것은 소중한것을 보고도 귀중하게 여길줄 모르기때문이라고 하시며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밤나무와 개울물, 푸른 들판과 양떼가 인민의 재부라는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 인민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으로 귀중히 여기고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줄 모릅니다. 그저 그것을 어디 가나 볼수 있는 밤나무와 개울물로, 푸른 들판과 양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감정이 나올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조국의 모든 재부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감정이라고 하시면서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금강산이나 묘향산의 경치만이 아니라 이름없는 산과 들의 일목일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모든 자연경치를 사랑하게 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일군의 가슴은 불덩어리를 받아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애국심, 바로 그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기에 밤나무와 개울물까지도 인민의 재부로 귀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실뿐아니라 보다 룡성변영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그토록 기뻐하시는것이였다.

정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기묘한 자연경계를 좋아하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조국의 모습, 새롭게 가꾸어지는 경치에서 우리 인민의 찬란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인민의 행복, 인민의 기쁨이 될 그러한 경치를 사랑하시는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 가사

# 백두의 장군 김정일장군

## 백룡찬

백두의 장검을 높이 드시고  
천하를 한눈에 굽어보신다  
번개를 일으켜 세상 밝히고  
승리의 우뢰가 장검에 운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백두의 장군

사회주의장검을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아성을 뒤흔드신다  
조선을 모르고 덤벼든다면

멸적의 불벼락 몰아치리라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백두의 장군

주체의 장검을 높이 드시고  
삼천리 내 나라 살펴보신다  
천만대군 총폭탄 심장에 안고  
통일된 조국은 눈앞에 본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백두의 장군

# 내 마음 고향집과 함께

김봉운

내 발걸음보다 먼저  
마음 앞서 달리는 혁명의 요람  
백두밀영고향집 찾아오니  
아아한 정일봉에, 정가로운 프락에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어깨우에 흰눈을 맞으며  
승업한 마음 깊어지는 생각속에  
오래도록 발걸음 멈추고  
나는 서있다  
밀림의 설레임소리에 가슴을 적시며

아, 우리르면 안겨와라  
백두의 혈통을 이으신  
빨찌산의 아들  
누리에 광휘로운 빛을 뿌리며  
정일봉마루에 솟아오른 향도의 태양이여

조선에 대통운이 났다고  
갑격과 격동으로 환희에 휩싸이던  
경사로운 2월의 그날  
백두밀림에 내리던 축복의 눈송이  
오늘도 고향집에 내리고 내리는가

귀기울이면 울부짖는 눈보라  
정다운 소백수의 흐름소리  
2월의 봄빛이 그리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  
신념으로 불타는 심장속에 흘러들어라

사람들은 여기서 본다  
정일봉에 비낀 령통한 쌍무지개  
해불인양 타오르는  
사령부귀틀집의 붉은 기발  
조국해방의 환희를 눈앞에 그려보시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장엄한 력사의 해돋이를 맞으시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사람들은 여기서 듣는다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만천하에 떨치며  
높이 울리던 백두의 봄우뢰  
조국해방성전에 앞서  
터져오르던 만세소리 환호소리

여기서 듣는다  
세기의 하늘가에  
미래의 태양을 받들어올리신  
어머님의 자장가소리

아, 하많은 전설과 자랑안고 솟아 빛나는  
정일봉을 우리러  
흙모의 마음들이  
세계의 랑심들이  
승고한 뜻을 새기나니

백두밀영고향집  
너는 정녕  
2월의 봄빛으로 영원한  
인류마음의 고향  
신념과 의리의 고향  
희망의 고향  
혁명의 고향

이 땅에 태어난 영광을 안고  
행복한 길을 걸어도  
준엄한 날에 살아도  
언제나 마음은 여기로 이어져  
영원히 백두밀영고향집과 함께 있어라

#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을 위한 강령적지침

박용학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내용과 형식, 그 모든 형태에 있어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날을 따라 더욱더 개화발전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격조높이 칭송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났다.

우리 문학예술의 오늘과 같은 급속한 개화발전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이에 있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72년 9월 6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는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당시 우리 문학예술이 처한 실태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당시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나고있던 본질적결함에 대하여 심오히 분석하시였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둘째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며 셋째로, 창작가들속에서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지난 25년동안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

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전적로작에 천명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문학예술실천과정에 빛나게 확증되였다.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령도밑에 지난날의 낡은 사상잔재들을 청산하고 자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첫째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그 어느 부문보다도 낡은 사상잔재가 많았던 문학예술부문은 당의 믿음직한 전투부대로, 실제적인 창작성가로써 당에 기쁨을 드리는 미더운 충성의 대오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성과이다. 그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충성과 열성을 떠나 창작에서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기때문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작가의 사상, 세계관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문예작품은 곧 작가의 사상의 반영, 세계관의 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가의 창작과 세계관의 호상관계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창작가들속에 남아있던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청산하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 문학예술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전초병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밑천이며 문학예술의 창조와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인것이다.

또한 고전적로작에서 밝혀진 사상리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

바지하기 위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을 떠난 충실성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으로써 당에 충성다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창작성과로써 당에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당과 수령께 충실한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도 구경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5년동안 우리 문학예술은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말에 이르러 더더욱 개화발전하였다. 우리 창작가들이 소설과 시, 가사, 아동문학, 영화예술, 음악예술,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와 종류들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자기의 면모를 더 뚜렷이 갖추게 되었다.

특히 지난 25년동안 우리 소설문학은 총서《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 속하는 장편소설창작을 끝냈으며 해방후편 장편소설들을 창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한 새로운 총서형식인《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창작함으로써 수령형상소설작품창작에서 높은 단계에 오르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을 거대한 서사적화폭속에서 보여준 총서형식의 장편소설창작은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령형상대장편소설로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또한 작가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장중편소설창작투쟁을 완강히 벌린 결과 사회주의현실주제물, 력사물주제의 소설들이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창작됨으로써 소설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또한 지난 25년동안 우리 시문학은 시대의 기념비적작품들을 수없이 내놓음으로써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대변자, 옹호자로서의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더우기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선 우리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웠으며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한 창작적열정을 발휘하였다.

여기서도 서사시《영원한 우리 수령 김정일동지》,《무궁번영하라-조국의 미래여》,《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번영하라 김정일조국이며》,《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한뫼에 즈음하여 발표된 서사시《영원한 우리 수령 김정일동지》는 수령형상서사시로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시문학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다. 이 서사시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진실한 시적형상으로 감명깊게 노래한 시대의 명작이다.

이밖에도 우리 시인들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그이의 영생을 기원하는 서정시들과 수십권의 가사들을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인들의 불타는 충성심에 의하여 우리 시단에서는 영생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창작되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도록 고무해주고 있다.

또한 작가들은 가사창작투쟁을 힘차게 벌려 최근에만 보아도《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불멸의 혁명송가《김정일장군의 노래》,《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를 비롯하여 명가사들을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시가문학분야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둔 이 사실은 우리 작가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안고 충성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창작적사색을 깊이있게 할수 있고 수령형상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 예술

인들은 지난시기 아동문학, 문학평론, 음악, 영화, 미술분야에서도 일대 양양을 가져오기 위한 창작전투를 벌려 시대와 인민들의 추억에 남는 명작들을 수없이 내놓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종자의 심오한 철학성과 독창성, 형상의 심오성과 완벽성으로 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제의 영화예술을 대표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가는 조선민족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헌신분투하도록 하게 하여준다.

다음으로 작가, 예술인들은 로작에 제시된 장령적과업관철을 위해 자질향상에 큰 힘을 넣고 창작의 주체로서의 준비를 실속있게 꾸준히 하여왔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므로써 1970년대에 펼쳐진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는 오늘에 이르러 더욱더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1972년 9월 6일 문헌에서 제시된 문예사상과 리론,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행정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아직 우리에게 로작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할일이 많으며 우리 혁명은 문학예술앞에 더욱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제기하고있다.

고전적로작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 제시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문예작품창작에서 혁명적수령관이 깊이있게 구현된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적극 창작하는것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문예작품창작을 더욱 활발하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력사는 계속 흐르며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상을 문예작품에 정중히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을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문학작품을

최우선적으로 창작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 여기에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더없는 영예와 긍지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문예작품창작에서 우리는 이미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쌓았다.

여기서 중요한 미학상문제의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이의 사상과 의지, 숭고한 감정정서세계를 파고들어 그리는것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이면에서 시사적이라고 할수있다.

이 작품들은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사상과 령도선에서만아니라 감정정서의 면에서 파고들어 보여준 작품들이다. 이것은 미학적견지에서 볼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사상리론가, 혁명과 건설의 영재, 령도의 천재로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이다.

우리 장군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인간중의 인간이시다. 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오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 높이 칭송하며 우러러 받드는것이 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꾸준히 함으로써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는것이 군사물주체문학이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물주체를 취급한 문학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밑에 인민군군인들이 창조한 문학으로서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전투적으로 형상하여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총진군을 앞장에서 선도하고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군인건설자들이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과정에 발휘한 영웅적위훈과 혁명적군인정신을 문학작품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받

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 데서 중요한것은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부단히 벌리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혀 주신바와 같이 우리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과 함께 높은 자질을 가져야 현시기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다.

창작가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일뿐아니라 앞으로 북남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나라 문학사와 세계문학사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고 생활체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래야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는 생활의 박식가, 창작의 능수가 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외에도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전적로작 《문학

**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 혁명적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강령적로작이며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빛나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백과전서적인 대강이다.

고전적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혁명의 힘있는 무기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길이 있고 문학예술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지난 25년동안 우리 문학예술의 창작실천은 이 고전적로작이야말로 우리 문학예술의 개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거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한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로작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여준다.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1972년 9월 6일 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 그것이 사상혁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가사

# 장군님 걸음

김용희

첫새벽 떠나시는 우리 장군님  
수령님 걸으시던 그 길을 이어가시네  
초소를 찾아도 인민을 찾아도  
수령님 사랑을 안고가시네  
아, 장군님 걸음은 수령님 그 걸음

조국의 운명지켜 우리 장군님  
수령님 걸으시던 그 길을 이어가시네  
눈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수령님 믿음을 안고가시네  
아, 장군님 걸음은 수령님 그 걸음

백두의 위대한 령장 우리 장군님  
수령님 걸으시던 그 길을 이어가시네  
주체의 한길우에 붉은기 날리시며  
수령님 모습으로 영원히 가시네  
아, 장군님 걸음은 수령님 그 걸음



## 명작창작을 선도하는 우수한 평론을 많이 써내겠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받아안은 저의 가슴은 지금 더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시대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와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사상과 이론의 거장이시라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뜨겁게 간직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어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그 본성과 역사적, 현실적 조건에 맞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로, 모든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으로 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로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이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휘황히 밝혀주시면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이란 무엇이며 그를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저는 우리인민의 민족성의 핵을 수령에 대한

충효심으로 명백히 규정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작가들을 명작창작에로 선도할 우수한 평론들을 활발히 창작해낼 결심을 새롭게 다지고있습니다.

무엇보다먼저 우리 시대에 형성된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되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에 등을 수령에 대한 충효심에 원천을 두고 더 잘 구현할데 대한 창작실천상의 문제들을 취급한 평론들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과 그 우수성, 민족문화유산의 유구성과 풍부성을 해설하는 글들을 주체적문제사상에 기초하여 잘 써내립니다.

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시신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창작목표와 계획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구체적으로 세우며 그 수행을 위해 높은 정치적 열성과 창작적지혜를 최대한 발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해나가겠습니다.

평론가 리창유

## 위대한 애국애족

저는 접히운 자리마다 보풀이 인 한장의 신문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가 실린 《로동신문》입니다.

장군님의 로작을 접할 때마다 매번 복받치는 감격과 흥분을 누르지 못하였지만 이번의 로작은 제목부터 심금을 틀어잡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립하는것이 오늘의 환경에서 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문학작품창작실천상 과업은 무엇인지...

자자구구 밀줄을 그어가며 되새기노라니 문득 저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소리가 울려오는듯싶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두고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었으면 이렇게도 사색이 구체적이면서도 끝이 없고 독창적이실까!

로작을 다 읽고나니 가슴이 후련해지고 눈앞이 확 트입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리념의 정당성을 다시금 환희속에 절감했기때문입니다.

한때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 자기가 내세우고 고수하여오던 기치를 하루아침에 저버리고 다른 길로 걸을 때 세상사람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두고 얼마나 각이한 억측과 우려를 하였습니까.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천만뜻밖에 잃은 최대의 아픔속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우리 인민은 참기 어려운 상실의 고통을 겪었고 사랑과 증오라는 인생의 최첨단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이 《고난의 행군》길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거연히 서계시었고 사회주의 붉은 기발이 힘차게 펴력이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우리 혁명의 좌표였습니다.

인격의 최고표현은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종말을 노리는 간악한 제국주의자들의 대포위진속에서 민족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장군님의 이 담력!

이 담력은 그이께서 타고나신 천품이나 기질에서 나온것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강철같은 의지,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애국애족심에서 발현된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자들의 반민족, 반인민적인 《국제화》, 《세계화》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민족과 인민의 넋이 점차 사라져가고있습니다.

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십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곧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며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는 삶의 리정표입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에는 얼마나 심원하고 거창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입니까.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나서신 위인중의 위인만이 발휘할수 있는 의지이며 담력이라고 저는 재삼 가슴 뿌듯이 느꼈습니다.

저는 진리의 화신이시며 정의의 투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졌습니다.

시인 최진이

## 9월에 부치여

박경심

나에게 9월은  
아버지 메워준 빨간 책가방  
어머니 다려준 나의 첫 교복  
등근해 반겨쫓던 첫 학교길

9월은  
따뜻이 나를 부르던 수업종소리  
우리 말 익혀준 국어교과서  
서툴게 내 지은 첫 시들  
교실가득 정답아 읊어주시던  
선생님의 귀익은 목소리

배움-그것이 행복이던  
그 시절 나를 향해 언제나  
교육체제의 넓은 문을 열어준  
9월은 철없던 등굣길소녀를  
조국을 먼저 아는 처녀로 변모시켜준  
성장의 길동무  
불멸의 업적

애어린 새싹이 따사로운 봄별아래  
대지에 뿌리내리고 푸른 아지 펼치듯이  
내 희망의 첫움을 키워안아  
꽃망을 활짝 피워준 봄의 은혜로움

허나 9월아  
네 진정 나에게 봄만을 주었던가  
나를 향해 배움의 문을 열어준 9월은  
조국을 향해 영원히 닫김없을  
보답의 문도 함께 열어주었거늘

드리운 열매속에 봄이 웃는 9월이여라  
봄, 가을 사계절  
그보다 더 좋은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다 한다면  
그 계절을 불러와 이 땅에 불러와  
어머니 내 조국에 자랑을 더해주고싶은  
그 마음 무르익는 감사의 가을이여라  
아, 내 조국의 9월이여라



## 조국애를 노래한 한편의 가요에도

우리의 행복한 락원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날뛰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적들의 온갖 책동을 신념의 노래, 백배한 신심의 노래로 짓부서버리며 주체의 조국을 빛내여가고있다.

이 세상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바치시여 꽃피워주신 조국, 오늘도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내 나라의 찬가를 심장의 노래로 부르며 한없이 귀중한 이 제도를 지켜가는 인민의 노래는 날이 갈수록 뜨겁게 울린다.

간고한 《고난의 행군》길을 걸으며 부르는 노래는 그대로 우리의 맹세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는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불리워지고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며 그들을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킨다.》**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노래, 천출명장의 불멸할 업적에 대한 칭송의 노래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가는 조국찬가들...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나아가며 인민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 품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노래를 안겨주시려 심혈의 낮과 밤을 이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업적에 가슴 뜨거워지는 우리들이다.

조국애로 가슴불타게 하는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경애하는 그이의 손길아래 태여났던가.

공화국기가 창공을 치솟으며 날리는 수도의 거리를 거닐며 우리는 가요 《평양은 나의 심장》이 창작되던 그 나날을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인민 누구나가 마음속에 안고있는 평양. 천리방선 초소에서도 외진 등대섬에서도, 그리고 조국을 멀리 떠나있어도 평양은 나의 심장이라고 한목소리로 웨치는 그들의 심정을 정서적으로 노래한 이 가요창작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지도해주시였을 뿐아니라 후세에 남을 시대의 명곡으로 내세워주시였다.

1982년 12월중순 어느날 저녁이었다.

인민군협주단의 어느 한 가사작가와 작곡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무슨 일로 부르실가?)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저으기 긴장되어있었다.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하듯 송이송이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차창 밖에 눈길을 주는 그들의 머리속에 한해의 보람찼던 창작생활이 련줄련줄 떠올랐다.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비하면 너무나도 한 일이 적은 그들이였다. 과연 그 은혜에 몇편의 노래로 보답했던 말인가.

깊은 자책에 잠겨 지나온 창작정형을 돌이켜보고있는데 어느새 차는 당중앙위원회 청사앞에 멈춰섰다.

그들이 서둘러 그이께서 계시는 방앞에 이르렀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을 마중나오시는 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나깨나 뵈고싶던 경애하는 그이를 뵈옵는 순간 그들은 격해지는 감격에 인사의 말씀조차 제대로 울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히 방으로 이끄시더니 어서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녹였해주시였다. 금시 방안에는 한가정의 따뜻한 정이 한가득 흘러넘치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번에 총련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았는가고 물으시고나서 그들이 평양에 대한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평양에 대한 노래들은 적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우리 평양을 노래한 가요는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한국 새로 지어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인민군협주단 창작가들이 평양에 대한 노래를 잘 지어야하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동무들은 당에서 키운 창작가들이기때문에 좋은 노래를 쓰려면 누구보다도 당에서 구상하고있는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들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평양에 대한 노래, 당에서 키운 창작가들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 어린 말씀인가.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밖으로 다가가시여 평양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이윽도록 내다보시는것이였다.

평양에 대한 좋은 노래가 없는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셨으면 저리시라 하는 생각에 창작가들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복속에 살면서 복을 모른다고 지난날 우리는 왜 평양을 노래하는 가요하나 변변히 짓지 못하였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윽하여 그들을 정답게 둘러보시며 동무들이 가사를 쓰고 곡을 창작하였으면 하는데 어떤가고 의향을 물으시였다.

너무도 뜨거운 걱정이 치밀어올라 그들은 섣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잠시후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겠다고 정중히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자신께서는 동무들을 믿겠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시기뿐만아니라 먼 후날에 가셔도 부르게 될 가요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니고 귀중한 말씀을 새겨안은 그들은 날개라도 돋친듯 단숨에 창작실로 돌아와 즉시 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막상 노래를 명곡으로 써내자니 생각과는 달랐다. 고심어린 창작의 나날은 흘러갔다.

그들은 창작을 하다가 막힐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서 방도를 찾곤하였다.

일찌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어 력사가 알지 못하는 문예부흥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그이께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시던 그 나날들에 밝혀주신 명작창작 리론과 가르치심은 그대로 그들의 창작적열정이 샘솟게 하는 원천으로 되었고 창작의 기틀이 되었다.

음악은 열정을 가지고 창작해야 한다.

음악의 사상적내용을 강화하여주며 그 형상에 박력과 생기를 주는 열정은 창작가들의 불타는 심장에서 솟아난다.

새기면 새길수록 끝모를 깊은 뜻이 안겨오는 주목같은 명제들을 대하며 그들은 창작적령감을 더욱 무르익혀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개신문을 지나고 만수대언덕을 넘어 **김일성**광장에 이르러 밤하늘에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며 섰노라니 그들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오르는것이였다.

주체사상탑의 붉은 봉화.

늘 보아오던 해불이지만 그밤에는 더욱더 이룰수 없는 감회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불빛이였다.

저 불멸의 봉화가 없이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평양을 희망의 등대로 우러러 따를수 있으며 우리의 가슴이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넘쳐날수 있겠는가.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평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따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혁명의 심장으로 길이 룡성할것이다. 창작가들은 번개같이 떠오르는 글귀와 선율을 다듬으며 펜을 달렸다.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이 이어져 이렇게 창작된 노래는 경애하는 그이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

1983년 4월초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분망하신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이 올린 노래를 친히 들어주시고 파분한 평가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요의 구체적인 세부에까지 관심을 돌려 들어주시고 노래가 잘 되였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빨리 창작가들에게 노래를 잘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라고 일군들에게 이리시는것이였다.

그이의 은정넘친 말씀에 접한 창작가들의 온몸은 마치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올랐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작품의 종자로부터 담아야 할 내용, 지어 노래가 체현해야 할 정서의 색깔까지도 다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심장에서 창작의 분화구를 터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히려 많은 시일이 걸려서야 창작한 그들을 책망할대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고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그들의 공로로 여겨주시였으니 그들은 오래도록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노래 《평양은 나의 심장》가사의 표현들이 정확한데 대하여 여러번 치하해주시였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찬가로 언제나 이 노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이 노래의 보급방향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마음써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노래가 창작된지 몇년이 지난후에는 전국기악중주경연이 조직되자 이 노래를 친히 지정곡으로 정해주시였으며 또 언젠가는 심야방송으로 널리 보급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정녕 한편의 자그마한 가요에 바쳐진 경애하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를 우리는 다는 헤아리지 못한다. 하기에 지금도 주체조국의 수도에 대한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지고 한목숨 기꺼이 바쳐 나의 심장-평양을 지켜갈 인민의 굳센 의지가 심어진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모두는 문학예술의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만고의 업적을 더욱더 빛내갈 충성의 한마음을 가다듬게 되는것이다.

## 로동계급의 새 거리가 태어난 이야기

국경절을 앞둔 아침이다.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비졌는가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무궁토록 번영할 내 나라의 가을을 실었는가 산과 들에 풍성한 열매가 무르익었다.

막아서는 난관과 시련이 아무리 엄혹해도 오늘에 걸는 《고난의 행군》길을 반드시 펼쳐질 승리의 광장으로 어서 빨리 이어가려는 힘찬 걸음들에 받들리어 전진해가는 우리 조국에 환희와 격정이 넘쳐난다.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는 우리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마다에서는 《애국가》의 선율이 맑은 하늘가로 퍼져가고 고마운 이 제도를 영원히 빛내갈 심장의 웨침이 울려나온다.

조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부풀어있는 사람들.

해방의 피어린 길을 걸어온 로동사들이며 전화의 불길속을 뚫고온 영웅전사들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의 제도에서 행복한 래일을 꿈꾸고 있는 티없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우리 조국의 자랑찬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러면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백두산야의 눈보라 만리길을 헤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락원을 펼쳐지며 영광의 만리길을 걸어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한평생에 눈시울 젖어두고 수령님 맡기고가신 사회주의제도를 자자손손 복락하는 인민의 나라로 가꾸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쉬임없이 걸으시는 그 자욱자욱이 밟혀와 흐르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는 우리들이다.

파연 이 아침 그 어떤 칭송의 노래 흠모의 서사시를 삼가 외워 하늘땅에 차고 넘는 그 업적을 전할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사상과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자기의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였다.》**

하나의 정책을 세워도 인민을 위하시고 인민이 바라다면 천길막장에도 서해와 날바다에도 서슴없이 찾아가시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는 가슴가득 차오르는 감사의 정을 안고 여기 황철의 숨결이 거세차게 타번지는 철의 도시를 한눈에 담아보고있다.

넓은 거리가 쪽 뻗어간 량견에 평양의 락원거리를 편상케 하는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거리.

편의봉사망들이 구색에 맞게 꾸려져 완전한 하

나의 생활단위를 이루고있는 거리는 어디에나 눈길을 끌어간다.

여기가 바로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철의 기지의 로동계급이 한가정처럼 모여사는 《용해공거리》이다.

인민의 조국을 부강하게 바쳐가시며 이 나라 방방곡곡에 사랑의 전설을 수없이 남기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이 거리, 저 해빛밝은 창가들에도 어리어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가슴은 높인다.

충충이 열려진 창문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타고 우리의 감회는 깊어간다.

퍼그나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송림땅에 오시여 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신적이 있었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형편부터 헤아리시는 우리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황철용해공들의 살림집리용정형을 먼저 알아보시기 위하여 평범한 용해공의 집부터 들리시였다.

그 집에는 량부모가 있고 아이들도 여러명이나 되였다. 한창 자랄 때의 아이들이여서 애들은 좋아라고 옷방아래방으로 울리뛰고 내리뛰면서 놀아 대고있었다.

살림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단칸방에서 사는 용해공들도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더러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근심어린 안색을 지으시고 철없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을 우러러보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뜻을 담아 수행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용해공들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해공들이 고열로앞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을 풀자면 두칸짜리 방이 있어야 합니다. 단칸짜리 방에서는 피곤을 풀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앞으로 용해공들의 살림집문제를 꼭 해결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려야 하겠다고 다시금 당부하시는데것이였다.

용해공들에게 보다 좋은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마음이 마디마디에 들어있는 말씀이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책임성이 부족했던탓에 여러해가 지나도록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있었다.

이곳 일군들은 새로 고층살림집을 지을 때마다 거기에 몇세대씩 세칸짜리 살림방이 있는 집을

짓게 하고 불앞에서 일하는 용해공들이나 압연공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이사시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살림집문제를 풀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차들이 많이 다니는 번거로운 큰길가에 용해공들이 많이 살게 되어 밤일을 하고난 그들이 쉬는데는 불합리하였다.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와 용해공들의 불편한 생활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결할 결심을 지니시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황철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에 용해공, 압연공들에게 두세칸짜리 문화적인 살림집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을 직접 맡아 추진시키는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그리고 살림집설계를 용해공이나 압연공들이 일을 끝내고 돌아와 피곤을 충분히 풀수 있게 평양의 현대적인 거리를 참고하여 하며 시공일군들을 평양에 있는 거리를 견학시키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로동계급이 살게 될 살림집거리건설에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하늘같은 그 은정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이곳 사람들은 너도나도 건설장마다에서 땀을 흘리며 그 열정을 바쳐갔다.

하여 송림시의 제일 아늑하고 살기 좋은곳에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뜻이 어린, 새삶의 터전이 마련되고 생활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충충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넋직한 두세칸짜리 살림방들로 이루어진 고층살림집마다에 마련된 용해공들의 침실.

현대적으로 뻗어간 거리의 곳곳에는 《용해공상점》, 《용해공국수집》 그리고 《용해공리발판》이며 《용해공양복점》을 비롯한 급양 및 편의 봉사망들이 들어앉았다.

부러운것없이 꾸려진 거리의 전경은 참으로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기쁨과 행복에 겨워 이토록 훌륭한 거리를 마주한 용해공들과 건설자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덕을 길이 전해갈 한마음으로 1975년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완공된 거리의 이름을 《은덕거리》로 부르려 하였다.

새집들이를 앞둔 거리와 살림집들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아시게 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짧은 기간에 수백세대의 고층살림집과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세운 3대혁명소조원들과 건설자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거리이름은 용해공들을 위하여 세운 거리인것만큼 《용해공거리》라고 해야 한다고 친히 그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용해공거리》, 불러볼수록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가슴 뭉클해지고 바라볼수록 인민을 위한 사색과 심혈의 빛과 열기가 뜨겁게 뿜어나오는 로동계급의 지상천국이 아닌가.

어떻게 여기가 지난날 한 가족은 고사하고 고열로앞에서 온 하루 땀을 뺀고 노그라진 제 한몫조차 누워볼수 있는 집이 없어 마소우리같은 함바에서 파리를 틀고자던 그 겹이포의 노동자들이 살던 고장이라고 할수 있으랴.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이 《용해공거리》처럼 인민을 위하여 생겨나고 그 성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며 근로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깃을 펴고 사는 그런 거리, 그런 마을이 얼마인지 모른다.

아니 온 나라가 그대로 평범한 근로인민의 요람으로 되고있는 우리의 조국이다.

지구상의 곳곳에 다닥다닥 빈민굴이 늘어나고 《거지촌》이 생겨나 한숨과 절망이 비껴갈 때 밝고 밝은 생활의 대문이 더 크게 열려지는 우리의 거리와 거리, 마을과 마을들 그 모두를 품안고 있는 어머니조국.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숨결을 안고 희망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영광은 얼마나 끝없는가.

그래서 경축의 이 아침에 선 사람들모두가 다 함없는 고마움에 젖어 노래부르는것이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많아도  
사회주의 우리 조국 제일 좋아라  
김일성대원수님 이끄시는 내 나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

그렇다. 한평생 조국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사회주의 이 강산에 빛나고있는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영원한 인민의 나라로 그 이름 만방에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가사

## 평양이여 그대가 있어

림성희

전호가 달빛에 고요히 실려오네  
웃으며 들어서던 배움의 꽃대문  
내가 심은 살구나무 꽃이 피던 모란봉  
아, 내 자란 평양이여 그대가 있어  
조국위해 목숨바칠 병사의 맹세도 있네

행군의 설참에도 후덥게 어려오네  
아침저녁 오가던 위훈많은 영웅거리  
붉은꽃 정히 놓던 대성산의 주작봉

아, 내 자란 평양이여 그대가 있어  
조국위해 목숨바칠 병사의 맹세도 있네

눈덮인 전호에 병사는 서있어도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사는 나의 평양  
조국의 심장인 수뇌부가 있는곳  
아, 내 자란 평양이여 그대가 있어  
조국위해 목숨바칠 병사의 맹세도 있네



## 연구사의 일기

박성전

나는 며칠전 운양탄광에 다녀왔다. 새로운 채탄법을 연구한 채굴공정연구사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어찌나 바쁜 사람인지 취재할 틈을 짜낼수 없었다. 몸을 빼지 못하고 일에 달려돌아가던 그가 오히려 미안해 하며 말주변 없는 자기를 취재하기보다 차라리 자기 일기장을 보는것이 나을것이라면서 량해를 구하는것이였다.

하는수 없이 나는 그의 일기장을 펼쳐들게 되였다. 처음에는 별로 흥미없이 읽기 시작했지만 차츰 나는 그의 일기장에 끌려들게 되였다.

아래에 그 일기 몇토막을 추려 소개하려 한다.

×

오늘은 음산한 날씨였다. 마가울의 찬비를 맞고 일기를 쓰는 내 마음도 울적하기만 하다.

오늘 동발연구실 사람들앞에서 내가 구상해오던 비가축성동발을 개발할데 대한 의향을 피력해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자는 범 교수염을 건드리놓은격이 되였다.

《흥, 삶은 무우에 이도 안들어갈 소리로군.》

《자네 학사가 됐으면 좀더 겸손해야지.》

학위논문 지도교원인 지운학교수의 가축성동발 이론에 도전하려는건가?》

《자가사리가 룡을 건드리는 격이지.》

그리고 또 뭐했던가? 귀저린 말을 많이 했는데... 나는 오늘 사람의 혀가 뼈를 깎는다는 말의 참뜻을 새삼스럽게 느껴보았다. 나는 동발리론의 권위자이며 내가 존경하는 스승인 지운학교수에게 도전하려는가고 하던 그들의 말에 눈앞이 아찔해지는것을 느꼈다. 당치 않은 억측이었지만 그 말은 나를 당황하게 하였다. 내가 비가축성동발을 개발하겠다는것은 결국 가축성동발리론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되지 않는가.

70고령에 이른 지운학교수는 처음으로 우리 나라 탄상조건에 맞는 붕괴방출리론을 확립해놓은 명망높은 교원학자이며 가축성동발리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학계에서 공적있는 권위자의 한사람이다. 선생이 연구집필한 교과서, 참고서들과 수많은 논문들은 우리 나라 석탄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스승에게 내가 감히 도전한단말인가? 과연 내가 그런 도덕과 의리의 유린자란말인가?

아니다! 나는 명예욕에 들뜬 《민충이》도 아니고 스승에게 도전하는 《자가사리》도 아니다. 내가 비가축성동발을 개발하려는것은 탄부들이 학

수고대하는 면봉괴식채탄법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탄부들의 기대와 믿음을 외면할수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스승의 리론에 도전하는 《도덕과 의리의 유린자》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은가. 아, 이런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좋은가?

래일 선생을 찾아가자. 선생은 내 심정을 리해하여줄것이다. 선생의 면전에서 선생의 리론을 어떻게 부정할수 있단말인가? 이것도 역시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될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오늘 마가울의 찬비가 울씨넌스럽게 느껴진 까닭이 나의 이런 고민때문인것 같다. 차라리 운양탄광으로 가자. 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소탈하고 진실한 의견을 듣는것이 현명한 처사일것이다.

×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렬차칸에서 비가축성동발에 대한 생각에 어찌나 깊이 빠졌던지 운양역을 지나치는줄도 모르고있었다.

앞에 앉은 할머니가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뻔했는가. 역을 지나쳤다는 다급한 생각에 다물리어 덤비다보니 옷걸이에 걸어놓았던 털덧저고리를 버리고 내려왔다.

거꾸로 내려오는 짐차를 잡아타고 운양역에 내려올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했다. 역전거리 십자도로를 횡단하면서 자동차의 경적도 감각하지 못하고있었다. 뼈를 긁어내리는듯한 아츠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벌써 자동차의 코송이가 내 몸에 닿을락말락하게 뺨 멈춰섰을 때였다.

어느새 운전칸에서 뛰어내린 운전사가 내 코앞에 주먹을 내흔들며 여벌목숨이 몇개나 되는가고 노발대발했다. 그러는 운전사를 보기가 미안했고 나를 각성시켜주는 그가 고마웠으며 제생각에만 빠져다니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나의 연구과제에 대한 동요때문에 생겨난것이다. 나는 내가 스승에게 도전해나섰다는 생각에 겁을 먹었고 비가축성동발연구를 포기하는것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생각인가, 연구사업에 자기를 잃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 연구사업에 대한 동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것은 유해로울뿐이다.



×

탄광기사장 윤창섭은 동발연구실 사람들한테서 나에 대한 좋지 못한 말을 들은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왜 돌변했겠는가. 오늘아침 나에게 비가축성동발을 연구한다는게 사실인가고 묻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동무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우리 탄광으로 데려왔었네. 지운학선생의 권고도 있고해서 말일세. 선생은 자네에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 하지 않았네. 사람에 대한 칭찬에 린색한 선생이 자네의 학위문본을 지도하고나서 자네를 여간 칭찬하지 않더군. 자네의 탐구적열정이 비상하고 창조적환상력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이요. 선생이 자네가 앞으로 큰일을 할수 있을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였기에 나도 자네를 도와려고 했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자네 선생의 그 신의를 저버리고 도전해나섰다면?... 사람이 어쩌면 그럴수 있나.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는지 아나? 이 기사장이 과학의 법칙도 공리도 모르는 사람을 탄광에 끌어들었다는거요.

지운학선생은 내 장인이라고 해서 자랑하는게 아니라 제자들과 학계에서 공인하는 권위있는 학자요. 그런데 자넨 제자된 도덕과 의리도 다 췌버리고 선생의 학적권위를 허물려구 비가축성동발연구에 달라붙었다니 이런 무엄한것이 또 어디 있겠나. 솔직히 말하네만 나는 자네같은 야심가를 도와주고싶은 생각이 없네.》

나는 아연해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스승의 권위를 허물려는 《도전자》로 보는가? 나는 나를 야심가로 치부하는 윤창섭이 노여웠다. 나를 타매하는 그의 리면에 자기 장인의 학적권위를 옹호하려는 심정도 깔려있었지만 선생의 새로운 동발리론을 도입한 경험론문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우려심이 깔려있었기때문이다.

이런 기사장의 그늘밑에서 과연 연구사업을 순탄하게 할수 있을까? 굵은 지팽이는 그림자도 굵어비치기 마련 아닌가.

×

기사장 윤창섭은 이미 약속했던 동발강재를 달라는 나의 요구를 단마디로 거절해버렸다.

《5호편도를 확장하다보니 동발강재로 쓸진 없네. 말이 난 김에 한마디 하세. 사실 스승에 대한 의리가 없는 자네를 도와주고싶은 생각도 없는건 사실이네. 제 목숨이 소중하다고 선생의 측정치기목수첩을 췌버리던 일이 생각되지 않나?》

내가 지운학선생의 측정치기목수첩을 잃어버린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 목숨을 살리려고 췌버렸다는것은 사실을 과장한 경멸이다.

지금도 사곡탄광에서 실습하던 때 일이 눈앞에 선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지운학선생은 우리 나

라탄상조건에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 채탄법을 가르친 자신은 두고 써져린 자책과 번민속에서 모태기고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채탄법에 매달려 사처에서 《갈망식》이요, 《침하식》이요 하면서 연구사업을 경쟁식으로 하다가 모두 실패의 쓴맛을 보고 주저앉은 때였다. 지운학선생은 그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번역교재를 가르친 자신에게게서 찾았던것이다. 교육에서 사대와 교조의 후과는 참혹한것이였다. 나라의 석탄공업을 떠메고나갈 인재를 양성하자면 그 번역교재를 덮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교육내용을 주체적으로 꾸리는 문제는 지운학선생에게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선생은 남모르는 시련의 초행길을 걷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력대로 써온 봉피방출에 대한 리론은 그 누구도 연구해놓은것이 없었던것이다. 원래 우리 나라 무연탄은 탄상농임새가 복잡하고 그 성질이 고유해서 다른나라 석탄채굴방식이 맞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 탄상조건에 맞는 무연탄방출리론은 말그대로 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이 탐구의 길은 목숨을 내뱉 용단이 없이는 들어설수 없는 위험한 길이였다. 하나의 과학적인 측정치를 얻자고 해도 봉피된 막장의 아득한 공간속에서 탄층이 무너져내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의 한계점을 선택하여 측정해야 하는 일이였다.

우리 나라 무연탄봉피방출리론이 미개척지로 남아있게 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직 누구도 나서보지 못한 길, 부지불식간에 섬찍한 생각이 덮쳐드는 이 소삽한 초행길에 나선것이 바로 지운학선생이였다.

선생이 사곡탄광에서 한창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실습을 하게 되였다.

우리가 실습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생은 탄부들과 함께 짜부러져가는 채굴막장에서 무너져내린 석탄량을 측정하느라고 되박으로 되고있었고 그 알무리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채로 치고있었다. 모두 땀투성이가 된데다 석탄먼지를 뒤집어써서 누가 선생이고 누가 탄부인지 통분간할수 없었다.

우리를 발견한 선생이 흰 이를 드러내고 웃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을것이다.

지운학선생은 실습생들을 연구사업에 인입시켰으나 막장의 채굴공간을 측정하는 일에만은 누구도 참가시키지 않았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했던 윤창섭이와 나는 어느날 긴 자막대기를 들고 막장으로 들어가는 선생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막장에 들어서자 선생은 아득한 공간속에 솟아오른 탄무지를 톱아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뒤를 따라 발목을 삼켜버

리는 탄무지를 바라올랐다. 우리를 발견한 선생은 엄한 목소리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설수 없었다. 선생이 가는 길을 우리는 왜 못가는가고, 량심이 가리키는 길, 배우고싶어 선생을 따르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는 우리의 절절한 간청에 선생은 말없이 감동에 젖은 눈길로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선생의 조수로 되었다. 윤창섭은 선생이 톱아오르는 아슬한 공간에 불빛을 비쳐주었고 나는 선생이 팔죽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얻어낸 측정치들을 기록수첩에 기입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사곡탄광의 마감막장에서 방금 붕괴된 천정공간면적을 측정하던 우리는 재차 무너져내리는 탄무지속에 파묻히게 되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탄부들이 우리를 구원해주었다.

병원에 실려간 윤창섭이와 나는 인차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천정꼭대기에 올라 공간을 측정하던 지운학선생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허벅다리뼈가 부러진데다가 근육이 헤쳐지고 이물려서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었다.

선생은 사흘후에야 겨우 의식을 회복하였다. 옆에 서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던 선생의 깨물린 눈길이 나에게 멎어섰다. 순간 나는 선생이 측정치기록수첩을 찾는다는것을 직감하고 머리를 떨구고말았다. 탄부들과 함께 그 수첩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것이다. 나의 거동에서 그런 사연을 짐작했던지 선생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랬겠는가.

그후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가볼수 없었다. 동무들이 선생을 찾아갈 때마다 나는 한숨속에 자신의 실책을 저주하며 다시 막장에 들어가 탄무지를 뒤졌다. 그러나 수첩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진맥진 한 나는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이때 윤창섭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제 목숨 건지겠다고 선생의 그 귀중한 수첩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그 비난은 나의 골수에 치욕으로 새겨졌다.

실습을 마치고 대학에 돌아오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모두 방학을 떠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지운학선생을 찾아갔을 때 나는 남들몰래 사곡탄광으로 떠나버렸다. 선생이 진행한 현지 측정로정을 따라 다시 측정할 결심이었다. 나는 현지 측정과정에 선생의 연구사업 의지와 각오를 짐작할수 있었다. 수첩에 기록되는 모든 수치들을 목숨과 바꿀 각오와 의지가 없이는 그 과학성을 담보할수 없었다. 나도 몇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행하게도 큰 붕괴가 아니어서 병원신세를 적게 졌을뿐이다. 그러다보니 방학이 끝나도록 선생이 밝은 로정을 다 밟을수 없었다. 내가 그 로정을 다 거치고 대학에 돌아온것은 방학이 끝난 보름후였다. 한밤중에 기숙사호실에 들어섰을 때 동무들은 나를 의

혹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사연인즉 지금 지운학선생은 내가 막다른 생각으로 방학에서 돌아오지 않고있는줄로 알고있다는것이였다. 그 사연을 알게 된나는 늦은밤도 가릴 경황이 없었다. 선생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즉시 병원으로 갔다.

그때까지 침상에서 글을 쓰고있던 선생은 입원실에 들어선 나를 보자 불편한 다리로 일어서며 나를 반겨주었다. 내 손을 꼭 잡고 유심히 나의 얼굴을 살피던 선생은 방학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 왜 이처럼 수척해졌는가고 걱정했다.

나는 품속에 간직해온 측정치기록수첩을 꺼내어 선생에게 내밀었다. 석탄검댕이에 절고 찢기고 보풀이 인 수첩이였다. 선생은 그 수첩을 지켜보며 이윽도록 놀라운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럼 자네가?!...》

선생의 걱정어린 목소리가 왜서인지 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고이게 했다. 선생은 눈물을 삼키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봉규! 자네가 내부러진 다리를 보상해주었구만!》

선생은 마치 룡의 알을 얻은듯 측정치기록수첩을 어루쓸며 기뻐했다.

그날밤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나는 병원에서 돌아왔다. 선생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문밖까지 나를 배래주었다. 선생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상한 다리를 절었다. 그러는 선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주체적인 붕괴방출리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바친 그의 위훈에 대하여,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육자의 깨끗한 량심과 숨은 노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윤창섭은 오늘 내가 스승을 존경할줄 모른다는 이유로 동발을 만들 강제보장을 거절해버렸다. 그의 곡해를 풀어주고싶었지만 내 말을 한갓 변명으로밖에 여기지 않을것 같아 그만두고말았다. 소경한테도 눈이 멀었다고 하면 노여워한다지 않는가.

×

오늘 나의 행동은 지나친것 같다. 이웃 탄광에 가서 얻어온 강재를 기사장이 5호편도 확장하는데 돌렸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만 버럭 성을 냈다.

《동발강재를 빼돌리면 연구사업은 어떻게 하라는거요?》

《연구사업?》

그는 온몸지 않게 나를 힐끗 쳐다보고나서 쓴웃음을 지었다.

《나한테는 지금 자네의 연구사업보다 탄광일이 더 중하네. 까놓고 말해서 자네의 연구사업이란 누구를 위한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네. 스승을 디디고 올라서보겠다구? 어림없네. 제발

여기서 부산피우지 말고 다른 탄광에 가주게. 이거야 어디 시끄러워 살겠소.》

그는 나에게 찬바람을 끼얹으며 밖으로 휩 나가버렸다.

나도 다른 탄광으로 가버리고싶다. 하지만 이것은 격분한 감정이다. 그렇게 하면 술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시간은 곧 나의 생이며 시간의 공백은 곧 내 삶의 공백을 의미한다. 그 어떤 시비와 증상, 모멸을 당한다 해도 나에게서는 조국을 위하고 탄부들을 위한 일에서 시간을 낭비할 권리가 없다. 삶은 곧 투쟁이다. 난관에 주저하고 시련에 굴복한다면 거기에 무슨 새것을 창조하는 과학자의 삶이 있고 보람이 있겠는가.

×

요즘 내 인상이 좋지 않은것 같다. 기술혁신조원들이 측정한 눈길로 나를 위로하군한다.

《연구사선생, 너무 낙심하지 마우다. 동발을 만들 강제는 우리가 해결해보겠수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온 탄광을 돌아다니며 비가축성동발을 쓰는 면봉괴식채탄법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탄부들에게 유희강제수집을 호소했다. 수집한 강제를 가져오는 탄부들이 점점 늘어났다. 아침저녁으로 갭앞에 쌓여지는 강제더미를 볼 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탄부들은 언제나 나의 연구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변심없이 도와주는 혁명동지이고 소탈한 선생이며 기발한 착상과 육체적로동의 믿음직한 방조자였다. 오늘도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투지를 안겨주었다.

×

시험채탄장에 가축되지 않는 라선형쇠동발을 드리기 시작하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날이 갈수록 탄부들의 호기심은 높아지고있다. 한달이 지나도록 채탄장에 아무런 변형도 생기지 않게 된 요즘 보는 사람마다 나에게 묻는다. 이런 동발은 어떻게 생각해냈는가? 앞으로 채탄장이 짜부러들지 않겠는가? 탄은 어떤 방법으로 캐게 되는가? 질문은 점점 더 많아진다.

이 동발에 대한 착상도 탄부들이 준것이다. 언젠가 그들과 모여앉아 비가축성동발에 대한 나의 꿈을 피력했었다. 그때 나이 지숙한 한 탄부가 자기 고향에서 모래불우에 우물을 파던 이야기를 했다. 무너져내리는 모래를 막기 위해 산에서 싸리나무를 베어다가 타래를 틀어 라선형으로 채곡채곡 돌리면서 16메터나 되는 우물을 파내려갔다는것이였다. 그 우물이 전쟁시기 미국놈들의 폭격에도 끄떡없이 마을사람들의 음료수를 보장하였다고 한다.

이 기묘한 우물공사방법이 지압에 놀리어도 짜부러들지 않는 비가축성동발을 착상하게 했다.

하지만 동발전문가가 아닌 나에게는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다. 따져묻는 탄부들에게 만족할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그렇다보니 탄부들은 라선형쇠동발을 쓰는 새 채탄법이 종래의 채탄법이 가지고있는 낮은 채취률과 투기성, 위험성을 극복할수 있으리라는 리해는 가지면서도 동발을 회수하지 않고 세워둔채 전공발파하여 탄층을 무너뜨린다는데 대해서는 의혹을 금치 못해했다. 지금까지 동발을 세워두고 발파할수 없다는것은 하나의 공리로 여겨왔기때문이다. 탄부들에게 이 굳어진 인식을 뒤집자면 그 리치를 설명해줘야 하겠는데 솔직히 말하여 나 자신에게도 그런 확신이 부족하다. 그 리치는 아마도 지운학선생만이 옳바로 해명할수 있을것이다. 선생을 찾아가 상론해보고 싶으면서도 나는 왜 아직 그런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는가?

×

윤창섭은 점심시간에 연구소에서 나를 부른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무엇때문에 찾던가고 묻는 나의 질문에 그는 시답잖은 태도로 대답했다.

《자네의 그 말썽많은 연구과제를 과학원에서 재심의한다는가보네.》

그의 이 대답은 나를 불안케 했다. 그것은 나의 연구과제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이 이런 일을 빚어내었다는 생각과 함께 아직 해명하지 못한 문제들을 변론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이제라도 지운학선생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일을 벌려오다가 연구과제를 재심의하겠다는 평의회를 앞두고 찾아가는 나를 선생은 어떻게 볼것인가? 밖에 나가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 울며 송사질하는 자식을 곱게 볼 부모는 없지 않는가. 더구나 나의 연구과제는 선생이 한생을 두고 연구발전시켜온 리론을 뒤집어놓은것이 아닌가. 리해력이 깊은 선생이라 해도 자기 리론을 부정하는 제자를 곱게 볼수 없을것이다. 철들지 못한 귀여운 자식의 손에 맞은 뺨은 아프지 않아도 철든 자식의 손에 맞은 뺨은 아프기마련이다. 그것이 비록 본의아닌 응석이라해도...

어쩐지 오늘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다. 혹시 내 연구과제가 《낮도깨비》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어리석은것이 아닐가? 평의회에서 나의 연구과제를 재심의한다는것이 심상치 않게 생각된다.

×

회의는 예상외로 커졌다. 연구과제가 동발문제와 결합된 채탄법이다보니 그와 관련되는 학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다. 권위있는 대학교수들과 운양탄광을 비롯한 현장기술인들까지 참가하다보니 회의장은 비좁을 정도로 차고넘쳤다.

나는 직관물앞에서 조리있게 설명하느라고 했

지만 긴장했던 탓인지 변론하는 나 자신에게도 어설픈 느낌이 들었다.

나의 변론이 끝나자 질문이 터져나왔다. 탄부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나의 시선은 자연히 지운학선생한테로 미쳐갔다. 선생은 학생들의 시험을 받을 때처럼 곧바른 자세로 정리되지 못한 나의 대답을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검은오리 하나 섞이지 않은 선생의 머리는 어딘가 모르게 펍 늙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끝나자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들속에는 연구과제의 대담성과 그 경제적의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축성동발원리 그자체를 부정하는것은 비과학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것은 공명주의 표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운학선생은 질문도 토론도 하지 않고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토론을 듣는지마는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회의마감에 이르러 집행부에서 지운학선생을 지명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긴장한 시선들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선생이 채머리를 흔드는것을 보고 몹시 흥분되어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지평이를 짚지 않고 절뚝거리며 연단으로 나갔다. 나에게 판록있는 선생의 그 걸음이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을 선언하려고 나가는 재판장의 걸음처럼 느껴졌다.

《동무들, 나는...》

이렇게 서두를 땀 선생은 갑자기 사례들린 사람처럼 얼굴에 물기가 오르면서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다음 순간 선생은 심장부위를 움켜쥐고 연단에서 물러섰다. 비칠거리는것을 본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연단쪽으로 달려가던 나는 윤창섭이 앞을 막아서며 눈을 흘기는바람에 물려서고말았다. 선생이 심장병을 앓고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처럼 심한 발작을 일으킬줄은 미처 몰랐다. 혹시 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불만 때문이었을까?

의식을 잃은 선생이 병원으로 실려간 다음 회의는 이상야릇한 분위기속에서 끝났다. 나의 연구과제가 매우 큰 의의를 가진것이기는 하지만 그 원리가 학계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였다. 이것은 부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지운학선생의 토론을 듣지 못하게 된것이 여간 아쉽지 않았다. 선생의 발언이 두려웠던것은 사실이였지만 그에 목마르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갑론을박하는 론제에 대한 해명에서 언제나 편견에 빠질줄 모르는 선생의 엄정성과 투철한 과학적량심에 대한 기대였다.

회의가 끝난 빈방에 홀로 앉아 지운학선생의 지평이와 털모자를 매만지며 나는 생각했다. 방

금 짝튼 애슬포기가 락락장송으로 자라자면 사나운 폭우와 엄혹한 눈보라를 얼마나 많이 이겨내야 하는가.

×

굴진에 로력이 딸린다는 구실로 윤창섭은 눈썰미있는 동발공청년을 소환해갔다. 그 청년은 나와 함께 라선형동발설계를 완성한 재간둥이였다.

이제 한창 동발드리는 미련이 터가는 그를 매우 고보니 마치 쫓는 방아공이를 뺏히운것만 같다. 내가 분을 새기지 못해 씨근거리고있을 때 그 동발공청년은 나를 보며 벌썬 웃었다.

《선생, 이거 심하게 됐수다. 하지만 내가 영가는줄로 생각지 마시오. 이제부터 두사람몹을 해야 하니까 좀 배찰뿐이지 일없수다. 날마다 하루일을 끝내고 오겠소.》

윤창섭은 나의 연구과제가 부결된것으로, 조만간에 연구소에서 나를 철수시킬것으로 타산하는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자기가 직접 무어준 기술혁신조를 허물겠는가. 그가 이런 식으로 내 연구사업을 비탄다면 장차 채탄시험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

나는 오늘 나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볼트나 트때문에 공무직장에 갔다 돌아와보니 동발시험장에 뜻밖에도 지운학선생이 와있지 않는가. 나는 꿈을 꾸는것 같아 눈을 슴뻑거렸다.

선생은 동발을 드리는 기술혁신조성원들과 담소하고있었다.

《동발드린지 석달이 지났으면 이견 기적일세. 가축성동발은 아무리 잘세워도 한달을 유지하기 힘든데 석달을 유지하고도 끄떡 없으니 이견 동발력사에 없는 기적이야!》

선생의 흥분한 목소리였다.

《그래 기사장은 여기 들어와 봤소?》

《들어왔습습니다. 망치로 동발을 사정없이 때려도 보았지요.》

《그러고도 이 동발을 믿지 못해한단말이요?》

선생은 나를 발견하자 나의 어깨에서 상자를 받아 내려와주었다.

《붕규 이사람,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만. 내 벌써 와본다는게 그만...》

《선생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대단히 위급한것 같았는데.》

《아니, 그런게 아니라 내가 너무 흥분했었네. 자네의 대담성과 기발한 착상에 그만 넋을 잃은 셈이랄가.》

기쁨에 넘친 선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나의 눈을 의심했다. 불쾌해하는 선생의 얼굴만 그려보던 나에게 선생의 기쁨이 낯설게 느껴졌던것이다. 선생을 그토록 찾아가고싶으면서도



시비군들의 말에서 그 무슨 일리를 찾으려 찾아가기 두려워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나는 그날 법칙이요 뭐요 하면서 스승에 대한 자네의 도덕과 의리를 절고드는 시비군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싶었소. 우리 시대의 사제관계는 당정책을 관철하는 동지적관계이지 새것을 억제하는 도제관계가 아니라고말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선생의 지지에 고무된 나는 선생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스승을 도전하는 야심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눅이 들어 찾아가지 못한 사연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 말을 들은 선생은 몹시 언짢아했다.

《내 론적이 될가봐 두려웠단말이지? 어쩌면 자네까지 그런 생각을 한단말인가.》

선생의 얼굴에 피었던 웃음꽃이 스러졌다.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선생은 말이 없었다. 사위인 윤창섭이네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나의 권유에도 아무런 반응없이 내가 사는 수수한 합숙방으로 따라들어섰다.

방에 들어선 선생은 숙연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문건철들을 꺼내었다.

《봉규동무의 변론을 들으면서 아직 해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 애로를 느끼고있는것 같아 내 참고자료들을 가져왔네.》

선생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아직 해명하지 못한 문제, 지어 내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있던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수 있는 긴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은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나를 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런 정을 느낄줄 아는 사람이 스승에게 도전하는 제자라고 생각했나? 그래 자네 내 학적권위를 허물려는 야심을 품고 비가축성동발을 개발하려고 했던가?》

나는 탄부들이 바라는 채탄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는것을, 다른 야심이 없었다는것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이 스승의 리론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는거요? 자네도 사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옳게 하지 못한것 같네. 자네는 스승의 리론을 혁신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도전으로 잘못 이해하고있단말일세. 혁신이 없는 계승이란 교조이지 참다운 계승이 아니요. 가축성동발도 비가축성동발도 우리 탄부들을 짜부러지는 동발밑에서 느끼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하고 쉽고 더 많은 탄을 캘수 있게 하자는 우리 당의 의도를 실현하자는데 그 근본목적을 두고있소. 차비가 있다면 비가축성동발이 가축성동발을 혁

신적으로 발전시킨데 있지. 여기에 무슨 스승의 권위훼손이요, 론적이요, 야심이요 하며 떠들게 있소. 교육자의 권위는 새로운것을 발명하는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있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을<숨은 노력가>라고 불러주신 뜻을 잘 새겨보게. 교육자의 명예는 그자신의 학적권위에서가 아니라 그가 키워낸 제자에게서 빛나야 한다는 뜻일세. 진실한 <숨은 노력가>가 되자면 자기 학적권위의 어깨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야 하네. 나는 자네같은 제자를 가진것이 기뻐서 자네 연구사업성과를 축하하러 이렇게 왔네.》

선생은 뜻밖에도 가방에서 술병과 탈피명태를 꺼내었다. 선생이 넘쳐나는 잔을 나에게 권했을 때 나는 당황하여 사양했다. 그러나 선생은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며 생각깊은 어조로 권했다.

《내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어서 받게. 속일이 자라면 결일은 젖혀지기마련일세. 속일의 성공의 열매를 위해서 결일의 축원이 담긴 잔이니 사양말구 어서 들라구.》

나는 선생의 깊은 뜻을 담은 그 잔을 더 사양할수 없었다. 그 술잔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제자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잔을 비우며 나는 연구사업을 성공시키고야말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선생은 그제서야 만족하게 웃으며 내가 부어준 술잔을 달게 들었다.

이런 때 윤창섭이 장인을 찾아왔다. 그는 학생때처럼 깍듯이 인사하며 선생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선생은 응하지 않았다.

《고답네만 오늘은 봉규동무와 함께 있겠네. 아직 토론할 문제도 있고 또 새벽차로 떠나야 하니까. 래일 두번째 강의가 있네.》

윤창섭은 몹시 섭섭해했지만 선생은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선생은 밤깊도록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가축성동발의 성공을 것처럼 기뻐하던 선생은 만시름을 잊은듯 깊은 잠에 들었다.

지금 나는 잠든 선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일기를 쓴다. 이밤은 나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밤으로 내 기억속에 남아있을것이다.

×

지운학선생이 비가축성동발의 성공을 인정했다는 소식에 신심이 부풀어 채탄준비를 다그치던 기술혁신조성원들은 오늘 된서리를 맞았다. 며칠전부터 나에게 채탄시험기술과제서를 해오라고 하던 윤창섭은 기술혁신조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들의 해산을 선포했다. 그 이유를 따지고들자는 나에게 되물었다.

《자네 채탄장에서 동발을 세워둔채 발과한다는게 사실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로골적으로 반대했다.

《채탄장에 동발을 세워둔채 발파하는걸 어데서 봤나? 그런 채탄시험은 우리 탄광에서 할수 없네. 그런 모험에 금싸래기같은 우리 탄부들을 희생시킬수 없단말일세.》

나는 기술과제서를 하러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산명령을 받은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나에게 차표까지 사주며 바래주었다. 그들은 그동안 채탄시험준비를 착실히 해놓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주었다.

×

나는 열흘가까운 시간을 랑비하였다. 채탄시험 기술과제서는 첫걸음부터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윤창섭이처럼 인명사고와 자재랑비를 전제로 하는 모험이라고 트집잡아 거절하는것이였다.

기술과제서를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나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동발연구실 실장이 발벗고 나서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제동을 거는 사람들에게 채탄시험 성공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변론해주었다. 비가축성동발 연구를 반대하던 그가 사람들을 리치에 맞게 납득시키는것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며칠전에 지운학선생이 비가축성동발시험이 성공한 사실과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동발연구실에 와서 강의했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비난과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을 심각히 비판했다는것이다. 실장은 자신도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였다고 허심히 자기 비판까지 하는것이였다. 이번에 채탄시험기술과제서를 할수 있는것은 결국 지운학선생의 《학적보증》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내가 운양역에 내렸을 때는 어두운 밤이였다. 나의 발걸음은 자연히 채탄시험장으로 향하였다.

밤은 어두웠지만 나의 발걸음은 날개돋힌듯 가벼웠다.

외등이 켜진 갱입구를 바라보며 언덕길을 내리던 나는 은은한 발파소리에 걸을 멈추었다. 분명 채탄시험장에서 울린 발파소리 같았다. 채탄시험준비를 착실히 해놓겠다던 기술혁신조성원들의 말이 생각되자 그들이 나를 기다리다 못해 저희끼리 시험을 단행한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닿아 갱입구에 다달았을 때 나는 나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장이 해산해버린 기술혁신조성원들이 다 모여앉아 담배를 피우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자 우르르 일어서며 반겨주었지만 나는 그들과

같이 앉아 인사를 나눌 경황이 없었다. 나의 관심은 동발의 운명에 가있었다. 초조해진 나는 발파가스와 탄먼지가 빠지기를 기다릴수 없었다. 나는 안전모도 없이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막장을 향해 달려들어갔다. 뒤에서 누군가가 서라고 고함질렸지만 내 마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스와 먼지가 자욱하여 한발자욱앞도 분간하기 어려운데다 무득무득 쏟아져내린 탄무지들에 발목이 빠져들어 얹어지고 넘어지며 달려들어갔다. 막장에 이르러 곳곳이 살아있는 동발을 발견한 나는 걱정을 누를길 없어 쇠동발을 와락 부둥켜안았다. 내뒤편을 따라 들어온 기술혁신조성원들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하고 탄성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이런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조용히 건드렸다.

《연구사선생, 대학선생님이 오셨수다.》

이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두게, 얼마나 고심겹게 얻은 성공이면 그러구 있겠소!》

이런 장소, 이런 순간에 찾아온 지운학선생이 하도 반가와 나는 선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선생은 껄껄 소리내며 웃으며 나의 잔등을 두드려 주었다.

《장하오, 장해! 자네 기적을 창조했네!》

선생은 이틀전에 내려와 채탄시험준비정형을 료해하고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내가 떠났다는것을 확인한 선생은 미리 발파시험을 시작하게 했던것이다.

나는 지운학선생과 함께 동발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일부 위치드럼을 한 동발은 있었지만 견디지 못한 동발은 하나도 없었다.

《이젠 탄을 뽑아보지 않겠소?》

선생의 이 말이 나오기바쁘게 조장이 구령을 주었다.

《콘베아를 돌려라!》

순간 탄무지속에 파묻혀있던 굵개식콘베아가 용을 쓰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석탄이 얼마나 많이 실려나갔는지 조구통이 잠간사이에 넘쳐났다.

막장에 앉아 끝없이 밀려나가는 석탄을 지켜보며 지운학선생은 감개무량해 했다.

《우리 탄부들이 이런 동발밑에서 안전하게 탄을 마음껏 켤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마음 장쾌하기 이를데 없네!》

제자들에 대한 과찬을 자만과 교만의 씨앗으로 여기고있는 선생에게서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이런 때 갑자기 콘베아가 멎어섰다. 채탄장입구쪽에서 노발대발하는 거친 목소리가 울려왔다.

《누가 채탄시험을 하라고 했소? 누가 발파승인을 했는가말이요?》

기술혁신조성원들을 닥달하는 윤창섭의 목소리

었다. 내가 그쪽으로 나가는데 영성해보이는 청정을 겹질린 눈길로 살피며 들어오던 윤창섭이 나를 보자 대뜸 성을 내었다.

《자네 정 이러긴가? 순진한 탄부들을 꼬여내어 이런 모험을 하다니. …월권행위를 하여도 분수가 있지. 자네 지운학선생까지 시켜서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하구…》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멍해있었다. 이때 막장쪽에서 지운학선생의 엄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보게 기사장, 그 사람은 방금 자네가 요구한 기술과제서를 해가지고 들어서는 길일세.

내가 자네한테 채탄시험준비가 다 된걸 알리면서 채탄시험을 해보자구 한게 협박전화였단말인가? 트집을 잡아두 리해가 가게 잡아야지. 그게 무슨 생트집인가?》

성이 똑같이 올랐던 윤창섭은 선생의 그 말에 사색이 되어버렸다. 이런 장소에 장인이 들어와 있을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어찌자구 이런 위험한 장소에 들어와 계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여기는 선생님께서 계실 자리가 못됩니다.》

지평이를 짚고 나오던 지운학교수는 엄한 눈길로 윤창섭을 지켜보았다.

《그만두게, 자네의 그 값싼 동정보다 봉규동무의 이 비가축성동발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네. 자네는 봉규동무가 내 권위를 허무는 제자라고 뉘방을 놀았다면서? 그는 내 학적권위

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이 쌓아준 도덕있고 의리깊은 제자일세.

자네는 지금 내 한생에서 느껴보기 힘든 보람과 기쁨을 짓밟고있다는걸 똑똑히 알아두게. 교육자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자기 어깨우에 봉규동무와 같은 제자를 올려세우는데 있네. 교육자의 수치는 바로 새것을 방해하고 창조할줄 모르는 자네같은 사람을 키운데 있구.

자네는 오늘 우리와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니 여기서 나가주게.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구. 자네 내 사위는 될수 있겠지만 내 제자는 아닐세.》

교수의 목소리는 비록 높지 않았으나 감히 거역하기 어려운 위엄이 어려있었다.

어깨를 처뜨린 윤창섭은 한마디의 변명도 못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나갔다. 선생은 그의 뒤모습을 피로운 눈길로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나는 선생의 그 모습에서 나라의 석탄공업을 떠메고 나갈 후대육성을 위해 개인과 가정의 율타리를 떠나 정의와 량심을 지켜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온 숨은 노력가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평이에 몸을 의지하고 윤창섭이를 지켜보는 눈길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깨를 딛고 새로운 과학탐구의 세계로 돌진하라고 호소하는 교육자의 엄한 요구성을 읽게 되었다.

윤창섭이 밖으로 나가자 콘베아는 다시 용을 쓰며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 조선의 국화 목란꽃

혜수 께호비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의 지향이 풍기는 꽃

목란꽃은 조선인민이 사랑하는 꽃  
일터에도 학교에도 공원에도  
취할듯한 짙은 향기 넘쳐나  
대기를 신선케 하는 꽃

아름다운 나라  
조선에 피어난 목란꽃  
너의 그 향기  
먼곳의 모든 가슴 취하게 하누나

깨끗하고 싱싱한 목란꽃

너는 사랑과 행복 희망과 신념의 상징  
순결하고 단아한 너의 모습  
진실하고 정의로운 조선인민의 상징

여기 머나먼 베닌에서도  
눈감고 조용히 네 이름 외우며  
그 향기에 가슴 젖는 목란꽃  
너야말로 꽃중의 꽃이어라

목란꽃 조선의 꽃  
사람들을 매혹시켜 삶의 기쁨 안겨주는 꽃  
너는 근면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의 상징  
너는 룡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상징

(필자는 베닌대학 교수임)



## 나의 공민증 외1편

전승일

17살 피끓는 심장우에  
조국은 없어주었더라  
이 공민증을

순박하던 이 소년의 심장이  
거대한 조국의 호흡에 박동을 같이했고  
이 눈은 조국 삼천리를  
깨끗해보기 시작했더라

쓰디쓴 눈물에 동정이 썩고  
고름이 떨어져나간  
부엌너의 손자 내 이름우에  
붉은 국장을 눌러주자고

누렁소의 짙대기속에  
청춘을 파묻고  
그 외양간이나마 부러워하던  
삼대 머슴의 손자 나에게  
세칸짜리 집주소를 적어주자고

오, 조국이어 그대는 헤쳐왔더라  
백두의 만년장설과  
피어린 락동강

숨막히는 재더미를

눈부신 태양의 해살이 비쳐드는  
나의 집 한장 창유리를 지켜  
오늘도 지구가 깨지도록 우뢰를 터뜨리는  
조국의 서리발 분노를 들으며  
이 아들은 피가 뛰는 젊음의 주먹을 틀어쥐었거  
니

나의 이름, 나의 집, 나의 직업을  
또박또박 여기에 적어주었다만  
어쩌면 나를 위해 뿌린 땀  
나를 위해 지새운 밤  
나를 위해 이밤도 찬비바람을 다 맞고있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력력히 증명해주고있는것  
만 같아

그 누가 만일  
나의 생활  
우리의 사회주의를 나에게 묻는다며는  
나는 말없이 심장우에 품고사는  
이 푸른 공민증을 펼쳐보여줄것이다!

## 첫딸의 이름을 올리고

소리없이 함박눈은 내리는데  
걷는다  
안해는 아기를 안고  
나는 첫 딸의 이름을 올린  
공민증을 품고

꽃보라인양 날아내리는 눈송이  
흰눈이 덮인 담넘어  
창가마다엔 웃음이 흐르는데  
아 어쩌면 문득 이런 생각이 가슴을 치는가  
울밑에 너투사가 두고 떠났다는  
그 어린애 생각이

살오른 애기불에 입맞추며  
안해는 자꾸만 걷는다  
똑같이 첫자식의 부모이건만  
나와 안해는 뜨거운 법앞으로 이렇게 걸어왔고  
그 투사는 백두산으로 걸어갔구나

부모란 무엇인고  
피를 부어준 자식이란 또 무엇이나  
포근히 젖품에 안긴 딸아  
너와 같은 피덩이를 두고 떠나던  
어머니 너투사의 모습이  
이 가슴에 격량의 파도를 일으키는구나

이 네거리에서  
내 다는 헤아릴길 없다만  
눈우에 가랑잎우에 얼며 피흘리며  
그분들이 헤쳐간 피붉은 자취가  
내 방금 숫접게만 올린  
여기 공민증 자식란으로 그려진것만 같아...

자식을 바쳐 목숨을 바쳐  
투사들이 열어온 피젖은 길이  
너와 나 웃으며 걸어온 이 길이 되었음을  
안해여 알며 걸자  
새기며 걸어가자

## 푸른 산천

리성식

### 1

북행열차가 간이역에 멈춰섰다.  
 몇명의 려객이 차에서 내렸다.  
 출장가방을 옆구리에 낀 중년녀인이 맨마감으로 표찍는곳을 나왔다. 닭알형의 얼굴가늑으로 매력있게 굵이친 머리카락이며 늘씬한 몸에 보기 좋게 차려입은 미색류행복으로 하여 세련미가 느껴지는 도시풍의 녀인이었다.

역마당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난 녀인은 저 멀리 산이 있는쪽으로 뻗어간 논머리 신작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는 경제림연구소 소장인 림향이였다.  
 얼마전 산림과학분원장으로 《서해벌방야산지대에서의 혼성림조성법》이라는 논문이 부송되여왔었다. 구체적인 지대별실정과 수십년간의 경험에 기초한 논문내용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실성이 매우 풍부하였다. 더우기 전문가들도 미처 관심을 못돌렸던 새로운 조림법을 여러 측면에서 도출해낸 혁신적인것으로 하여 대단한 파문을 일으켰다.

분원에서는 전문기관 책임일군인 림향에게 그 논문에 대한 심의와 실현방조를 위임하였다.

-토산지구 산림보호원 리명국-

토산에 그런 혼성림이 조성됐다는것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보다 더 놀란것은 리명국이라는 필자의 이름때문이었다. 그는 서른해전에 헤여진 대학동창생이었던것이다.

림향은 곧 현지에 내려갈것을 결심하였다.

현시기 전당, 전민이 나라의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때에 그런 중요하고도 혁신적인 일에 대하여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의견서나 보낼 수 없었거니와 산판에서 집필자의 사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도우면서 아울러 장차 산생될 자신의 박사논문 《나무밀 풀판조성과 경제적효과》도 시험해보고싶어서였다. ...

앞에서 한대의 마차가 달려왔다.

이 산- 저 산- 다니면서-어-  
 솔씨- 한주음- 얻어다가-아-

마부석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로인은 제흥에 겨워 석성한 목청을 느러지게 뽑아댄다.

공니리-닐리- 닐리나 닐리-닐리리

먼지가 서려도는 길가에 선채 역쪽으로 덜컹덜

경 멀어져가는 마차를 이속토록 바라보는 림향의 고운 눈에 야릇한 감회가 어렸다.

30여년전인 대학시절.

림향이네는 이곳 토산지구로 과목실습을 내려왔었다.

그때 산전막생활을 하던 장년의 토산관리원이 그들과 가깝게 지내며 《공니리》도 배워주었었다.

리명국이 그 홍타령을 제일 즐겨했다. 노래를 그닥 좋아하지 않던 그였으나 그 《공니리》만은 제 마음에 들었던지 석양비끼 시내가에서 오락회를 할 때면 흥에 겨워 닐리리를 부르며 령감들처럼 어깨춤까지 추어 유쾌한 웃음을 자아냈었다.

벼랑을 이룬 봉우리 하나가 나지막한 줄기를 거느리고 별판을 구불구불 헤엄치는듯한 토산은 이름그대로 흙투성이뿐이였었다. 허리 구부러진 소나무 몇그루가 산등에 훤히 서있었고 기슭에는 닳아빠진 비자루같은 개암포기들이 군데군데 널려있었다. 속층이 온통 석회성분이여서 식물들이 좀처럼 뿌리를 붙이지질 못했다. 풀과 나무가 없는 산이라 비가 조금만 와도 사태가 났으며 그 곳에서 흘러내린 흙밥이 골개울들과 강바닥을 메워 큰물이 범람하면서 술한 방죽이며 아까운 농경지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대학생들은 엄학근관리원을 도와 산에 나무모를 옮겨심었다. 한달나마 배운 지식을 살려가며 심고 가꾸고 했건만 한대의 모도 살아나지 못했다.

수년전에 기술자들이 와서 재배실험을 하다가 손 털고 갔다는 소리가 우연치 않았다.

림향은 마지막날 그 토산에 마음속의 표말을 박았다.

-사람들이여, 여기에 나무씨를 뿌리지 말라-

《허... 그래두 심고 또 심고 하느라면 살아남는 게 있겠지.》

엄학근관리원은 이러며 죽은 나무모들을 뽑고 거기다 다시 부식토를 넣고 나무모를 옮겨다.

욕망에만 사로잡혀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그가 더없이 측은했다. 그 측은한 동정을 안은채 대학으로 올라왔다. ...

림향은 두시간 싣히 걸어서야 토산마을에 이르렀다.

실습 내려왔을 때만 하여도 별가운데 여기저기 널려져있던 초가집들은 1형 문화주택들로 바뀌어 양지바른 언덕아래에 오בות이 모여앉아있었고 꽤기논들은 네모뎡뎡한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어 푸르른 벼바다속에 잠겨있었다.

그 마을 뒤에서부터 토산으로 오르는 기본골안이 시작된다.

마을길을 지나 산밑에 이르러 우를 올려다보던 림향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소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등으로 뒤덮여 울창해진 산은 어제날의 그 토산이 아니었던것이다.

(이렇게두 변할수 있는가?!)

《산불조심!》, 《산림애호》, 《모두다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이런 대문짝같은 글이 산등에 환하게 새겨앉혀진 골안입구에 이르러 림향은 더 나갈수 없었다.

《입산금지!》라고 쓴 판자쪽이 붙은 로송밑등에서 건너편 말뚝에로 차단봉이 드리워졌는데 그 앞에 남정들이며 녀인들 여럿이 모여서있었다.

오가는 말이며 표정들을 보니 누군가를 기다리는것 같았다.

림향이 차단대를 에돌아 지나치려고 하자 빈 배낭을 진 한 녀인이 급살을 떨었다.

《어그나, 입산수속을 해야지 못통과한다우.》

《입산수속이라니요?!》

림향은 의아하여 되물었다.

《산에 올라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는건데 우선 용무가 깨끗해야 되구 손칼이나 성냥 같은게 있을 땐 다 꺼내 말긴 담에야 승인을 해준다우. 낮이나 도끼같은걸 가지고 올랐다면 아예 혼쭐명이거나 꼭 빠지도록... 아참, 토산보호원이 나타났어요.》

녀인이 가리킨 옷쪽 산굽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들어왔다.

림향의 맥박은 견잡을수 없이 빨라지였다.

(토산산림보호원... 리명국이...)

상봉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학창시절에 대한 애뜻한 감회가 겹쳐들며 가슴이 들먹이였다. 허나 산림보호원의 모습이 시야에 뚜렷이 안겨지는 순간 림향은 긴장이 풀리며 실망 비슷한 감정을 느끼였다.

스물네댓살가량의 젊은이였던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이름같은 사람도 다 있구나. 하긴... 그 리명국이 여직 이곳에 있을리 없지.)

...림향의 입산용무를 들은 산림보호원청년은 너무 기뻐 한길이나 뛰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레 내려오리라구까진 생각못했됐는데요.》 그는 어서 자기 집엘 가자며 림향을 골안쪽으로 이끌었다.

론문의 우단점과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주고받으면서 짙광이, 분지같은 유용잡관림이 뻗뻗이 자라는 산비탈을 지날 때였다.

산림보호원이 문득 손을 들어 오른쪽 산줄기를 가리켰다.

《바로 여기가 그 혼성림구간입니다.》

골짜기에서 산마루까지 구획을 정하고 등판을 따라 대각선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키크는 나무와

키크지 못하는 나무, 곧게 자라는 나무와 떨거져 퍼지는 나무 그리고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경사각도에 따라 때로는 종류별로 한헝씩 엮바꾸어 심기도 하고 때로는 섞어심기도 했는데 공기통과며 햇빛스밈이 제대로 되어 식물생장에 필요한 빛합성에도 지장이 없었고 중요하게는 지형에 따르는 바람막이와 두텁게 깔린 락엽 그리고 무성한 잎으로 그 어떤 폭우도 잠재워 자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다. 나무자체도 그저 막나무가 아니라 잣, 호두, 가래 같은 기름열매나무들과 밤, 도토리, 돌배 같은 식용열매나무 그리고 소나무, 이깔나무, 피나무, 엄나무 같은 섬유용 나무들이였다.

전문가적감각으로 혼성림의 현실성과 경제적의의를 절실히 느낄수록 놀라움만 커갈뿐이였다.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였다.

림향은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정말 훌륭해요! 젊은 동무가 어찌면...》

그러자 산림보호원청년은 멋적은듯 뒤머리를 긁적거렸다.

《사실 이건 저의 아버지가 마련해놓은겁니다.》

《아버지가요?!》

나직이 되뇌이는 림향의 눈앞엔 대학실습때의 그 엄학근관리원과 토산으로 가겠다며 떠나간 리명국의 모습이 엮바뀌어 떠올랐다.

더 알고싶어 아버지에게 대해 묻자 청년은 왜서인지 대답을 피하며 화제를 돌리는것이였다.

림향은 자연히 생각이 깊어졌다. 황금이삭 주렁진 곡식밭은 한두해사이에 마련할수 있어도 산림이란 그렇질 않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성실한 노력만이 이런 유용경제림을 조성하고 울창한 숲을 이룩해놓을수 있는것이다.

땀쫙, 땀쫙

땀뿜, 땀쫙쫙

림향의 머리우론 콩새, 알락할미새, 물쥐새 등 이름모를 희귀한 새들이 날아며 토산에 깃든 사연을 속살거리듯 끝없이 지저귀였다.

## 2

골안막바지의 양지쪽 공지에는 그전날에 있던 그 산전막이 아니라 빨간 기와를 올리고 그 랑귀에다 ㄷ자로 창고와 사랑방까지 격있게 붙여지는 남향밭이 살림집이 산속의 적막감을 밀어내며 들어앉아있었다. 살림집의 앞과 랑옆의 삼면으로 빙둘러가면서 이깔, 잣 등 여러 종류의 나무모밭이 수백평 실히 넘게 펼쳐졌는데 이랑마다 북을 듬뿍하니 주고 김 한대 없이 가꾸어진게 터밭처럼 기름지고 말끔하였다.

이랑가운데서 나이지숙한 한 녀인이 나무모에 무슨 비료같은것을 주고있었다.

노상 벉글거리면서 활개쳐 걷던 산림보호원청년은 녀인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 평양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론문때문에...》

《평양에서?! 원 이런...》

너인은 호미며 다래끼를 내려놓고 발머리로 종중걸음쳐 나왔다. 보통키의 아련하게 생긴 녀자였다.

《수고합니다.》

《수고야 무슨... 이 험한델 다... 애, 어서 아궁에 불을 지펴라.》

림향은 너인의 손에 끌리다싶이하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알른거리는 노란색의 장판지며 산뜻한 문양벽지를 바른 방안은 아담하면서도 정갈하였다.

먼길을 오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며 림향을 아래목에 눌러앉힌 너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다. 밥을 짓는지 그릇 다루는 소리도 나고 마른 나무가지 꺾는 소리도 들려왔다.

점차 안정감이 깃들고 조심성이 사라지자 림향은 앉은 자세를 편히 하며 쌍미달이문이 활짝 열려진채로 있는 옷방에로 눈길을 옮겼다. 갓춤새며 정돈상태가 류별나게 안겨왔다. 문턱너머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벽에는 《토산전망도》라는 제목 밑에 혼성림이 우거지고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산뜻 만발한 숲속에서 노니는 서정적인 그림이 명승지의 안내도처럼 큼직하니 걸려져있었고 그 옆의 안락벽에는 기술도서들로 가득찬 책장이 듬직하니 놓여있었다. 정지문이 달린 이쪽벽에는 각이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유리실협그릇들이 어떤 알지 못할 물질을 담은채로 보관되어있었고 그 옆의 걸개에는 무슨 씨앗주머니같은것들이 데롱데롱 매달려있었다.

풀색갈의 깨끗한 산림보호원장복이 단정히 걸려있는 출입문쪽을 일별하던 림향의 눈가에 야릇한 미소가 흘러지났다.

호랑이를 그린 족자를 보았던것이다.

절벽을 힘있게 짙은 탄탄한 다리, 바위굽을 그려친 날카로운 발톱, 용맹이 솟음치는 늘씬한 허리, 불이 황황 이는듯한 두눈...

그것을 더듬는 림향의 가슴속에서는 애뜻한 추억의 감정이 잔물결치였다.

...대학에서 진행된 체육경기때였다.

명국은 학급을 대표하여 사람찾기종목에 출전하였다. 출발선을 떠나 맨앞에서 달리던 그는 지정된 장소의 글썽지를 집어 읽더니 응원자들에 의해 뛰어왔다. 이 사람 저 사람 둘러살피던 명국은 림향이한테로 다가와 손목을 덥석 잡아끌었다.

림향은 그가 집은 쪽지에 《림향학생과 함께 달릴것》이라는 글이 씌여있는줄 알고 그를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선참으로 결승테프를 끊고 상품까지 무겁게 받아안고 돌아섰을 때에야 쪽지를 보았다.

-최우등생과 함께 달릴것-

림향은 일순간 어리둥절했다. 사실 그자리에는 실력이 엇비슷한 녀학생이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명국은 자기를 주저없이 선택해주었던것이다.

《무례하게 굴어 안됐소!》

명국은 어쨌게 랑해를 구하며 자기 손자리가 뻔장게 난 림향의 말근말근한 손목을 넘겨다보았다.

그 일이 그만 동무들한테 언질로 잡혔다.

《아주 멋있는 장면이었어. 수재형의 총각이 인물 곱고 노래 잘하는 처녀를 끌고 달리던것은.》

《림향동문 필연코 명국동무의 이끌림을 받아 인생의 결승선을 빛나게 장식할거네.》

즐거운 룡담이었다. 아니, 실지로 부러워들 했었다.

그들 두사람은 대학적으로 유명썩한 최우등생 쌍두마차였었다. 기억력이 비상한 림향이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목과 사회과목에서 뛰어났다면 명국은 다방면적인 탐독과 나래치는 연상을 지닌 자연과목에서의 특출한 수재였다.

그날 탄 상품구레미속에는 열권의 책과 호랑이를 그린 족자가 들어있었다.

사이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네모소반에 푸짐한 음식을 차려든 너인이 들어왔다.

《시장할텐데 어서 식사를 해요.》

《저때문에 또 수고만... 정말 안됐어요.》

《안되긴요. 우리 일을 도와주려 우야 찾아오신 선생님인데.》

너인의 친절에 감심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던 림향은 아까부터 입안에서 맴돌던 화제를 꺼냈다.

《참, 집의 세대준...》

《...》

너인은 한숨만 나직이 내그었다. 감실한 얼굴에 상심의 그늘이 비끼었다.

림향은 남의 가정사에 깊이 참견하는것 같아 더 묻지 못했다. 수저를 놀리는속에서도 그의 생각은 토산을 위해 많은 일을 함직한 이 집 세대주한테 가있었다.

기름기 찰찰 도는 조참쌀밥에 도라지, 고사리, 버섯 등 산채볶음으로 특색있게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를 흐뭇이 지켜보던 너인이 무슨 생각이 들어선지 소리 죽여가며 웃었다.

《선생을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저를요?! 절 어디서 봤겠어요.》

림향은 이러며 재죽이 웃었다. 세상에 이름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듯이 생김 비슷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진을 보니... 대학때...》

너인은 자기가 실례함을 느꼈던지 말꼬리를 감추며 얼굴을 붉혔다.

(?!)

식사가 끝난후 너인은 누워 려독을 풀라며 아

래목에다 자리를 펴주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간 누워있던 림향은 무료감과 호기심을 이길수 없어 일어나 선반위에 얹혀있는 산림보호원내 가족사진첩을 내리워 펼쳤다. 첫장에는 몇해전에 찍은듯한 행복넘친 모습을 담은 가족사진이 붙어있었다. 방금전의 그 아련한 녀인, 산림보호원 청년, 반백의 노인, 세대주인 중년남자... 그 모습에 이른 림향의 눈길이 주춤 굳어졌다.

《아버지의 청춘시절》이라는 표제하에 큼직하니 붙어있는 사진-대학생복차림의 젊은이! 그는 틀림없는 추억속의 그 리명국이였다.

평양을 떠나올 때 명국이와의 상봉을 은근히 기대했다가 현지에 당도하여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람에 얼마나 서운했었던가. 그런 실망을 겪고난 뒤여서 그런지 비록 사진일지언정 반갑기 그지 없었다.

명국은 히무죽이 웃으며 림향을 올려다본다.

《림향동무가 왔구만! 이게 얼마만이요!》

(정말 놀랍군요. 명국동무!)

《허허, 나야 원래 산을 좋아하는 인간이 아니요.》

그랬다. 명국은 산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했었다. 하여 결국엔 산사람이 되고말았고...

...그날 사람찾기경기에서 상품으로 탄 열권의 노트를 림향에게 통채로 안겨준 명국은 그 호랑이 족자만 집어들었다.

림향은 하도 많은 그림중에서 하필이면 그런 맹수그림을 좋아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명국은 호랑이가 씩씩하고 웅맹해서 마음에 든다고, 옛적부터 집안에 온갖 잡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범을 그려붙였었는데 자기도 잡사상에 물젖지 않기 위해 범그림을 아니, 산범을 늘 곁에 두고 살았다고 했다.

《그럼 동문 산에 들어가 살아야겠군요. 범이란 짐승은 울창한 수림속에만 있으니까요.》

《웁소. 난 산하고 살고싶소. 산하고 결혼할테요. 호랑인 나의 중매군이요.》

《저런 댜 꼭 뭔가 동화세계에서 헤매는것 같디니까.》

림향이 썰쭉해져 눈을 껌게 흘기자 명국은 앞질러 몸을 빼며 놀려대었다.

동근달 뚝 따서 바퀴 만들고  
메뚜기 잡아다 말을 떼우고  
진달래꽃 따다가 치마 입혀서  
향이동무 시집갈 때 실어다줄래요

《실어다 주-을 래-요-오...》 하고 꼬리를 길다랗게 늘어대는 명국을 따라잡은 림향은 그의 넉적한 잔등을 퐁퐁 두들겨댔다.

그밤은 얼마나 아름답고 짧은 밤이었던가! 두 청춘남녀는 토끼들이 금방아를 찧으며 산다는 정

만같은 보름달을 황홀히 바라보며 그 달속의 계수나무를 찍어다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지어볼 천진란만한 공상에 잠기기도 했고 졸업후 자기들의 앞길에 가없이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다.

했건만 그후의 생활은 어떻게 흘러갔던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항용 그러하듯 림향이네도 배치사업이 시작되자 저으기 긴장된 날을 보냈다. 모여앉으면 배치와 관련된 소리뿐이었다.

상급기관들에서 대학으로 전화가 뻗질나게 걸려 왔고 학부형들 역시 자식들의 전문문제때문에 본인못지 않게 신경을 썼다.

그런 분위기속에서도 명국은 썬평 좋게 지냈다. 강의가 끝나면 기숙사에서 책을 보며 한가로이 누워있었고 일요일에는 영화관이나 뽀트장을 찾아다녔다.

림향이 대학도서관앞에서 책을 한아름 안고가는 리명국을 만났다.

《난 토산으로 내려가겠소.》

《왜요?》

《왜라니, 그곳에 가 살면서 나무도 심고 산도 갈구면서...》

《꽤나 톱담을 즐기는군요. 언젠 산하고 결혼하겠다 하더니. 톱담 할게 따로 있지 아무려면...》

《톱담이 아니요. 난 진심을 말하오.》

림향은 비로소 그가 톱담이나 하려 찾아오지 않았다는걸 깨달았다. 명국의 아까운 인격과 뛰어난 두뇌가 촌구석에 묻혀버릴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기막히기 그지없었다.

림향이 그러면 안된다고 황망히 설복하자 명국은 오히려 제편에서 의아해하였다.

《아니, 산림학을 전공한 사람이 산에 들어가 산을 가꾸겠다는데 무슨 죽으리나 가는것처럼 그렇게 질색하는거요?》

《어쩌면 그렇게두 단순해요? 시작이 단순한 사람들이 결말은 항상 복잡해지더군요.》

《물론 내가 바라는 생활이 어떤것인가를 잘 아오. 하지만 난... 지금도 죽은 나무모를 뽑아들고 가슴아파 눈물짓던 토산관리원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소. 그때 동문 이렇게 말했었지. <이것도 어디 산이예요, 구릉지대지.> 아니, 그건 분명 산이었소. 우리 나라 지도를 보니 그 토산도 푸른 지맥으로 표시되어있더구만.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우는 내 나라에 그런 산 아닌 산이 있다는건 정말... 석회암층인 그 벌거숭이 토산이 이 시각도 풍부한 과학지식과 젊은 힘을 지닌 나라를 부르는것만 같소.》

명국의 소힘줄같은 고집에 림향은 실망하고말았다. 산골농촌에서 나서자란 사람이니 역시 산골생활에로 돌아가려는구나. 평시에 산이요 범이요 하며 입버릇처럼 외운것도 다 자라온 타성이



있었어. ...이런 때늦은 느낌을 누르고 다시 한번 더 그를 리해시켰다.

《소나무까지도 뿌리를 붙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 무성한 토산에 동무가 꽤 뿌리를 내릴것 같아요? 인생도 식물과 같아 일단 옮겨앉았다가 뿌리를 붙이지 못해 시들기 시작하면 건잡기 힘든 법이에요.》

《내 마음은 벌써 그곳에 뿌리를 내린지 오래오. 사람이 식물과 다른거야 마음의 뿌리가 있는거지.》

명국은 끝내 자기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림향은 중앙기관으로, 명국은 비군산림경영소로...

그 즐겁지 못한 작별은 두사람의 가슴에서 쓸쓸한 감정만을 자아내었다.

북행렬차에 몸을 싣는 명국을 바라주며 림향은 속으로 뇌었다.

《동문 후회할 때가 있을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명국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림향은 혹시나 하여 은근히 기다렸다. 했건만 무심한 편지만이 날아왔을뿐이었다.

-드디어 뿌리붙임을 하였음. 푸른 토산을 기다릴것-

꽃피는 봄날처럼 화창하고 희망차던 그 우정도 그리고 수재형으로 전교의 관심을 끌던 명국의 경쟁한 명예도 세월의 락엽에 묻히고말았다. 그 락엽이 쌓인곳에는 망각의 이끼만이 푸르틱틱 돋아났을뿐이다.

생활의 어떤 계기때마다 한갓 이름없는 산골사람이 패버린 명국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림향은 한 인간의 뛰어난 두뇌가 필요없이 썩는것이 아까웠고 뭔가 손에 잡힐듯말듯하던 귀한것을 놓쳐버린듯 못내 서운해하였다. 끝끝한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 그리고 일정한 사회적직책을 지닌 일군으로 성장한 오늘날에 와서 림향의 가슴속에 남은 명국에 대한 추억은 그리 아름다운 것이 못되었다.

《변변치 못한 사진들뿐이니 뭐 별루 불만한게 없을겁니다.》

언제 들어섰는지 산림보호원청년이 림향을 굽어 보고있었다.

림향은 열적은 미소를 지었다.

《주인의 허락없이 봐서 미안해요.》

청년은 히죽이 웃더니 작업복을 벗고 자리에 앉았다. 키가 늘씬하고 얼굴이 둥글넓적한게 신통히도 대학때의 그 리명국을 방불케 했다.

림향은 무역계통에서 활약하는 자기의 둘째아들과 동년생인듯한 그를 대견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어떤 학교를 다녔어요?》

《산림전문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그닥 아는건 없습니다.》

《산림보호원 하기가 험치 않지요? 그런데 아버지 왜 안보이는가요? 혹시 어데...》

명국을 어서 만나 그지간의 회포를 나누고싶은 림향이였다.

헌데 청년의 대답이 신통칠 않았다.

《저... 먼델 ... 좀...》

멀리서 늙은이의 타령곡이 들려왔다.

일만초목 푸르르고 새와 짐승 모여든다아-  
어하-헤어- 닐리리 흥흥-닐리리-

《공니리》 타령이 가까와오더니 집앞에 마차 들어서는 소리가 났다.

산림보호원청년은 서둘러 일어나 바깥으로 나갔다.

《수고했어요. 할아버지!》

《음, 팬찮다. 오늘은 일이 잘돼. 효능높은 미량비료까지 댓가마니 얻어왔다. 뭐, 평양에서?! 이런, 경사라구야.》

활짝 열려진 문가에 로인이 나타났다. 읍에서 토산리로 오는 도중 어긴 마차군로인이였다.

얼마후에야 림향은 벅글썩 웃는 로인의 얼굴에서 30여년전의 그 엄학근관리원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 3

은빛해살이 나무가지들사이로 실실이 늘어져 굽니는 한낮.

림향은 정녀(명국의 안해)의 안내를 받으며 토산을 돌아보고있었다.

정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나무들의 모양과 생육상태를 관찰하기도 하면서 전날의 그 혼성림 통신을 넘어서던 림향은 저도모르게 야!... 탄성을 질렀다.

백도라지발이 눈뿌리 모자라도록 펼쳐졌던것이다. 은백색, 연보라색의 탐스런 꽃송이들이 다투어 피어나 산속의 풍경을 아름답게 채색하며 볼수록 황홀감을 금할수 없게 한다.

부지중 동심이 살아난 그는 그 청초한 꽃을 꺾어 불살에 대고 살살 비비다가는 통통 살찐 산삼같은 뿌리를 뽑아 잘근잘근 씹으면서 향긋한 냄새를 맡기도 하였다. 잊을수 없는 학창시절의 벗이 해빛을 안고 온것도 모르고 어덴가 가있을 명국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마음이 무겁던 림향은 토산의 번창함과 신비함에 끌려들어 자기를 잊었다. 도라지발을 지나니 이번엔 부채살같은 잎을 활짝 퍼들고 설렁이는 고사리발이 무연히 펼쳐졌다. 고사리향내에 취하여 등판을 지나 벽계수 폭포치는 산중에 들어선것도 몰랐다. 옛가락처럼 뱅뱅 꼬이면서 울리썬은 다래덩굴이며 푸르고 붉은 열매들인 주렁진 머루, 오미자 덤불밑으로는 더덕, 락지썩, 마타리, 부채마, 단삼 등 여러종

의 약용식물들이 한벌 덮이다싶이 자라고있었다. 림향은 어릴적 촌에 있는 외할머니한테서 들은 《돌아보니 도라지, 쥐여보니 참취나물, 말아보니 마타리, 먹어보니 멸구나물...》 하는 나물타령이 떠올라 혼자 소리없이 웃었다.

산을 내리자고 아래를 굽어보면 붉고 흰 갖가지 모양의 산꽃들이 현훈증을 일으키고 하늘을 보자고 고개를 젖히면 주렁져 이마를 스치는 산과실송이들이 군침을 자아낸다. 어디서 피아노라는 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아 귀를 기울이면 알락달락 고운 옷을 차려입은 이름 모를 산새들이 춤추듯 날아며며 지저귀는 소리였고 덤불속에서 누군가 숨어서 나무아지를 흔들어 놀려대는것 같았다. 눈꼬리를 세우고 살피니 살진 노루들이 칙이파리를 남남남 맛나게 뜯어먹고있었다.

《여기가 나무밑 풀판조성구역이예요.》

정너의 말소리가 울려서야 림향은 자감상태에서 헤어났다. 어느새 너머편 풀안에 내려서고있었다.

정너는 그 풀안이 이웃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 산을 한바퀴 빙 돌아 토산마을로 들어서는 통로라고 말했다. 그 다음 산자드락의 나무밑 풀들을 가리키면서 몇해전부터 자기 남편이 뿌린 집집승먹이용 풀들이라는것을 알려주었다.

풀바닥길에서 기슭중턱까지 좁고 길다랗게 산줄기를 따라가며 잡초나 두들기, 바위 같은것들을 모조리 추어내고 왕사라구, 아카시아, 단나리 등 영양가높은 식물들을 심었는데 그곳에선 염소때가 흐르고있었다. 흥에 겨운 방목공처녀들의 노래소리가 산판 이곳저곳에서 울렸다. 매해해-음머- 배부른 집집승들의 영각소리가 풀안에 메아리친다.

림향은 문득 자신이 준비하고있는 《나무밑 풀판조성과 경제적효과》에 생각이 미쳤다. 전문가인 자기가 책상머리에서 그걸 구상하고 론리로 무르익힐 때 여기선 벌써 현실로 구현해놓은것이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아득한 옛 시절 《여기는 산이 아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거든 이곳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조아박았던 그 표말이 산속 어데선가 튀어나와 자기의 진면모를 발가놓을것만 같았다. 번성해진 토산에 깃든 숨은 노력이 헤아려질수록 명국에 대한 인식이 저도 모르게 달라지였다.

림향은 정너쪽에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왜 이 좋은 사실을 널리 소개할 생각을 안했어요? 훌륭한 박사논문감인데.》

《저의 남편이 그런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인 글장난이나 말공부 같은건 영 질색이였답니다. 오직 헌신적인 노력밖에 몰랐어요. 헌데 우린 최근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국토관리사업과 풀판조성운동이 광범하게 벌어지는 이때 토산의 경험과

방법이 여기와 토질이나 지형이 비슷한 중간야산지대들에 도입된다면 국가적견지에서 리익이 클게 아닌가요.》

그러니 론문을 과학적으로 잘 다듬어 성사시켜 달라고 정너는 절절히 말그루를 박았다.

그는 산을 내리기 바쁘게 장농안에서 참고로 리용하라면서 표지가 닳아빠지고 손때가 짙은 두툽한 노트 몇권을 꺼내놓았다. 자기 남편이 쓴 책이라고 했다.

《세대주의 승인없이 어떻게...》

림향이 주저하자 정너는 웃으며 안심시켰다.

《그인... 기뻐할거예요. 론문이 한시빨리 완성되어 발표되길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니깐요.》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잠겨 서슴이던 림향은 전문기관 일꾼으로서의 의무감과 동창생의 수고를 빛내고싶은 마음에 밀려 명국의 옛 자취가 깃들어있는 학습장들을 받아 펼치였다.

부피두터운 노트들의 첫 페이지에는 서정시 《나의 조국》이 또박또박 발취되어 있었다.

## 4

...

XX년 0월 0일

토산으로 내려온 이해 봄에 심은 3천모의 나무모중에서 단 한개의 모가 살아남았다. 구덩이안의 뿌리흙을 분석한 결과 부식토속에 비물질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석회성분과 반응하여 뿌리층의 흙 성분을 변화시켰었다. 신심과 희망이 넘쳐난다. 비물질! 200리 떨어진 풍덕광산에서 버력으로 나오는 그걸 내가 독점하리라. 거리가 멀고 운반수단이 없는게 안타깝다. 나무모가 뿌리를 내렸다고 어쩔줄을 몰라하는 엄학관관리원한테는 아직 비물질 소리를 안했다.

XX년 0월 0일

예로부터 산과 물을 다스리는것이 천하지대본이라 일러왔다고 한다. 어제 내린 큰비로 술한 사태가 나고 개울이며 강이 범람하여 아까운 농토를 못쓰게 만들었다. 토산에 풀과 나무가 없는 탓이였다. 국토관리중에서도 제일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큰힘을 넣어야 할게 산이라는걸 다시금 절감하였다. 마을에서 하루에 두집씩 겨오던 부식퇴비는 네번씩 겨날랐더니 허리가 띠끔띠끔 저리고 오룩이 빠근했다.

...

림향의 눈앞으론 거름지계를 무겁게 진 명국이 가 걸어가고있다. 얼굴에선 비지땀이 뚝뚝 떨어져 흐른다. 림향은 시까스르듯 물었다. 《후회되지않아요? 그토록 양양하던 명예를 퇴비더미속에 묻은게.》 《아니, 후회되지 않소. 난 기어코 저산에 씨불임을 성사시키고 표말을 박을테요. <



사람들이여, 여기는 산이다! 나무씨를 뿌리라>하고...》명국은 멈춤없이 토산을 향해 힘있게 걸어간다. 퇴비집에 묻힌 그 모습이 어떤 영웅의 군상처럼 뚜렷이 확대되며 림향의 시야를 가득 메운다.

××년 0월 0일

개미가 줄을 지어 이동하거나 잠자리떼가 낮추르면 틀림없이 비가 왔다. 북두칠성이 모양새가 달라지면 가물이 들었다. 개구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해 겨울은 강추위가 닥쳐와 애어린 나무들이 얼어죽었다. 버짙을 감싸준것만이 살았다.

××년 0월 0일

나이트 소나무와 잣나무를 옮겨심을 때 비물질, 톱밥, 알뜰을 섞어 뿌리에 주었더니 죽지 않았다. 세월을 앞당기는 좋은 방법이였다. 오늘까지 이빨나무모 2만그루와 호두나무모 천그루를 심었다. 침엽수를 먼저 심고 그것들이 일정하니 큰 다음 사이마다 활엽수를 심었더니 합성에 지장이 없었다. 앞으로 평양뽕뽕라며 닥나무, 사시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이다.

호두나무, 쪽가래나무, 잣나무, 기름밤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으리라. 령토의 80프로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는 산만 잘 리용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것이다. 그 부흥의 기초에 밑거름이 되리라!

××년 0월 0일

리당비서가 마차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운수기재로 쓰라며 말과 수레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이제 날개가 생긴셈이다. 우리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그날 함께 부식토를 저울리던 리당비서는 나한테 어떻게 되어 토산으로 내려왔는가고 물었다. 나는 두가지로 대답했다. 첫째는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우리 나라에 토산과 같은 햇빛과 버림받는 산이 있는게 가슴이 아팠다고 했고 둘째로는 죽은 나무모를 뽑아들고 울던 엄학근관리원의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년 0월 0일

토산에 온지도 어느덧 10년세월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참으로 토산이야말로 눈에 알리게 달라지였다. 키넘게 자란 나무들이 산을 덮었다. 새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비로소 고생한 보람이 느껴진다.

어슬넙에 앞마을 박광택이 몰래 토산에 올라와 삽자루감을 찍어갔다. 한창 자라던 이빨나무가 밀등이 허영게 잘린걸 보니 참을수가 없었다. 나는 당장 광택을 찾아가 나무를 회수했다. 그러자

그는 동네가 들썩하게 고아됐다.

《그 산이 네 산이냐? 공동산이지. 삽자루 한대가 뭐길래 그렇게 아득바득 따라와 받아내니, 사람이 융통성없이 깍쟁이노릇을 하다간 오래 못사니라.》

돌아오며 나는 속으로 그한테 대답했다.

《광택아바이, 이제 이십년만 참으시우. 내 그때 가선 삽자루 한대가 아니라 거목의 집재목들을 한차 가득 올리리라.》

림향은 그 광택이란 인간이 민망스러웠다. 제가 토산에 나무모 한뼉 심길 했나, 부식토 한줌을 저울리길 했나? 그리고도 오히려 제편에서... 다음 순간 림향은 자신도 그 박광택과 다를바 없다는 느낌에 스스로 당황해졌다.

××년 0월 0일

참으로 오래만에 걸어보는 수도의 거리였다. 전차의 경쾌한 정적소리며 인도를 활보하는 시민들의 웃음넘친 얼굴 그리고 교예극장 안내판그림...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다 유정했다. 그지간 평양도 많은것이 달라지였다. 수만세대의 광복거리가 새로 일떠섰고 《만경대-송신》행 궤도전차가 개통되였다. 갑문이 완공된 대동강으론 멧쟁이 관광객들이 떠다녔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모교앞을 지나느라니 별스레 감정이 이상해지였다.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성장한 동창생 김동무를 우연히 정류소에서 만났다. 그한테서 알고 싶던 동창생들의 소식을 들었다. 모두 평장한 발전상태에 있었다. 림향은 본인의 무슨 행정사업을 본다고 했다. 요전날 김동무가 외교부일군인 남편과 함께 걷는 림향을 만났었는데 그는 내 소리를 하다가 아까운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 산속에 박혀 락엽처럼 썩는다고 서글피 뇌였다는것이였다.

림향은 속이 찢리였다. 토산의 산등들과 골짜기마다에 습배인 명국의 팍팍새를 맡고난 지금, 내 나라의 부강번영에 바쳐진 그의 숨은 노력을 느끼고난 이 시각에는 그때의 자신이 경망하게 여겨지였다.

이날 시간이 있기에 대극장관람을 하였다. 중앙기관 예술소조원들의 소품공연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었다.

산림과학분원을 대표하여 무대에 나선 한 녀성을 보는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내었다. 그는 오래전에 헤어진 그 림향이었던것이다. 연분홍치마저고리를 입고 현대식 셋트머리단장을 한 림향은 처녀때보다 더 우아해졌고 세련미와 원숙감이 풍겼다.

그는 청맑은 고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여기 내가 태어났고 자라나는곳  
...

그 노래의 여운은 오래도록 나의 귀가에서 메아리쳤다.

공연이 끝난후 림향은 꽃다발속에 묻히여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극장을 떠나갔다. 그 광경을 보는 나도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그를 만나 성파도 축하해주고 그지간의 회포도 나누고싶었다. 나의 잊을수 없는 동창생을 찾아 사무실로 가던 나는 문득 서버렸다. 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것이다. 오늘 X행렬차를 놓치면 하루 더 목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시바삐 00 용역소독처리를 해야 될 토산의 나무모씨앗들이 변질될수 있었다. 상봉에 대한 욕망을 애써 누르고 산림분원앞을 지나쳤다. 하긴 후날 토산에 숲이 무성해진 다음 그앞에 뿔뿔이 나서는것도 좋을것이다.

목적했던 과학도서들과 화학약재를 배낭 가득 얻어메고 열차에 올라 평양을 떠나며 나는 림향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었다. 림향동무, 숲을 노래하는 새가 되어 내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소리높이 자랑해주오. 내 그 숲을 살찌우는 한줌 락엽이 될게.

...

림향은 마음이 아릿해져 더 읽지 못했다. 때는 은 자책이 밀물쳐들었다. 이제라도 당장 명국이와 마주앉아 지나간 젊은 시절 자기들이 지냈던 리상을 재평가하고 30여년 기나긴 나날 두사람이 걸은 길을 새로운 안목으로 돌이켜보고싶었다. 그리고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나무밑 풀판조성문제와 론문내용을 놓고 대학때처럼 론쟁도 열렬히 할겸 그를 도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 5

말복이 지난지 엇그제인데 벌써 밤이 되니 선기가 돌았다.

어둠과 찬기운이 무겁게 드리운 골안 한가운데서 모닥불이 타오르고있었다.

림향은 불가까이로 다가가다가 멈칫 서버렸다. 모닥불결에는 조립식으로 지은 자그마한 초막이 있는데 바로 그 초막기둥에 몸을 엮비스듬히 기대인 정녀가 쪽잠에 들어있었던것이다.

손에는 땀배인 삽자루가 쥐여진채로 있었다. 모닥불 저편의 나무모발머리엔 무슨 부싯토같은 것이 무두룩이 쌓여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나무모발 경비를 보면서 밤작업도 하는 모양이었다.

불빛에 드러난 정녀의 얼굴엔 피로가 완연했다.

처녀때는 무척 이뻐서 그 가름한 얼굴은 벌써 잔주름이 지고 봄살은 알리게 내렸는데 거기다 살갗까지 터서 선한살의 그 나이에 비해 퍼그나 결늪어보였다.

짜릿한 련민의 정이 림향의 마음을 적시였다.

스러져가는 불무지에 나무가치를 집어넣는데 인기척을 느낀 정녀가 깨어났다.

림향을 알아본 그는 몸가짐을 바로하며 반색했다.

《왜 쉬지 않고 나왔어요. 어서 와 불을 쪼여요.》

림향은 그가 권하는 자리에 사양않고 가앉았다.

《이런 한지에서 쪽잠까지 드는걸 보니 몹시 지친것 같아요. 그러다 앓아눕기라도 하면 어찌겠어요.》

《일없어요. 이제 이런데 습관된걸요 뭐.》

정녀는 혼연히 대꾸하며 열이 이글거리는 알불을 림향이쪽으로 밀어놓았다. 애뜻한 눈빛으로 림향을 마주보았다.

《저... 림향선생이지요?》

(?!...)

《언젠가 우리 성림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더군요. 공부 잘하고 노래 잘 부르던 대학동창생이라고요.》

(!!...)

림향의 가슴속에선 뜨거운것이 몽클 솟음쳤다. 허물도 없이 따뜻이 생각해주고 믿어주는 그들 부부가 고마웠다. 그럴수록 낮이 뜨거워 마주볼수가 없었다.

림향은 나무꼬챙이로 불무지만 헤집다가 이윽해서야 나직이 뇌였다.

《어디 먼곳에 출장간 모양이지요?》

그러자 정녀는 한숨만 쓸쓸이 내그었다. 한동안의 침묵끝에야 힘들게 말을 이었다.

《그인... 병원생활을... 자리에서 일어날수 없는 몸이랍니다.》

《네?!》

림향은 깜짝 놀랐다. 너무도 천만뜻밖의 일이 었던것이다. 명국의 소식을 물을 때마다 별로 이상하게 말꼬리를 흐리고 대답을 피하는 그의 안해와 아들의 언행에서 심상치 않은 감촉을 받긴 했으나 차마 그렇게까진 생각지 않았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던 자연의 모든 움직임은 정지되었다. 숨이 막혀올라 말이 다 안나갔다.

《그가... 그가 그렇게 되다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상실감에 휘잡겨 허둥이는 그의 눈굽에선 축축한것이 내뿜혀 주르르 흘렀다.

모닥불주위엔 정적이 깃들었다.

풀개울쪽에서 도간도간 들려오는 풀벌레소리만이 조심스레 고요를 흔들뿐이다.

나무가치를 다 태워버린 불길은 기운을 잃고

스러져갔다.

접동-저 업동- 호오라비 접동-

산속 어데선가 밤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슬픔에 젖은 가슴들을 흔들며 울려왔다.

먼 옛날 어떤 한 재사가 이국땅에 흘러가 원통하게 죽었는데 그의 녀은 초혼조(소쩍새)가 되어 고향뒤산에 와앉아 밤이면 불여귀(돌아가지 못하니라)- 불여귀- 하고 운다고 한다.

정녀의 담담한 음성이 정적을 깨치었다.

《그인 정말이지 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림향을 보며 수줍게 웃더니 지나간 생활의 몇토막을 회고하였다.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네 집에서 었혀살던 정녀는 나이 들자 산속에서 홀아비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토산으로 옮겨왔다.

그날 지름길을 타고 오르던 정녀는 벼랑아래에 쓰러져있는 한 낫선 청년을 발견하였다. 그는 림지조사를 위해 매바위에 올라갔다가 굴러떨어진 명국이였다. 청년은 의식이 없는속에서도 《도면... 도면...》 하고 찾았다. 정녀는 수풀속에 구겨박힌 조사도면을 얻어다주고 황망히 구급대책을 세웠다.

《정말 참... 어서 집으로 가자요.》

청녀는 자기가 사는 집을 가리켰다. 청년을 부축하며 그의 집에 이르니 다름아닌 자기 아버지가 거처하는 두방짜리 산전막이였다. 청년은 옷방에서 기숙하고있었다.

새로 배치되었은 산림보호원 리명국, 그는 오직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같았다. 밥술을 놓기 바쁘게 삼과 지계를 메고 산으로 올라고 밤늦게 산에서 내려와 찬밥을 먹고는 자정이 넘도록 책을 뒤적이다가 닭이 해를 칠 때에야 얼마간 눈을 붙이곤했다.

청녀는 옷방에서, 처녀는 아래방에서... 이런 생활이 지속됐건만 한창시절의 활달성은 고사하고 이성의 감정마저 망각했는지 따듯한 말 한마디 문턱을 넘어보지 못했다. 청년은 하루와 같이 끼니를 끓여 받쳐주는 정녀한테 한번 히죽이 웃어보이는것으로써 사례를 표하곤하였다.

정녀는 그가 병여리가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이듬해 봄철의 어느날.

산림보호원은 또 점심을 건느려는지 정오가 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정녀는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 그의 점심밥을 싸들고 산관으로 올라갔다. 청년은 작년 가을에 심은 잣나무모양에 앉아있었다. 연록색의 새 손이 돋으며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긋나긋한 나무모를 어루머드는 그의 서글서글한 눈에선 물기가 번들거렸다.

《정녀, 이것 보오- 새 손이 돋는걸... 비물질을

준것은 모두 살았소. 오천모가 다. 하하!》

산림보호원청녀는 자기를 잊고 떠들었다. 너무 좋아 정녀의 손을 덥석 잡아쥐고 흔들었다. 이 세상 온갖 보물을 다 얻은듯 희열의 미소가 만면에 가득 흘러넘쳤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의 좁안에 쥐여진 처녀의 고운 손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을 붉혔다.

(이런 사람을 목석이라고 내가...)

정녀는 애뜻한 눈으로 청년의 성실하고도 열정적인 모습을 어루쓸었다. ...

...무거운 몸이란것도 잊고 나무모밭 김매기에 여념이 없던 정녀는 그만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료양가고 없는지라 남편의 방조를 받는수밖에 없었다. 일이 안될 때라 난산이였다.

처음 당하는 일이여서 겁이 덜컥 난 정녀는 동통이 시작되자 남편을 리진료소로 떠나보냈다. 그런데 의사를 데리러 간 명국은 함흥차사가 돼 버렸는지 교통스런 긴긴밤이 지새고 다음날 중낮이 넘도록 나타날줄을 몰랐다. 정녀가 조림반장 어머니의 도움으로 몸을 풀던 그날 정오무렵에야 헐떡거리며 때늦게 들어섰다.

마을로 내려가던 명국은 토산의 어느 한 등성이를 모조리 발가벗기고있는 작잠반사람들과 맞다들었다. 설고치생산지로 꾸린다는것이다. 군산림경영소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 그길로 읍에 들어가 산림경영소 소장을 만나 일을 바로 잡교야 돌아섰던것이다.

명국은 미안해할대신 오히려 별썬 웃으면서 아직 태물도 마르지않은 아이를 부쩍 쳐들고 떠들었다.

《이거 우리 토산의 손자가 태여났구만. 응, 하하, 아이 이름을 성림이라고 지읍시다. 성할<성>자에 수풀<림>자, 좋지?》

언젠가 한번은 약초씨를 채취한다면서 굴암산에 갔다가 야밤중에 집으로 뛰어내려와 떠들었다.

《여보, 호랑일 봤소. 호랑일... 그놈의 양덕범이 틀림없이 우리 토산으로 왔다니까. 이견 토산이 무성해질 아주 좋은 징조요.》

정녀는 남편이 분명 범을 만나 혼이 빠진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꼭대기에 주먹만한 뜰을 뜰려다가 정신이 말짱한 그한테 하마트면 턱을 때울번하였다.

누가 보지 않는 산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생활이었으나 명국은 매 달, 매 절기, 매 일에 따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어떤 사정이 생겨도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곤하였다. 봄이면 나무심기와 벌레침습예방을 하느라 온 산관을 메주밧들 누웠으며 여름이면 잡초베기와 모밭김매기, 사태막이장식으로 삼복더위속에서 비지땀을 흠뻑 흘렸었다. 또한 가을이면 씨앗받이를 하고 산불막이대책을 세우느라 햇곡식냄

새에 취해 보지도 못한채 멀고 가까운 산줄기들을 분당히 돌고돌았으며 겨울이면 화목군들과 건설일군들로부터 채벌림지단련을 받느라 더운방에 편히 앉아있을 때가 없었다. 풀물이 퍼렇게 들고 흙에 얼룩진 후렁한 회색작업복을 언제 한번 벗어보지 못했으며 총끈처럼 메고다니는 삽과 곡괭이가 어깨에서 항상 떠날줄을 몰랐다.

《이렇게 일하는걸 누가 알아나 줄가요?》

사태막이 장식돌을 저울리던 날 정녀가 남편한테 던진 소리였다. 명국은 확신에 찬 대답으로 안해를 고무하였다.

《그 누가 모른대도 이 산만은 알아줄거요. 땅과 식물은 가장 공정한 평가원이니까. 당에서 왜 우리 산림보호원들한테 푸른 정복을 입히고 국토관리일군들한테 군관이나 안전원들처럼 별까지 달아 주는지 아오? 그건 국토의 관문을 지켜선 초병들이기때문이요. 국토란 뭐겠소? 산, 길, 강, 농토로 이루어진 나라 땅이 아니요. 곡식밭이 안전하채두 그래, 강물이 변함없채두 그래, 길이 패이지 않채두 그래 우선 산에서 비물을 잘 수 축해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산에 나무가 무성하고 풀이 우거져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바로 우리가 하고있지 않소. 또한 목재, 기름, 약재...》

그해 가을 그들은 낡고 작은 집을 헐고 품들여 네칸 기와집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지었다.

림향은 묵묵히 새겨들었다. 찰싹찰싹 일렁이던 감흥의 물결은 점차 걱정 의 파도로 변하여 철썩쳐절썩 그의 가슴벽을 쳤다. 회오의 메아리가 심장을 울린다. 아, 토산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그!...

그가 퇴비지계를 지고 산비탈을 힘겹게 뚫아오를 때 난 굵높은 구두를 또닥거리며 대동강유보도를 산책했었지? 그가 호랑이와 산중에서 맞닥뜨린 창황중에도 토산의 무성함을 예견하며 숨가쁜 환성을 지를 때 난 아들과의 유원지의 동물원 범앞에서 수염이 어떻다며 깔깔 웃음보를 터뜨렸었고 그가 생육성장물질을 얻기 위해 200리 험한 길을 오갈 때 난 일찌기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 나라 중부야산지대에서의 혼성림조성》이라는 학위논문준비로 아늑한 학습당에 앉아 참고서적이나 두적거리지 않았던가. 그가 깊은 산속에 영원한 보금 자리인 기와집을 지을 때 난 대동강반의 운수난방 집에서 편안히 지내었다.

리명국! 그의 일생은 내 나라의 부흥을 위한 일생이었다면 나의 생활 전부는 자기 하나만을 위한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던 작년 여름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먼 산에 새로운 종의 나무씨 채취를 갔댔어요.

어느날 무더기비가 쏟아지자 남편은 뭔가 미타

하여 나무모발을 걱정하더니 토산으로 경황없이 달려왔어요. 아닐세라... 아버지 읍에 물자 실으리 가고 없고 성립인 새 영화를 보러 마을에 내려갔는데 장석이 허물어지며 무섭게 밀려내리기 시작한 사태가 사정없이 어린 모들을 깔아뭉개고 있었어요. 그인 혼자서 그걸 막다가 그만...》

림향은 가슴이 벅차올라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서늘로운 산공기에 식히며 나무모발머리를 거닐었다.

살림집토방에 모기쭈뼉을 피워놓고 손자와 함께 마차바퀴를 손질하는 업로인의 흥타령이 은은한 곡조로 메아리쳐왔다.

예가 바로 살기-좋은 내 고향이로다-  
꿈니리- 닐리- 닐리나 닐리- 닐리리-

행복의 《꿈니리》가 울려퍼지는 이 땅에 잊을 수 없는 자취를 남긴 훌륭한 인간들의 뜻깊은 눈빛인양 은하계의 별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반짝 반짝 빛을 냈고 날로 풍성해지는 이 강산을 하루라도 굽어보지 않고서는 못견디겠는지 오늘날밤도 또다시 나타난 둥근달은 황금빛 손길로 우중충 펼쳐진 수림을 다정히 어루머듬는다. 그 부드러운 애무에 온몸을 맡긴 산은 밤바람을 맞아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기름진 잎사귀와 살오른 가지들을 비좁게 맞비비며 미풍에 흐느적이는 숲! 천만사연이 깃들어 더없이 눈물겹고 가슴뜨거운 그 정서적인 음향은 한 인간의 귀익은 음성으로 변하여 림향의 귀아래로 울려왔다.

《어서 노래를 부르소. 우리 사는 땅의 풍성한 시절을, 내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소리높이 자랑하소.》

림향의 마음속에서는 노래가 울리기 시작했다.

푸른 산, 기름진 들판, 맑은 강물... 그 푸르고 맑고 기름진 조국산천에 자신의 진정도 바쳐갈 결심의 곡조가...

×

며칠후 한대의 마차가 토산골안을 빠져나왔다.

산기슭 신작로를 경쾌히 달리는 마차에는 세사람이 타고있었다. 마부로인, 몸매 아련한 농촌녀인, 도시풍의 젊잖은 녀성... 병원생활중인 한 귀중한 인간을 찾아가는 일행이다.

쭈뼉하며 흘러지나는 록음길은 산밭을 생각깊이 일별하는 도시풍 녀인의 품에는 《리명국》이라는 집필자이름을 쏴아박은 과학논문 《석회암층 야산지대에서의 혼성림조성과 나무밀 풀판조성》이 간직되어있었다. 그 논문완성을 위해 자기가 다년간 품들여 연구해온 《나무밀 풀판조성과 경제

적효과》를 아낌없이 바치었고 토산에 펼쳐진 현실을 학술리론적으로 정리하느라 며칠낮, 며칠밤을 고심한 너인이었다. 그는 까마득히 바라보이는 읍거리와 더디게 달리는 마차를 번갈아 살피며 초조감을 감추지 못한다.

《아버님, 좀더 빨리 달릴수 없을까요. 더 빨리...》

그러자 마부로인의 회초리가 허공에서 휘파람

을 일으킨다.

《이랴- 쩌! 쩌! 이 말이 ... 허허, 모든건 빠를수록 좋은 법이지. 임자네들이 실습왔던게 옛그제같은데 참... 그땐 여기가 맨 흙투성이였었지. 흙투성이... 그러던걸 그 사람이 허허... 앞으로 우리 토산은 더 푸르러질거네. 암, 그렇구말구. 자- 꾸니리나 부릅세. 날리리야... 하하.》

## 김정숙어머님께 드리는 시

까르멜로 가르시아 페르난데스

당신을 노래하기에는  
내 너무나도 미숙한 시인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당신은 진정 사랑의 화신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이시였습니다  
온갖 꽃과 열매의 그윽한 향기인양  
다정한 그 미소

그것은 정녕 어머니의 살뜰한 미소  
노을비긴 내가와  
물결치는 꽃바다를 거닐면서도  
말을수 없었던 달콤한 향기

당신은 조선의 별  
눈부신 2월의 그날  
번개와 우뢰를 가시고  
북남강산을 비쳐줄 태양  
혁명의 창창한 미래  
조선의 해님을 안아올리시였습니다

항일혈전의 나날  
위험한 순간순간들에  
사령관동지를 한몸으로 막아  
혁명의 사령부를 사수하시였습니다

여기는  
종려수와 사랑수수 설레이고  
꿀벌들 떼지어 날아에는  
수평선 푸른 하늘아래  
정서와 열기가 넘쳐나는  
까리브의 섬나라 쿠바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더불어  
대성산의 높은 령마루에서  
장군님의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심을

경애하는 장군님 높이 받들어올리셨기에  
어머님 그토록 바라시던 소원  
머지 않아 실현될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을 보실것입니다  
화약내 풍기지 않고  
대포가 없는 평화로운 땅을 걸으실것입니다

인민들에게는 힘과 지혜를 주고  
침략자와 매국노에게는 죽음을 주는  
어머님의 그 목소리  
내 비록 어머니와 같은 언어로  
표현할수는 없어도  
어머님의 그 미소 그 목소리  
다소나마 노래함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정녕 당신은 열렬한 혁명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민족의 영웅이시고 꽃이시였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꽃을  
나의 마음속깊이 심으렵니다

(필자는 쿠바시인임)



## 보통날의 그밤은 외1편

최종석

보통날의 그밤은  
선생님을 그리는 하많은 추억속의 한토막  
밤은 깊어 벽시계는 똑딱거리고  
선생님결에 나  
뒤떨어진 산수문제 푸느라 여념이 없고  
선생님결에 어린 아기  
울보채다 잠들고  
선생님은 시험지채점을 하시네

때로는  
붉은 연필 달리며 방시레 웃고  
때로는  
연필그루 박으며 입술 감빨고  
내가 하는 문제풀이 막히면  
가르쳐도 주실래  
저녁끼니는 선생님의 생각박이여라

그제는 돌이  
어제는 별이  
이렇게 선생님의 저녁시간 앓아가지 않았던가  
그래도 선생님의 얼굴은  
봄빛 흐르듯 온화해라  
가까이서 들려오는 그 정다운 숨결소리...

보통날의 그밤은  
선생님을 그리는 하많은 추억속의 한토막  
의무교육의 밝은 해빛속에서  
때로 철없이 장난세찬  
우리모두에게 바친 그 하루하루

아, 래일을 안고사는 그 마음에 공백이 생길세라  
하루수업이 끝난 그밤들에 바쳐온  
선생님의 귀중한 시간이어  
그 보통날의 하루하루는  
내 조국의 사랑을 안겨준 헌신의 하루하루  
선생님은 그 하루하루로  
빛나는 나의 오늘을 주었거니

희망이 부푸는 가슴들에  
고마운 당의 은정 한껏 부어주며  
탐구의 열정 불타는 눈빛들에  
내 조국의 맑은 하늘만을 비끼게 해준  
선생님 한생의 하루하루  
조국의 앞길에 밝은 빛 더해주려  
온넛을 고스란히 바쳐온  
선생님의 고귀한 보통날들이여

## 손거울

동경과 선망의 눈길이  
매양 선생님을 따르던 그 어느날  
나는 보았네  
수업전 교실문밖에서  
손거울 들고  
몸차림새를 살피는 선생님을

어째서일가  
우리야 한갓 코흘리개들인데  
무엇이든 석연치 않으면 몸달아  
공부시간 종울리기전마다 엿보았네  
선생님은 의례히  
손거울 보고서야 교실문을 열었네

거울앞에 자주 서기는  
우리 집 누이도 마찬가지로  
문밖을 나설 때면  
분침을 두드리며 이웃저웃 갈아입어보며  
그러나 선생님의 옷에는

우리 누이처럼  
반짝이는 단추도 뽀로찌도 없었네  
단아하고 소박한  
선생님의 몸차림에선  
푸른 숲속의 정취인양 싱그러움이 풍겼네

선생님은 우리앞에 서있었네  
백날이  
천날이  
하루같았네

해마다 비오고  
비오다 눈꽃이 날리듯  
선생님도 인간이고  
한창나이 녀성임에야  
어찌 생활이 없으랴만

우리앞에 나서는 선생님의 모습은  
한모습이었네



소박하면서도 깨끗하고  
그리면서도 아름다운 몸차림처럼  
정찬 웃음도  
상냥한 말씨도 다-

선생님의 그 모습앞에서  
팔소매로 코를 씻는 버릇이 떨어졌네  
제손으로 바지주름도 잡게 되었네  
때로 어머니앞에서는 엇서다가도

선생님앞에서는  
눈물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네

언젠가 어머니가  
선생님을 닮아간다고 대견해하던 날  
아, 나는 너무 좋아  
꽃 한아름 꺾어왔네  
선생님의 교탁우에 몰래 갖다놓았네

## 나는 알았어요

김효순

붉은 넥타이시절  
저탄장으로 달려가는  
꼬리 긴 탄차들을 반겨  
꽃밭에서 나비잡던 작은 손 흔들 땀  
내 미처 몰랐어요

계획넘친 자랑을 안고  
깡뻑을 나서는 아버지가슴에  
축하의 꽃다발 안겨주며  
얼굴에 기쁨 찰랑이면서도  
나는 미처 몰랐어요

히나 나는 지금이야 알았어요  
큰배아운전공이 되어  
아버지의 땀스민 석탄  
그 석탄을 무겁게 실어내며

나는 알았어요  
어떤 날에 아버지가 기분좋아  
어머니한테 술한잔 청하는지  
어떤 날에 마음 무거워 온밤 잠못드시는지

알수 없을거예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땀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막장처럼 깊고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탄부들의 진정을

석탄, 그것으로  
달리는 인차에서 걸걸한 목소리로 부르는  
우리 아버지의 노래가 있어요  
때식을 잊으면서도 막장을 뜨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모대김도 있어요

아, 탄부  
깊고깊은 천길막장이 아니라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생각하는  
깊고깊은 그 마음속에서  
먼저 석탄을 캐내는 마음

나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한생이  
이 나라 탄부들의 한생이  
그대로 석탄, 검은금이 되어  
열과 빛으로 불타고 빛뿌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고 따름을  
결사옹위함을

##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혁명적랑만성의 구현

손일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의 정세와 난관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담력과 랑만을 그대로 심어주어 그들을 투쟁과 승리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겠는가 하는데로 창작적사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회주의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민들의 심장속에 불굴의 담력과 혁명적랑만을 안겨 주는데서 수령형상작품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당의 담력과 랑만!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이며 백절불굴의 혁명적랑만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굴함없이 투쟁해나가는 우리 당의 무비의 담력과 랑만은 오늘 우리 시대와 인민의 혁명적랑만으로 되고 있다.

이 담력과 랑만을 떠나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부강한 내 조국의 번영에 대하여 상심할수 없다.

하기에 작가들은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덕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랑만성을 감명 깊게 보여준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시문학분야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서거일을 계기로 우리 당의 두텁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한 서사시를 비롯한 시가작품들을 련속적으로 창작하여 인민들을 혁명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런 성과는 소설문학분야에서도 이룩되었는데 여기서도 특히 리희남의 단편소설들인 《불멸의 영상》과 《상봉》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 1

민족최대의 국상으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울던

력사의 그 7월.

단편소설 《불멸의 영상》은 력사의 그 나날에 있었던 수많은 감동적인 사실들중에서 어느 하루 저녁동안의 작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과 기쁨만을 알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상실의 아픔은 실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것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러나 그 아픔, 그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버지수령님을 생의 전부로 여기시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위해 모든 사색과 정력을 다 기울여오신 우린 장군님께서 겪으셔야 할 상실의 아픔에 비할수 있으랴.

허나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슬픔보다 우리 인민이 당하는 아픔을 먼저 생각하신다.

문기척소리만 들려도 혹시 수령님께서 예전이 나 다름없이 자신을 찾으시며 방에 들어서시는것 같이 느끼시고 집무탁에 놓인 사진첩을 보시면서도 그날의 수령님의 몸가까이에 자신을 세워보시는 장군님이시건만 그이께서는 이밤도 《아버지》를 찾고 부르는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안겨주시기 위해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신다.

만수대동상앞에서 통곡하다 졸도한 몸이지만 백로가 던지고갔다는 소생약을 얻게 되면 수령님을 다시 소생시킬수 있다며 밤을 새우는 김추월녀성과 비를 맞으며 호상서는 어린이들의 소행에서 정녕 가서는 안될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보시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터뜨리는 오열과 눈물속에서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눈물의 철학, 영생의 철학을 감수하신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계가 사회주의의 유일한 보루인 조선에 각이한 우려와 억측을 보내고있을 때 우리 인민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은 가시지 않으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살아갈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담은 불멸의 영상, 태양의 미소를 안겨주신다.

온 나라 산과 들, 공장과 농촌, 어촌, 풍년든 간척지벌과 흐뭇한 강녕이발들을 때로 눈비를 맞으시며 어떤 때는 꽃강녕이로 끼니를 예우시며 걷고걸으시면서도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웃음만을 안겨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인자하신 그 미소.

수령님의 그 자애론 영상을 담은 영결식대형조상화, 그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혁명의 오늘과 래일의 승리의 상징으로 영생하신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낳은 충효의 결정체이며 불멸의 영상이다.

하여 우리 인민은 그 태양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 이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꽃피워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굴의 담력과 랑만의 모습을 보는것이다.

한번 갔다가는 다시 못오는것이 인간의 생이다.

이생아닌 일생의 마지막림종을 두고 사람들은 애석해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이 어길수 없는 생의 법칙을 완전히 부정케 하는 영생의 법칙이 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언제나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대를 이어 빛내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영생을 꽃피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랑만의 세계가 낳은 불멸의 법칙이다.

수령과의 영결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극적현실을 더욱 영원할 태양의 영생으로 전환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랑만의 세계에서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그이의 영생관의 높이를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는 여기에 작품의 철학적심도성과 작가의 독특한 형상의 묘미가 있다.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치고 수령님의 제자, 전사답게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장군님의 담력과 의지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생의 의미속에서 격조높이 천명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작품은 그토록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이 담력과 랑만은 그대로 오늘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투쟁과 승리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인민들에게는 오직 기쁨과 웃음만을 안겨주셨던 수령님의 모습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금도 우리 혁명의 최전선에 서시여 혁명의 래일을 략관하시니 우리 어찌 수령님께서 가시였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하기에 작가는 작품에서 피눈물의 바다속에서 진행된 영결식은 오히려 영결의 부정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시위라고 웨치는것이다.

이 작품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불굴의 담력과 랑만을 지니시고 끝까지 완수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철리, 시대의 철리를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단편소설 《상봉》도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紐대에 짙은 향기를 더해주는 또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 2

작품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반영물이면서도 거기에 불필코 작가의 주관적의도와 감정이 체현되지 않을수 없다. 하나의 세부도 그것은 작가의 사상과 감정, 미학적의도에 따라 분석되고 가공되고 다듬어진 기초우에서만 기름진 생활세부로 되게 된다.

작가의 이러한 사상과 감정, 의도는 무엇보다도 작품에 세워진 사상적대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작가의 이 사상과 의도는 그가 현시기 제기되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어떻게 접수하고 그것을 실생활체험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그대로 작품에 구현되게 된다. 이 창작적원칙은 수령형상작품에서 보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다른 모든 작품들도 더 그러하지만 수령형상작품이야말로 작가로 하여금 당의 사상과 의지를 가장 민감하게, 진실하게, 절절하게 반영하며 대담한 담력과 투지를 안고 창작적사색을 벌려나갈것을 요구하는 창작실천분야이기때문이다.

작가 리희남의 작품들은 이러한 창작실천적구현에서 중요한 시사를 주고있는 작품들이라고 본다.

작가의 지난 시기 창작실패를 보면 수령형상작품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 문단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소박한 지면에 삼가 걱정의 펜끝을 다듬어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고싶어한다.

그러나 그 누구나 기대와 희망에 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충분한 필력때문이어서인지 아니면 빈약한 재능때문이어서인지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것이 수령형상작품이다.

지난 시기 작가 리희남의 경우도 그러했으리라고 본다. 듣건대 작가는 20년전에 수령형상단면을 내놓았다가 끝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작가가 어떻게 최근에 이렇듯 만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수령형상작품들을 련속적으로 창작할수 있었는가.

되새겨보면 눈물의 바다, 통곡의 바다를 이루었던 력사의 7월에 우리 인민모두는 얼마나 새로운 인간들로 성장하였던가. 작가 리희남도 바로 그 나날에 평시에는 그토록 실감하지 못했던 체

험,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아버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이런 수령을 위하여 자식된 도리를 한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앞으로 우리는 그이의 제자답게, 전사답게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과 모태감을 뼈저리게 한 작가였다. 이런 작가였기에 또한분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에서 조국의 미래, 자기의 운명을 락관할수 있었으며 그 존귀한 영상에 한줄기의 빛이라도 더 보태고싶은 량심의 충격과 희열에 넘쳐 서슴없이 펜을 들었을것이다.

결코 자기의 주관적욕망이나 미사리구로서가 아니라 력사의 나날에 보았던 장군님의 모습을 만민의 가슴에 그대로 심어주어야 한다는것이 그때 작가의 의지였고 량심이였으며 격동된 심정이였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두 작품에 관통되고있는 하나의 사상, 즉 위대한 수령님은 정녕 가지지 않으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의 심장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가 가장 힘있게 울려나오고 있는것도 바로 여기에 그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이렇게 당과 함께 들끓는 시대와 함께 살며 운명을 같이하려는 작가에게서는 풍만한 세부형상과 각이한 언어구사, 다양한 형상수법과 기교에서도 오직 하나의 사상으로 일관되고 의지로 다듬어진 세부와 언어, 형상수법이 구현되기 마련이다.

단편소설 《불멸의 영상》과 《상봉》은 다 수령형상작품이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생리적특성을 가지고있는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작품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작품이라는데도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이야기내용과 생활소재의 시공간적측면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있는작품들이다. 《불멸의 영상》은 100일 추모행사기간에 보여주신 장군님의 높이신 충효의 세계를 담은 내용이라면 《상봉》은 몇십년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무산광산 대형자동차운전수와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신 이야기를 담고있는 작품이다. 이 서로 다른 내용의 두 작품이 그토록 우리의 주목을 끄는것은 작가가 7월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까이에서 그이의 위대한 생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도 아니며 더우기 온 세계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성대히 거행된 7월 추모행사를 직접 목격한 평양사람도 아닌 머나먼 무산땅의 작가이라는데 있다. 또 작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무산지구에 남기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혁명력사와 사랑의 자욱을 자신이 동행하며 기록해둔 사람도 아닌 중년의 작가라는 데 있다. 이런 작가가 어떻게 력사의 나날에 체험하고 겪으신 위인들의 거룩한 생활들의 가지가지와 숭고한 내면심리세계를 이처럼 진실하게 그

려낼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바로 몸은 비록 떨어져있어도 오직 장군님의 숨결, 그이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이의 사상과 감정, 의지대로만 모든 창작적사색을 집중시켜나가려는 그야말로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사는 진짜배기작가의 담력과 의지가 차넘치고있었기때문이다.

꼭 겪어보아야만 체험으로 되겠는가. 그러면 수령형상작품들은 어떻게 창작할수 있겠는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명을 우리는 리희남의 단편들을 놓고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먼곳에 있어도 오직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생활감정으로 사색하고 체험하고 창작했을 때 명작이 나온다는것, 다시말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숨쉬며 창작활동을 벌려나가려는 작가의 담력과 대담성에 당의 사상과 의도가 초석이 되면 된다는 귀중한 경험과 진리를 안겨주고있는데 작가 리희남의 창작성고가 있는것이다.

그의 모든 작품들에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체험의 세계가 눈앞의 화폭처럼 그대로 안겨오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결을 떠나셨다는 엄연한 현실앞에서도 차마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여 혹시 잠간 일을 보시다가 피로를 푸시는것 같고 온갖 시름을 더신채 고요히 주무시는것 같이 생각하시며 것처럼 기적이 많은 내 나라에서 수령님을 소생시킬수 없는가고 가슴아파하시는 장군님의 절절한 내면심리세계, 현지지도의 길에 남기신 수령님의 사진들을 한장한장 밤새워 보시면서도 또 언제나 변함없이 울리는 새벽 두시 종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언제나 웃으시던 그이의 모습, 그이의 숨결, 그이의 체취를 현실처럼 느끼시며 생전에 다해드리지 못한 자신의 효성을 두고 모태기시는 절절한 심리적으로.

이러한 진실하면서도 방불한 묘사는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감정을 자신의 사상과 감정,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이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려는 작가의 담력과 량만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화폭이라고 본다.

보다싶이 작품에서는 이렇다할 극적인 사건이나 이야기거리는 없다. 있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죤화면에서와 신문, 방송을 통하여 이미 알고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가는 다 아는 사실에 대한 순수한 전달식라렬이나 영결식대형초상화제작이라는 미술가의 고충으로 엮어진 일반적이며 도식적인 형상수법으로가 아니라 그 누구나 체험할수 없는 위인의 충효의 내면세계를 파헤쳐보임으로써 그렇듯 우리들의 심장을 격동시킬수 있었다.

수령의 서거라는 비통한 현실앞에서 그 누구나 따를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고매한 의리와 충효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령과 령도자와의 관계를 타방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시점에서 대담하게 파헤쳐보여주고있는 여기에 이 소설이 지난 시기 수령형상단편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본다. 단편소설 《상봉》도 자칫하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것으로 해서 단편소설의 용적에 맞지 않는 무리를 줄수도 있었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의 확고한 미학적의도대로 인간관계와 이야기줄거리조직,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구성조직을 해나감으로써 모든 인물들이 그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부각시키는데로 하나와 같이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성과에 기초한 리희남의 작품들은 그대로 우리 작가들이 오늘의 준엄한 환경에서 어떤 사상과 의지를 안고 창작활동을 벌려야 하는가 하는데 귀중한 시사를 주고있다. 당의 의도

와 숨결대로만 살며 투쟁해나갈 때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백절불굴의 담력과 혁명적량만을 안고 창작과 사색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갈 때에만 당이 바라는 작가, 진짜배기 충신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다는 보석같은 경험과 교훈을 안겨주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친위대로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고난의 행군》에서 모두다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인민들을 고무추동하여야 할 시대의 기수, 진군의 나팔수들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이 나래치는 작품, 수령형상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담력과 량만을 그대로 심어주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우리가 바치는 그 효성은...

### 리명옥

세상에 가장 높은 칭호로 부를수도 있건만  
어머니라 부르는것이 제일로 좋아  
항일의 군모아래 밝게 웃으시는 영상 우러려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라 부르며  
어머님을 따르는 이 나라 딸들입니다

우리가 한생 복스러이 살라고  
한생을 너무도 고생만 해오신 어머님  
아, 그 어머님앞에  
우리 바친 효성은 하나도 없어  
어머님을 생각하면 목이 꼭 메입니다

어머님 총메고 맞으신 백두광야의 눈비  
단 한번이라도 막아드리고  
동지 위해 산나물 캐시느라 터지던 손에  
단 한번이라도 약을 발라드렸다면  
이다지 가슴젖지 않을것을...

눈녹인 맹물로 끼니를 에우시고도  
밝게 웃으시며 대원들을 돌보시던 어머님앞에  
이제라도 따끈한 밥 한그릇 대접할수 있다면...  
해방된 강산에서도  
끝내 단 한벌의 새옷도 입지 않으신 어머님께  
이제라도 좋은 옷 한벌 해드릴수만 있다면...

아, 그 소원 정녕 이를수만 있다면-  
해가 갈수록 더해가는 그 마음 안고

이 나라 딸들이 성장합니다  
바치는것을 락으로 아신  
어머님의 고결한 그 넋을 이어받으며  
이 나라 딸들은 진정 어머님을 따릅니다

따르며 뜨겁게 자란 마음들이  
천필로 만필로 비단천을 늘이고  
들판의 오곡을 황금이삭으로 가꾸어  
기쁨속에 찾는 우리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밝게 웃으십니까

영예군인의 안해로  
모성영웅으로  
보람찬 삶을 가꿔 조국의 기쁨되면  
너무도 대견하시여  
더 환하게 어머님은 웃으시는것 같습니다

아, 어머님  
어머님을 닮으니 이 나라 딸들이 아름다워지고  
어머님을 따르니 이 나라 딸들이 효녀가 됩니다  
어머님 끝없이 가고싶던 길  
장군님 받들어 내 나라 빛내는 그 길에  
우리 진정 다해 바쳐가는 그 마음을  
가장 큰 효성으로 받아주시며  
그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어머님은 오늘도 더 밝게 웃으십니다



# 배움의 나라

오대정

며칠전이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기다렸다는 듯 안해가 하는 말이 지혜네 집에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다. 급히 왔다가라는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왜 그럴까?》

의문을 풀길없는 나는 선길로 지혜네 집을 찾아갔다.

지혜의 아버지 최동무로 말하면 한때 같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막역한 친구이다. 무슨 기쁜일이라도 있었는지 최동무는 웃음 환한 얼굴로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무슨 일로 날 찾았나?》

《다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지혜가 후보학사님이 되었다네.》

《아, 그래! 그거 참 경사로군. 하여간 기쁘겠네.》

《기쁘다마다.》

《헌데 지혜는 어디 갔나? 오, 옷방에 있군. 미래의 학사님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이라니 섭섭한데. 멀지 않아 우리 집문턱을 넘을텐데 달리 불러야지.》

《아이참, 선생님두.》

지혜는 얼굴이 빨개져 황급히 몸을 피했다.

《자네 남은 떡줄 생각조차 않는데 공연히 김치국부터 마시는게 아닌가.》

최동무가 웃으며 하는 핀잔이었다.

《어디 두고 보세.》

나와 최동무는 한동안 기쁨에 넘쳐 웃고 떠들었다.

그러던 나는 최동무와 함께 지혜의 이름을 지어주던 때의 일이 감회깊이 추억되었다. ...

최지혜의 생년월일은 1977년 9월 5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던 력사의 그날에 지혜는 만복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사회주의교육의 대강을 접하던 그날에 온 나라 인민은 크나큰 환희와 감격에 휩싸여있었다.

한층 직접 교편을 잡고있던 나와 최동무의 경유야 더 말해 무엇하랴.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키우는 보람찬 일에 한생을 다 바치리라 꿈도 많던 우리들이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교원은 직업적혁명가라 불려주시었

으니 그 믿음이 더없이 고맙고 소중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라는것을 현명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이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히시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이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로작의 자자구구를 심장깊이 새겨안으며 최동무와 나는 한밤을 흥분 속에 지새웠다. 그러는 우리에게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눈앞에 방불히 그려졌다. 갓 태어난 최동무의 딸의 모습도 그려졌다. 10년후 아니 20년후 그의 모습은 대견도 했다. 대학생, 후보학사!

그날에 나와 최동무는 딸애의 이름을 고르고콜라 지혜라 지었다.

최지혜!

가장 지혜롭게 자라라고. 가장 지혜롭게 키우고...

이 세상엔 자식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란 없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간절한 소망을 한껏 담아 자식들의 이름을 보다 뜻깊게 짓기에 애쓴다.

허나 모든 아이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다 자라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달리는 나에겐 언제인가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되새겨지었다.

일찌기 세상을 떠나 한번도 본 일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그 이야기때문인지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자주 그려진다.

나의 할아버지는 자강도 만포시의 어느 한 산촌에서 자그마한 서당에서 훈장을 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술한 자식을 두고도 제 알고있는 글한자 제대로 배워주지 못하는것이 여간 괴롭지 않았다. 그래서 자식들중 남달리 총명한 막내아들(아버지) 하나만이라도 공부시켜보리라 걱정했다. 영특한 인재로 키워볼 생각에서 이름까지 영재라고 고쳐짓고 말을 하기 시작하자부터 《전자》를 가르쳤다. 어떻게 해서든지 《4서3경》까지 읽히우려는 할아버지의 잡도리는 처음부터 여간이 아니었다. 어린것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고



찍하면 모진 매를 들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얼마 못가서부터 정신이 나간듯 먼산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자주 쉬던 끝에 강심을 먹고 서당문을 닫아댔다. 것처럼 애지중지하던 책자들을 활활 타는 불아궁이에다 마구 처넣었다.

《사람은 일을 해야만 사는가보다. 현대 히로야 일을 못하지.》

하면서 할아버지는 농쟁기를 잡고 밭으로 나갔다.

열살잡힌 아버지의 어린 손에도 붓대신 농쟁기를 쥐어주었다.

그러니 제아무리 영재란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 무슨 소용이었으랴...

나의 이런 생각에 공감이라도 하는듯 최동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의미심장하였다.

《우리야 지혜에게 이름 두자를 지어준것밖에 더 있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지혜가 어떻게 오늘처럼 자랐겠나.》

진정 그러하다.

나라의 흥망은 후대교육사업에 달려다고 하시며 한평생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배움의 나

라, 교육의 나라가 되었다.

가장 우월한 11년제 전반적무료의무교육!

온 사회의 인테리화!

불과 세명의 어린이가 있는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생겨났다.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생겨난 통학열차, 통학버스.

실로 교육의 나라 우리 나라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끝없이 생겨났다. 그 전설속에 김일신, 오은별, 한성일, 김광숙, 계순희... 수많은 《지혜》들이 태어났다.

조국해방시 하나의 대학도 없던 땅에 불과 몇명의 인재를 헤아리던 이 땅에 백수십만의 지식인대군이 자랐다.

산촌의 자그마한 서당 하나 제대로 지렁키 어려웠던 이 나라에, 제 나라의 말과 글까지 빼앗기고 일제식민지노예교육의 쇠사슬에 칭칭 얹혀있던 이 나라에 어딜 가나 덩지 큰 학교들이 솟고 배움의 전당이 솟았으니 이 아니 세기적전변인가. 배움의 글소리 어딜 가나 그리도 높고 그리도 랑랑하니 내 나라는 분명 흥하고 또 흥하는 자랑높은 나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이다.

## 명언해설

### 《정치철학은 령도의 라침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나라와 인민을 옳게 이끌어나가자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을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대중을 이끌어어나가는데 있어서 령도예술이나 령도풍모가 어떠한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지침으로 삼는 사상리론이 어떠한가 하는데 있다.

그것은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쓰라린 교훈은 이 나라에서 자기의 옳바른 정치철학,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가지지 못하고있었기때문에 나라와 인민의 신세를 망쳐먹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

### 김정일

다. 이것은 마치도 라침판이 없는 배가 항방을 잃고 좌왕우왕하다가 파도에 밀려 파선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같다.

수령복을 타고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풍만한 숲으로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받아안고 언제나 사소한 헛디딤도 모르고 백전백승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곧바른 항로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 시대의 참된 교육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이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적인 교육대강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다.

볼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는 불멸의 교육총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내놓으시여 주체교육력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것은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문명부강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가 교육사업에 달려있다.

일찌기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의 미래, 후대들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느 학교들과 대학들을 가보아도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의 교육관, 사랑의 거룩한 자육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밝은 빛발아래 우리 인민의 사상문화적수준은 훨씬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민족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더우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엄혹한 오늘날의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교육의 종소리, 배움의 글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지고있는것은 바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교육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교제시기때문이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교육관, 후대관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결사관철해가는 우리 인민의 책임적이고 보람찬 진군의 앞장에는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직업적혁명가들인 교육자들이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혁명가입**

**니다.》**

오늘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성과의 갈피갈피에는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혁명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후대 교육교양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교육자들의 숨은 노력과 위훈이 깃들어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람들을 더욱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내고있는 교육자들의 모습을 품위있게 왕성하게 형상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육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것이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주체의 인간학의 기본요구로 되기때문이다.

주체의 인간학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올바른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적인 인간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력사의 주체로 형상한다.

우리 문학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길, 보람차고 가치있는 인생길을 개척해나가는 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교육자들은 우리 시대의 자주적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이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사회발전을 다그쳐나가는 가장 의의있는 사업의 직접적담당자, 직업적혁명가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후대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인간개조자이라고도 할수 있다.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참다운 사상정신적품모의 기본특징은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 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적인생관과 락관주의이다.

그들은 이런 사상정신세계를 가지고 높은 지성으로 사람들을 깨우쳐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혁명가, 언제나 묵묵히 당의 교육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정의인, 량심인들이다.

그런것만큼 우리 시대의 참된 교육자들의 전형은 문학작품에 형상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창조를 요구하는 우리 문학의 기본 요구이다.

교육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그것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우리 붉은기문학의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양되는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을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완성해야 하는 력사적인 위업인것만큼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장래운명은 혁명의 명맥을 대를 이어 나갈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붉은기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갯듯이 이어갈 담당자들은 바로 교육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가꾸어지고 키워진다. 따라서 교육자들의 전형창조를 떠나서 우리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교육자들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또한 오늘의 현정세와 현교육사업실태와 관련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안팎의 원수들은 세계적인 세력균형이 파괴된 복잡한 정세를 기회로 우리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공세를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강도적계변밑에 민족교육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전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일체화》하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문학이 민족교육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옹호해가는 교육자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또 오늘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도 문학앞에 교육자의 본보기를 품위있게 창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날 우리 교육사업은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직 당과 혁명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으며 교육의 질적수준도 당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키자면 교육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물론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에 있어서나 교육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있어서, 후대교육교양의 책임성과 과학탐구의 신념과 강인성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성과 규율성, 근면성과 성실성에 있어서 세계 그 어디에도 주체조선의 교육자들을 따를 대상은 없다. 이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앞선 나라들을 누르지 못하고있다.

적들은 바로 이것을 악용하여 우리를 중상비방하고 압력을 가하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교육자들은 하루빨리 후대들을 세계적인 과학강자, 기술강자, 발명강자로 키워 그들이 우리 나라를 과학과 기술의 상상봉에 끌어올려 이 분야에서 적들을 압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육현실은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교육자의 본보기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형상하여 교육전사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고무할것을 절실히 바라고있다. 교육활동을 단순히 지식을 전수시키는 실무적사업으로가 아니라 주체조선의 명예를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적들과의 판가리싸움으로 간주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자주적인 영웅으로 되며 패하면 수치스러운 노예로 굴러떨어진다는 비장한 각오밑에 교육혁명을 감당해나가는 교육자의 전형적모습을 그려내야 한다.

우리 문학은 지난시기 교육자의 생활세계를 탐구형상하는데서 일정한 경험을 쌓았다.

단편소설들인 《생명》(백남룡), 《우리 선생님》(장기성), 《미래를 위한 초소》(정성훈)를 비롯한 소설들과 적지 않은 서정시작품들은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형상함으로써 교육혁명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그러나 지금 교육자들을 형상한 작품들이 우선량적으로 매우 적고 사상에술적수준도 응당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교육자들의 형상을 더 많이, 더 잘 창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교육자들의 형상창조에서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고결한 사상감정세계를 진실한 개성으로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교육자들이 신념으로 간직한 붉은기사상 즉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결사옹위정신을 형상의 핵으로 잡아쥐고 그 발현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다. 교육자에게 있어서 신념으로 간직된 붉은기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육사상, 교육령도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으로 나타난다. 당의 교육전사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은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교육사상과 령도에 대한 충실성은 제일생명이다. 사물을 하나 보아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대로 보고 강의와 실험을 한번 하여도 장군님의 의도대로 하며 걸음을 한자욱 옮겨도 장군님의 걸음새에 맞추는 절대적인 충실성, 이것이 교육자들의 사상감정을 규정하는 기본특징이다. 문학에 그려지는 교육자의 형상은 마땅히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장군님의 교육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바쳐 걸음걸음 교육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 충신으로 전형화되어야 한다.

교육자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자면 그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현란한 말이나 격조높은 만세는 웨칠줄 몰라도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전형적인 숨은 노력가의 아름다운 성격적특징을 옹계 밝힐수 있고 인간적 품모를 선명하고 풍만하게 보여줄수 있다. 우리 시대 참된 교육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절감하고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령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마음쓰며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성하는것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여기고있다.

우리의 현실에는 도시에서 지라나 대학을 졸업한 처녀가 외진 등대섬마을학교로 자원진출하여 한생을 교육사업에 바쳐가는 사실이라든가 대학의 오랜 교수가 불치의 병으로 숨지는 마지막최후에 후대들에게 장군님만을 잘 받들어달라는 절절한 당부와 함께 교재집필을 다 완성하고 순직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 문학은 교육자의 아름다운 소행과 빛나는 위훈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참된 충성과 효성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그러한 작품이라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하나의 전형을 통하여 수백수천의 새로운 교육충신, 교육효자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할수있다.

문학에서는 후대들의 형상을 통하여서도 교육자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보여줄수 있다. 교육자의 존재는 항상 후대들의 생활속에 구체적으로 살고있으며 교육자의 숨은 노력, 숨은 손길은 매 제자들의 발자취마다에 그대로 스며있다. 스승의 모습은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모습에 비껴있다. 제자들이 얼마나 준비되어있고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 하는것만 보아도 그를 키운 교육자에 대한 충분한 표상을 가질수 있다. 오늘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도의 거룩한 자욱이 깃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든 농장과 탄광, 광산으로 학급전체가 집단적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 영예군인과 한생의 길동무가 되려고 결혼하는 새세대 처녀들, 어렵고 힘든 초소로 자원진출하는 새세대들의 아름다운 소행에서 사람들은 그를 교육교양한 교육자의 숨은 노력을 그대로 체험하게 된다. 우리 문학은 후대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교육자의 당에 대한 충실성을 느낄수 있게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교육자들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교육자들이 지닌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교육자들은 류달리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후대들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더없는 행복과 영예로 여기는 참된 인간이다. 그들은 남달리 다박다식하면서도 누가 알아주진 말건 자기의 망심을 바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그리고 조국의 미래와 후대들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며 풍부한 정서와 열정, 고상한 료리도덕을 지닌 참된 모습은 혁명가들이다.

우리 문학은 교육자들이아말로 고결한 공산주의적인간애를 지닌 시대의 참된 주인공이라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자의 인간성을 보여줄에 있어서는 정치성과 옹계 결합시켜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교육자의 인간성을 그 어떤 타고난 천성인것처럼 그릴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를 인생관화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성품으로 그려야 한다. 교육자의 성격형상에서는 인간성이나 정치성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려 할것이 아니라 성격의 인간적 품모를 보여주는 인간성과 성격의 사회적본질을 밝히는 정치성을 잘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자의 공산주의적인간성을 형상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고 교육자들속에서 새롭게 발현되고있는 정신도덕적품모를 생동하게 그리는것이다.

최근 교육자들속에서는 자기가 말았던 학급의 전체 졸업생들과 함께 농업전선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값높은 땀을 바치며 피라는 열정으로 20대, 30대의 쟁쟁한 박사, 학사들을 련이어 키워내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자진하여 부모없는 아이들을 여러명씩 안아다가 친부모의 사랑으로 억세게 키워 사회주의건설장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우는것을 하나의 레사로운 교육자적료리도덕으로 간주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현시기 새로운 높이에서 발현되는 교육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성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효성에 기초한것으로 깊이있게 탐구하고 무게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교육자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교육자들을 생동한 개성의 소유자로 형상하는것이다.

교육자를 형상하는데서 성격의 개성화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는것은 이 형상이 자칫하면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도식화될 우려가 없지 않기때문이다. 실지 지난 시기 우리의 소설들과 시문학들에 형상된 교육자들의 성격은 거의가 다 침착하고 로숙하며 모든 면에서 원만한 인물로 도식화되였거나 류사하게 그려졌던것도 사실이다.

인물의 개성은 그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된것이다.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



은 그 인간의 준비정도와 생활조건에 따라 서로 각이하게 나타나기마련이다.

사람을 보다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하여 매 순간을 자주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행동으로 즐기치게 이어가는 교육자들에게서는 개성이 남달리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런 데로부터 교육자를 개성화하자면 그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개인적특징을 특색있게 돈구어내야 한다. 그 교육자에게만 고유한 사고방식, 행동심리,

감정세계를 파고들어 그려야 한다. 교육자들이 가운데는 침착하고 로숙한 사람도 있고 발랄한 성격의 사람도 있으며 이러저러한 약점을 생활을 통하여 대담하게 고쳐나가는 사람도 있다. 모든 교육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당의 교육사상과 명도를 결사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오늘의 실정에서 우리의 교육자들을 점잖고 틀잡힌 개성을 가진 성격으로만 형상하는것은 격동하는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에 형상된 교육자의 성격이 메말라서 정이 불지 않고 딱딱하여 생기와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 예술적매력을 느낄수 없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교육자도 인간인것만큼 그에게만 고유한 신념과 의지, 이상과 포부, 감정과 정서, 랑만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인간개조자인 교육자들은 누구보다 강의한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아름다운 이상과 포부를 간직하고있으며 풍부한 감정과 랑만을 지닌 인간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성격을 그리는데서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상과 포부, 심리와 감정, 기질과 랑만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고 풍부하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개성을 가진 전형으로 창조할수 있다. 교육자의 형상을 품위있게 창조한다고 하면서 교육관, 후대관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돌리고 기질적인 측면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인물의 개성을 돈구는데서 기질은 무시할수 없는 중요요소이다. 기질이 같은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의 기질은 상대적으로 공고성을 띠며 일생동안 잘 변하지도 않는다. 안정되고 정리된 사업조건에서 정신노동활동을 하는 교육자들에게서 기질의 표현은 눈에 인차 뜨인다. 같은 교육관, 후대관을 가진 교육자라 하여도 기질이 다르면 성격이 서로 구별되고 개성으로 뒰수 있다. 창작에서는 선천적인 기질만 내세워도 안되지만 인물의 기질을 무시하거나 단순화하여도 안된다.

우리 문학에서 교육자의 형상은 교육자이기전에 인간으로 그려져야 하며 개성으로도 다양하고 생신하게 그려져야 한다.

교육자들의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 시기의 교육자들의 생활에

대한 협소한 리해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활을 현시점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그것을 폭넓고 다양하게, 진실감있게 그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생활에 대한 형상의 폭을 대담하게 넓혀야 한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교수교양사업, 과학연구사업을 하는 교육자들의 사상정신생활영역은 대단히 폭넓고 풍부하다.

교육활동 한 측면만 보아도 심오하고 꾸준한 과학지식전수와 계발적인 강의로 이어지는 줄기찬 교수활동, 청년학생들의 원대한 리상과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를 한껏 펼쳐주는 과외생활지도, 청춘의 혁명적열정과 시대적사명감을 자각시켜가는 사회정치활동의 조직지도,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하고 교육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사색과 탐구... 인간관계도 제자들과의 관계, 학부모들과의 관계. 사회인물과의 관계, 우정관계, 애정관계...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교육자의 생활탐구에서 협소한 울타리를 부시고 그 범위를 넓혀야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창조할수있다.

교육자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자면 다음으로 생활을 매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자의 생활은 독자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게 하며 꼭 그렇게 생활하고싶도록 그려야 한다. 교육자의 생활에 동정도 하게 되고 공감도 하지만 주인공처럼 교육자로 살고싶은 욕망은 생겨나지 않는다면 성공한 형상이라고 할수 없다. 매혹적인 교육자의 생활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에서, 현재의 평범한 개개생활에서 교육자가 차지하는 역할의 의의가 형상적으로 똑똑히 밝혀질 때라야 가능하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로동자, 농민, 병사들로부터 창조와 건설의 영웅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로력적위훈으로 일떠선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에는 교육자의 숨은 노력, 숭고한 생활세계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이밖에도 교육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창작실천상의 문제들은 많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에 뛰여들어 그들의 생활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지하게 파고들어 시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남는 교육자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형상수법에 대한 사색과 탐구를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

하여 작가들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육사상을 결사옹호, 관철해나가고있는 미더운 교육자들의 형상을 더욱 활발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가꿔야 할것이다.



## 병사들과 아이들

원흥식

### 병사의 손

맑은 물 내가에  
장난세찬 어린 아이 무릎에 앉힌 병사  
달아오른 철갑모도 벗을새없이  
땀흐르는 아이얼굴 웃으며 씻어주네

고향집 조카인듯 주먹코도 툇겨주며  
윤나게 감은 머리 손가락빛질도 해주고  
손수건 행구어 목덜미도 닦아주네

벽돌석장 단주먹에 요정내던 그 손이  
총대를 틀어잡던 장알박힌 그 손이  
어찌면 그리도 부드러울가  
귀여운 아이얼굴 달처럼 환해졌네

아 총대를 쥐고있는 그 손  
사랑이 넘쳐 부드러운 그 손

### 물이 맑았네

산굽이 가로질러 곧추 가던 병사들  
그만에야 내가에서 걸음 멈췄네  
보아라 꽃배놀이 신바람난 아이들  
종이배를 《군함》이라 빼기네

그 모습 사랑스레 바라보던 병사들  
내가를 에돌아 멀리 내려갔네  
아이들을 《왕》이라 사랑하시는 장군님

암! 그 내물을 흐리어선 안되지

그렇구 말구 어디라구  
《왕》들이 띄운 배가 아닌가

내물도 병사들을 노래하며 흘렸네  
아, 물이 맑았네

### 불빛

산촌의 내가에 어둠 깃들여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들  
징검돌 앞에 놓고 머뭇거렸네  
기통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던 병사  
전지불 환하게 비쳐들었네

반가운 그 불빛

좋아라고 짱총짱총  
아이들 징검돌을 딛고 건너네

그 불빛 어찌 징검돌만 밝혔으랴  
수호자의 궁지가 담긴 그 불빛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  
어둠도 흐리우지 못하였네

### 빨간 비옷

비방울 걸어차며 병사가 가는 길에  
귀여운 소녀하나 빨간비옷 들고 섰겠지

-미국놈 잡는 총 비맞지 않게  
이 비옷 씌워요

어찌면 생각이 그리도 기특할가

병사는 그 소녀 덩석 안아올렸네

행군의 먼길 천리길 만리길  
병사의 마음속에 소녀는 서있었네

아, 비옷  
빨간 그 비옷

## 보람

배경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우리가 당의 호소에 따라 사회주의대전설장을 지망했을 때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다.

《학생들은 이제 당당한 로동계급이 될것입니다. 자기들이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부의 창조자라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창조자라는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들었다. 물질적부의 로동계급! 그 말은 마치 과학의 상상봉에 올라선 세계적인 과학자나 올림프스산정에 있다는 신화적인 제왕의 이름과도 같이 엄엄하고 자랑스럽게 들리었다.

나는 그 말의 참의미보다 귀전을 울리는 어감에 더 황홀했었다. 하지만 그 말의 참뜻을 그때는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

X

아바이는 모루우에 십자로 금을 굿더니 파배기 같이 생긴 철판을 그우에 올려놓았다. 철판량옆으로 모루에 그은 종선이 보였다. 내가 메를 쳐들자 아바이는 나를 힐금 쳐다보고나서 철판을 잡은 집계를 두손으로 꼭 잡았다.

《때려!》

《광.》

《그렇게밖에 못때리겠어?》 아바이가 눈을 부릅떴다.

나는 어리둥절해 그를 쳐다보았다.

《금을 그은데를 때리란 말이야.》

다시 내리쳤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듯 나를 찬찬히 쳐다봤는데 그 못마땅해 하는 눈길앞에 영문을 모르고 서있자니 반발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왜 허튼데를 때려? 눈두 머리두 없냐?》

버럭 내지르는 그 고함소리가 유리칼로 굽는것처럼 나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누르며 나는 곱지 않은 눈길로 아바이를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다시 함마질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옆에 있던 반장이 내 손에서 메를 뺏어들었다. 그가 메로 내려칠 때마다 아바이는 철판을 집게로 룰동적으로 움직이었다. 함마는 한점을 겨누고 떨어지며 철판을 고르게 퍼나갔다. 그때에야 나는 십자선의 교차점을 때려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눈에 보이는 종선만 녀두에 두고 횡선의 의의에 대해선 망각하고 있었던것이다. 왜 그걸 생각못했을까. 그 단순하고 명백한 리치

를... 아바이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이다. 철판교정작업이 나에겐 처음이 아닌가. 아니 그쯤은 머리를 굴리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 조용히 깨우쳐줄수 있는 일을 놓고 멋없이 성을 내는 아바이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맥주거품마냥 부걱부걱 피여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김승호아바이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첫날에 있는 일이다.

로동생활의 첫 걸음은 학창시절에 내가 그려보던것과 같이 아름다운 무지개로 감싸인 낭만적인 생활이 아니었다. 물론 공장에서는 새로운 창조물들이 수없이 나오지만 내가 하는 일엔 거의나 창조라고 할만한것이 없었다. 철판을 때리고 자르고 붙이며 기계들을 수리하는 그런 일도 창조라고 할수 있겠는지...

《아바이하고 같이 일하기 힘들지? 성미가 보통이 아니야.》

성찬이란 젊은 보수공이 자못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보며 하는 말이였다. 키가 작고 몸이 뚱뚱한 그는 나와 나이가 비슷하나 1년 먼저 직장에 들어온 선배였다.

아바이에 대한 불만이 나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라 결 알게 되어서인지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웬일인지 반장은 늘 나를 아바이에게 붙여놓았다. ... 한번은 아바이가 나에게 뿔프의 기름을 교체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손에는 물론 팔굽과 지어 얼굴에까지 기름을 묻히며 돌아갔다. 내가 기름창고에 있는 폐유통에 낡은 기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뿔프옆에 아바이가 서서 기름창고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리 와라.》

그 위압적인 말투에 비위가 상한 나는 스적스적 마지 못해 그리로 다가갔다.

《왜 그래요?》

《이게 뭐냐?》

아바이의 눈길이 가리키는 쪽에 시선을 준 나는 뿔프밑으로 흘러나온 새 기름을 보았다. 지내 많이 넣어 축으로 새여나온것이였다.

아바이가 뭇때문에 그러는지 알만했으나 전부터 달갑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다가 온통 기름칠을 해가며 일하는 수고는 아랑곳않고 욕만 하는데 대한 반감을 누를수 없어 나는 일부러 원새끼

를 꼬았다.

《기름을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했는데 어쨌단 말이예요?》

《교체하라구 해서 교체했다?》

아바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내 말을 되뇌었다.

《갈아넣었으면 새두 일없구 넘어나도 일없어? 년 눈두 없구 머리로 없니?》

쩍하면 머리가 없는가 하는 소리다. 도대체 아바이는 얼마나 머리를 잘 써서 그러는지 알수 없었다.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뿜쳐대는 아바이의 불이 푸들푸들 떨렸다. 아바이가 그렇게까지 성을 낼 줄 몰랐던 나는 저으기 당황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많이 넣는게 안넣는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앞으로 고치자요.》

《앞으로 고쳐? 여기 흘러나가는건 어떡허구? 이너석아, 기름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줄 알아?》

이윽해서 내가 기름창고에 쇠를 채우고 보수반으로 가려고 표백실출입문으로 나오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던 성찬이가 나를 보고 히죽이 웃는 것이었다.

《안하면 안한대, 하면 또 잘못된대. 힘들지? 하하.》

아바이에게서 욕을 먹는걸 본 모양이었다.

《헛참.》 하고 나도 웃고말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아바이가 원망스럽고 그밑에서 주접이 드는것같은 자신이 불만스러웠으며 아바이밑에서 계속 일해야 할 앞날이 아득하였다.

나도 성찬이처럼 《외교》에 능했다면 혹시 아바이에게서 이런 《대접》을 안받았을런지도 몰랐다.

성찬이는 누구앞에서나 비위를 맞출줄 알았다.

나는 성찬이처럼 할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겉으론 웃으며 속으로 욕을 하는 그런 량면술은 내 성미에 맞지 않았다.

허나 어쨌든 그는 로동생활에 대해 제판의 일가견도 있는 1년선배였다.

언젠가 나는 그와 함께 염소공급계통을 검토할 과업을 받았었다. 아바이가 대휴여서 성찬이가 조장격이 되었다.

우리는 염소가사탕과 관들, 발브들을 쭉 훑어나갔다. 시약종이를 가져다대며 검토해보았으나 가스가 새는데는 한군데도 없었다.

《다 정상이야. 가자구.》

성찬이가 만족해서 말하였다.

일이 너무 쉽게 끝나는게 미타하여 나는 물었다.

《그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서 되나?》

《눈으로, 코로, 화학시약으로 다 봤는데 뭘 그래?》 하고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우리 과업은 보수가 아니라 검토란 말이야. 년 잘 모를수 있는데 검토는 이렇게 하는거야.》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1년차이가 역시 무시할수 없는거구나. 하지만 남아있는 의문을 깨끗이 풀고싶어 다시 물었다.

《거 뭐 바킹을 교체하거나 후란찌를 다시 조여주지 않아도 되니?》

그는 빙그레 웃으며 주먹으로 내 잔등을 톡 쳤다.

《여, 년 생긴건 그렇지 않은데 잔근심이 많구나. 현실적으로 새는데가 없지? 그럼 땀지 뭘 그래,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그런건 다 반장이나 직장장이 생각할거야. 괜히 직장장이 있고 반장이 있는줄 알아? 우린 그저 하라는데로 하면 돼…》

선배연한 그의 말에 나는 어정쩡하게 머리를 끄덕이고말았다.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어느날 직장에선 표백실의 일부 설비를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는 시간을 다투는 것이어서 저녁에 젊은측들은 모조리 거기에 동원되었다. 늦게까지 함마질을 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나는 시내의 반대쪽 변두리에 있는 집에까지 걸어갈 일이 난감하였다. 모든것이 잠든듯한 깊은 밤이었던것이다. 예라, 휴계실에서 자자. 아침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 되지.

나는 휴계실로 들어갔다. 훈훈한 공기속에 싸이자 인차 졸음이 밀려왔다.

《광- 짜르릉.》

요란한 진동소리에 나는 잠을 깨었다. 눈을 떠보니 굵은 비방울들이 창유리를 맹렬히 두드리고 있었다. 또다시 울리는 천둥소리…

눈을 감으려던 나는 다시 눈을 번쩍 떴다. 낮에 아바이와 함께 실어온 새 전동기 두대가 비에 젖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던것이다. 표백실출입문가에 놓아둔 전동기… 뿌려치는 비에 흠뻑 젖는 전동기가 보여왔다. 아바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지나갔다. 써보지도 못하고 젖어 못쓰게 되는 전동기! 바로 나때문에… 만약 아바이가 지금 직장에 있다면 벌써 전동기를 옮겨놓던지 대책을 세웠을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신발을 신고 휴계실을 나섰다.

어둠속에 쏟아지는 비소리는 듣기만 해도 온몸이 젖는것 같았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총알같이 뛰어나갔다. 불과 20여미터의 거리건만 표백실안에 들어서니 목덜미로 비물이 찰찰 흘러내렸다.

문열에 놓인 커다란 전동기가 뿌연 전등불빛에 번쩍거렸다.

아니나다를가 비가 휘뿌려져 들어오고있었다. 손을 대보니 벌써 전동기의 한쪽 측면이 젖어있었다.

아무리 둘러봐야 배관과 기대들때문에 전동기를 더 깊숙이 옮겨놓을 자리가 없었다. 통로 가운데로 끌어다놓으면 안전하겠지만 그것은 힘에 부쳤다. 어떻게 할가, 비닐박막이나 헬트지라도 있으면 씌워놓겠는데... 헬트지?

설비개조공사용 세멘트를 넣은 창고가 머리속에 언뜻 떠올랐다.

헬트지를 두텁게 씌운 지붕! 직장장은 한방울의 비도 새어들어가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한통구리의 헬트지를 덧씌워놓았었다. 덧씌운 그 헬트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을 벗겨도 비는 안셀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장담할수 있었다. 그 지붕공사를 내 손으로 직접 했으니까...

나는 다시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침내 전동기들을 헬트지로 감싸놓고나니 우물우물 떨리는 속에서도 담배생각이 몹시 났다. 주머니속의 담배는 이미 문적문적해졌었다. 3층의 설비개조전투장에서 쿵쿵 들려오는 함마소리가 담배를 피우러오라고 나를 부르는것 같았다.

나는 3층으로 올라갔다.

《여, 졸딱 젖어가지구 어릴 잣다오는 길이야?》 성찬이가 반갑다는듯이 히죽거리며 말을 걸었다.

나는 벌써 웃으며 거드름스레 대꾸했다.

《전투를 하는데 잠을 잘수 있는가, 혁신해야지.》

《그래? 그럼 여기 와서 함마질을 좀 하라구.》

《이 사람, 혁신자에게 담배부터 권해야지, 인사도 몰라.》

담배를 한대 받아든 나는 슬머시 좌우를 살펴 보았다. 누군가 구석에서 《쪼쪼만놈이 벌써!》하고 버럭 고함을 지를가봐서였다.

성찬이 웃으며 안심시키듯 말하는것이였다.

《일없어, 너도 인젠 어른인데 뭘 그래.》

탐스레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며 서있노라니 자기가 이제 정말 나무랄데 없는 로동계급이 된것 같았다.

함마를 몇번 휘두른 나는 담배 한대를 더 얻어가지고 휴게실로 내려왔다.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고나니 어느덧 회회시간이 되였었다. 나는 부랴부랴 작업반실로 뛰어갔다.

《어제밤에 세멘트창고지붕의 헬트지를 벗긴 사람이 누구요?》

직장장이 엄엄하게 굳어진 얼굴로 방안을 둘러 보며 물었다.

모두 서로 쳐다보기만 할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머뭇머뭇 일어서자 직장장의 눈에 날이 섰다.

《왜 벗겼소?》

《전동기가 젖을가봐...》

《뭘? 세멘트는 젖어도 되오?》

《...》

《시키는 일이나 똑똑히 하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며 일을 망가뜨리는 동무같은 사람이 문제요.》

직장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동기가 젖는건 알면서 세멘트가 젖는건 모르는가. 전동기는 말리워 쓸수 있지만 세멘트는 한번 굳어지면 다란 말이요. 다행히도 비가 새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직장장은 더 말하지 않았다. 허나 그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응당했을수도 있는 그 말들이 나에겐 가시처럼 걸려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다.

나로선 량심껏 하느라고 한 일이었다. 헌데 그 일이 대중앞에서 비판을 받게 되는것일줄이야.

조회가 끝난후 아버이가 직장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걸 보며 나는 똥어번지는 마음을 안고 계단을 내려왔다. 아버이가 직장장에게 무슨 말을 할가. 그래도 내 편역을 들어 한마디 하지 않을까.

얼마후에야 아버이가 휴게실로 들어왔는데 그날 따라 별로 얼굴의 주름살이 퍼진것 같았다.

아버이는 세상 너그럽고 리해력이 풍부한듯이 나에게 타일렸다.

《직장장은 세멘트가 젖을가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교양하기 위해서 한마디 한거야.》

나를 리해해주는것 같으면서도 직장장의 편을 드는 그 말에 나는 더욱 속이 꼬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제밤 헬트지로 전동기를 덮어놓은 나의 행동이 칭찬을 바라서 한것은 아니였지만 응당 평가 받을만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아버이가 직장장의 언사에 격분할 대신 은근히 직장장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니 패씹하여 견딜수 없었다.

《그렇다고 밥을 안먹으면 되나?》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사뭇 걱정어린 어조로 말하며 자기의 점심밥팩을 내미는 아버이가 어찌나 밍살즈러워보이던지 밥팩을 든 그의 손을 탁쳐버리고싶은 심정이였다. 굶으면 굶었지 아버이의 밥을 먹을 내가 아니였다. 나는 보란듯이 일부러 성찬의 점심밥을 덜어 대충 요기를 하였다. 그러는 나를 보고 서운해하는 아버이의 표정

이 나의 마음에 약간의 온기를 주었으나 그만한 것으로 문문해질 내가 아니었다.

그날 내가 심술을 부리며 엇드레질을 해도 아바이는 전에없이 관대한 태도로 대해주었다. 그것도 나의 비위엔 거슬렀다. 나의 감정, 나의 불쾌감이 그에게 아무런 자극도 못줄만큼 하찮은것이란 말인가. 나를 아예 무시해버리는건가.

나는 그날 반장에게 아바이 아닌 다른 기능공과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청을 하였다.

《왜?... 아바이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대구 그래. 꼭 참고 따라다녀봐라. 공장적으로 그 아바이만한 기능공이 없어. 아바이가 널 붙여달라고 한건데...》

반장은 아바이에 대해 생각해주는게 많았다. 아바이의 년세가 룩십에 이르렀고 한때 자기에게 일을 배워준 선배라고 해서인지 누구보다 깍듯이 레의를 차렸고 이모저모로 편의를 봐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바이는 반장의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는것 같지 않았다. 고맙기는커녕 반장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오늘아침 작업반조회때의 일이다. 제기된 일감이 너무 많아서인지 모두들 무거운 얼굴들이었다.

과연 그걸 다 해낼수 있을까.

아바이의 정기있는 눈은 여느때처럼 우울하게 책상위의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다.

작업조직이 끝나자 모두 술렁거리며 하나, 둘 밖으로 나갔다.

작업용장갑을 집느라고 그냥 앉아있던 나와 무엇때문인지 꾸물거리며 일어나지 않는 성찬이 그리고 반장과 아바이만 남았을 때였다. 반장이 옷장문을 닫고 나가려하자 그때까지 이마살을 찌프린채 담배를 쏜 물주리를 빨고있던 아바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반장, 그것들이 다 오늘 해야 할 과제인가?》

우물우물 나오는 크지 않은 목소리였으나 그 말엔 그저 스쳐버릴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왜요? 아바이야 그닥 바쁘지 않겠는데요.》

의아히 돌아보는 반장의 눈에 알릴듯말듯 긴장한 빛이 떠돌았다.

아바이는 담배불이 꺼졌는지 언저퍼 빨아보다가 물주리를 입에서 뱉고 한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성찬이가 제격 빨라지를 썩은 노란 담배곽을 내밀었는데 길다란 러과담배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왔다. 아바이가 담배 한대를 쥐자 성찬이는 얼른 라이타불을 켜댔다. 언제나 눈치빠른 성찬이었다. 그는 적절한 기회에 자기를 나타낼줄 알았다. 누구나 그를 레절있고 앓을 자리, 설자리를 안다고 칭찬하지만 아바이만은 별로 시답게 여기

는것 같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처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뿐이다.

아바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네. 작업반을 놓고 하는 말이지. 반장은 하루 시간과 작업량을 타산해봤나?》

반장은 허거운 웃음을 웃었다.

《허, 타산이라니요, 무조건 해야지요.》

《무조건?...》 아바이는 후 한숨을 내쉬었다.

《말은 좋네만 실천이 문제거든.》

반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힘껏 하다 못하면 할수 없지만 하는껏 해야지요.》

《하다 못하면... 그래두 되는가?》

반장의 얼굴이 불그레 달아올랐다.

《오늘 못하면 래일 하구... 그런 일본새론 아무일도 못하네. 일할 재미두 없구... 일감을 푹푹히 주어야지.》

《아바인 참...》 반장은 안타까운듯 어성을 높였다. 《이건 직장장의 지시란 말입니다. 지시를 받으면 받은대로 내밀어야지 별수 있습니까?》

《지시하는 사람뿐아니라 지시받는 사람두 머리를 써야 하지 않겠나.》

반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허나 자제하는듯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아바이가 반장자리에 앉아보시우. 별수 있는가.》

《흞, 자넨 아직 로동계급이 될려면 멀었어.》

반장은 어이가 없는지 그만 웃었다.

《허참... 아바이, 오늘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일하자는데 당에서 하라면 백가지, 천가지라두 하는게 옳지. 무슨 말이 그리 많습니까?》

《함부루 당의 이름을 외우지 말게. 당에선 자네처럼 일하라는게 아니야.》 마디마디 그루를 박는 아바이의 준철한 음성이었다. 《일을 하려면 타산을 하고 방도를 찾아야지. 한가질 해두 잘해야 하구... 머리를 쓰지 않군 백가질 하려다가 한가지두 제대루 못해.》

아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아바이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성찬이가 구석에서 중얼거리었다.

《늬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아바이가 문가에 주춤 멈추어섰다. 허나 머리를 흔들었을뿐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반장이 험상궂은 시선을 성찬에게 던지었다. 하지만 그도 아무말 않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문앞에서 발을 멈추고 크진 않으나 다치면 터질듯 팽팽한 음성으로 한마디 던졌다.

《여기 증관해서 앉아있지 말구 빨리 작업장으로 가거라.》



나는 장갑과 모자를 들고 일어섰다. 성찬이도 내 뒤를 따랐다.

작업반장의 조직사업에 대한 아버지의 불만이 이해되긴 했으나 반장에게 너무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했다. 그래도 아버지를 제일 위해주는 사람이 반장인데...

아버지가 반장에게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만 오늘처럼 땀짜게 말한 적은 있는것 같지 않았다. 반장이 하도 성미를 죽였으니 망정이지 나는 속으로 얼마나 아파 아파했는지 모른다. 어제처럼 일이 번져질기봐...

작업장에 나오니 아버지가 공구함을 열어놓고 그앞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구부정한 잔등과 홀쭉 꺼진 볼편이며 이마와 입가에 패인 주름들이 별로 측은하게 안겨왔다.

이제는 손자들의 재롱속에 만시름을 잊어야 할 년세이건만 가슴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괴로움을 안고 언제 한번 마음편히 지내지 못하는 아버지였다. 남들이 스쳐지나가는 모든 일에 다 참견하고 그때문에 때로 불쾌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러지 않고는 못건디는 아버지였다.

집에 들어가 눈에 거슬리는 일들을 안보면 마음이 편안할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에 아직까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지 알수 없었다.

어제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

어제 공장회관에서선 새로 나온 영화를 돌렸었다. 마침 현행보수도 별로 제기되는게 없어서 퇴근시간이 되기전부터 나의 마음은 등 떠있었다.

교대시간이 거의 되어 아버지는 표백실을 한번 더 돌아보자고 하였다.

표백실 3층에 올라가니 처녀 셋이 헤덤비며 바닥에 깔린 원료를 물로 씻어내고있었다. 원료출구통이 메여 났는지... 하얗게 표백된 원료였다. 한두공정만 거치면 질 좋은 스프로 될수 있는 원료였다.

《야, 정신들 있어?》

별안간 현장이 찌렁찌렁 울리는 고함소리에 처녀들은 와뜰 놀라 얼굴을 돌렸다. 나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의 움푹 꺼진 눈이 이글이글 타는것 같았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대답대신 아버지는 호스를 련결한 물관을 향해 걸어가더니 발브를 꼭 막아버렸다.

《씻어버리지 말고 그릇을 가져다 담아라!》

처녀들은 서로 마주보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우리 반장이 빨리 물로 싸버리라고 했어요.》

그중 한 처녀가 용기를 내어 말하였다.

《누가 이 원료를 압록강에 넣으라구 해? 정신들을 다 압록강에 흘려보냈나?》

누구도 대답을 못했다.

《명철이, 그릇을 가져다 어서 퍼담거라.》

아버지가 안타까운듯 나에게 하는 말이였다.

나는 눈살을 찌프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서 지체되는 한초한초가 내 마음을 꼬다리초처럼 태우고있었다. 이거야 표백공들에게 시켜야지 보수공이 해줄게 있는가. 영화시간이 다 되여오는데... 웬만한건 못본척하고 지나칠거지, 아바인 그저 일감을 만든다니까.

못마땅한 눈으로 처녀들을 흘겨보는데 불쑥 반장이 나타났다. 총화가 끝나 보수반으로 가던 길에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웨침소리를 듣고 올라온 모양이였다.

《아바인, 뻘수다. 거 뭐 철없는 체네들을 보구... 가들두 자기네 반장이 시켜서 하는건데... 남의 직업반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실망어린 눈으로 반장을 쳐다보는 그의 목젖이 급하게 오르내릴 뿐 한순간 입을 벌리지 못했다. 얼마후에야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자넨 이 원료가 아깝지 않나? 남의 작업반? 자넨 이 직장사람이 아닌가?》

반장의 얼굴이 벌개지였다. 이마살이 찌프려졌다.

《아바인, 공장간부들이 이걸 보면 그래 우리 직장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럼 욕이 두려워서... 나라에 손해를 줘?》

반장의 눈에서 불씨가 튀겼다. 표백공처녀들앞에서 공박을 당하는게 참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뇌까렸다.

《정 그러면 아버지가 담아보구려.》

분격한 눈길로 반장을 쳐다보던 아버지가 《내가 하지!》 하고 공구들을 놓고 비자루를 쥐었다. 내가 그 비자루를 뺏어들었다. 놀라운 일이였다. 방금전까지 아버지를 못마땅해하던 내가 그 순간 어떻게 되여 아버지를 옹호하고싶어졌는지...

그 모양을 지켜보고있던 반장이 이그러진 얼굴로 처녀들에게 소리쳤다.

《뭘하고 섰어? 빨리 표백조에 퍼넣지 않구?》

처녀들이 내게서 비자루를 뺏어들었다.

《됐어요. 명철동무, 아버지, 우리가 해요.》

반장은 어느새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우울한 얼굴로 처녀들이 원료를 모아 표백조에 다시 넣는것을 지켜보고있었다.

《아바인, 감시다.》 내가 말했다.

×

공구함앞에 서있는 아버지의 별로 늙어보이는 모습에서 나는 어제의 그 괴로와하는 모습을 보는것 같았다. 빨리 퇴직하여 평양에서 큰별을 달고 있다는 아들을 따라가면 아버지도 편안하시겠는데 그러누나싶었다.

하루종일 우리는 팽이처럼 돌아쳤다.

아바이가 말은 일감만이면 쉬엄쉬엄 해도 되겠으나 아바이는 원래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미가 아니었다.

선별실에서 일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출입문으로 한 표백공처녀가 뛰어들었다. 《아바이, 뽕프를 봐주세요. 빨리. 원료를 짜넘겨야겠는데…》

표백조의 원료를 미처뽑지 못해 생산을 멈추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리였다. 련속공정인만큼 한 공정이 멎거나 지체되면 다른 공정들이 다 멎게 되는것이다.

당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받들고 천생산때문에 상급기관의 일꾼들이 내려와 산다는것을 나도 알고있었다. 방직공장들에서 천을 짜려면 우리 공장에서 스프를 보내주어야 한다. 당의 경제전략관철에서 우리 공장은 중요한 선행부문이었다.

아바이는 묵묵히 손에 묻은 기름을 닦을뿐 돌아 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아바이의 태도에 무안을 느꼈는지 처녀는 나를 돌아보며 어줍게 웃었다.

《왜?》 내가 물었다.

《뽕프가 빨지두 못하구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바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부속때문일것이다. 분명 메달이 아니면 베아링이 녹았겠는데, 만약 메달이라면 예비부속을 다 써버려 새로 깎아와야만 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최소한 서너시간이라도 생산을 멈춰야 한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긴급한 스프생산과 관련하여 한시간만 생산이 멎어도 온 공장이 떠들것이다. 팔프직장이 걸렸다고…

아바이는 천천히 손의 기름을 종이로 닦고나서 공구들을 집어들었다.

어둑컴컴한 표백실하층에 들어서니 둔중하게 울리는 요란한 동음속에 무언가 굽히는듯 덜거덕거리는 뽕프의 비명이 귀아프게 들려왔다.

《멈춰!》

아바이가 처녀에게 소리쳤다.

《메달이 녹았지요?》

뽕프가 멎고 귀아픈 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 때 내가 물었다. 아바이는 못들듯 묵묵히 뽕프만 내려다볼뿐이었다. 알만한 일이었다. 교체할 부속이 없는것이다. 설비관리원이란 녀석이 석달분 예비가 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며칠만에 밀창이 날질 가지고… 하긴 요새처럼 뽕프메달을 많이 교체한적은 있는것 같지 않았다.

이윽고 아바이는 꿇어앉아 볼트들을 풀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대로는 돌릴수 없는것이니까… 나도 같이 스파나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바이가 무슨 수를 생각해내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윽고 뽕프를 다 분해해놓고 깨어진 메달을 뽕느라 씹씹거리는데 뒤에서 《아바이》 하는 높

은 목청이 기계의 동음을 누르고 날아들었다. 선별공처녀의 목소리였다.

《직장장동지가 찾아요. 사무실로 오시래요. 기자가 왔대요.》

아바이는 들은척 않고 공공거리며 모서리가 깨여진 메달을 뽕아냈다.

《힘하게 됐군.》

《아바이, 빨리 오세요.》

처녀는 다짐하듯 한마디 던지고 쏘르르 달려갔다.

《아바이, 가보시래요. 찾는다는데…》

그는 대답대신 공구들을 모아쥐고 한마디 던졌다.

《가자.》

회류기의 요란한 동음때문에 나는 그 말을 알아 들었대기보다 짐작으로 알아맞혔다.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던 나는 그가 사무실이 아니라 표백실계단으로 오르는걸 보고 기계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섰다. 어디로 가자는걸까.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다. 3층계단 옆 조작실 앞에 표백공처녀들이모여서서 뭐가 좋은지 깔깔거리고있었다.

생산이 당장 멎게 되었는데 뭐가 좋아서 저러는가. 나는 못마땅한 눈길로 그쪽을 일별하고 아바이를 따라 제지염소탑을 향해 걸어갔다.

아바이는 시꺼먼 원통형의 웅건한 염소탑앞에 웅크리고 누운 자그마한 뽕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 뽕프는 현재 쓰지 않고있는 예비였다.

그때 호리호리한 선별공처녀가 우리앞에 다시 나타났다.

《아바이, 여기 와계시면 어떻게 해요? 직장장동지가 기다리시는데… 빨리 오시래요.》, 《이걸 해체해야겠어.》

뽕프를 내려다보며 아바이가 하는 말이였다.

《여기 메달을 쓰자구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두 될가요? 깎아와야지…》

《어느 세월에 깎아와? 당장 생산이 급한데…》

하긴 우선 생산을 보장해놓고 봐야 할 일이였다.

《내 갔다오겠는데… 뜯으라구.》 하고나서 아바이는 처녀와 함께 가버렸다.

나는 뽕프를 내려다보며 멍히 서있었다. 선뜻 스파나를 뽕프에 가져다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언가 목직한것이 가슴에 걸려 손발을 얹어매는것 같았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당장 생산이 걸렸는데… 아바이는 이걸 해체하라고 말했다!

《뜯으라구!》 하던 아바이의 말이 귀전에 다시 들려왔다. 아바이인들 성성한 뽕프를 해체하고싶었겠는가.

나는 마침내 스파나로 볼트대가리를 잡고 힘을 주었다. 딱 채워진 볼트는 마치 풀리지 않으려

고 안간힘을 쓰는것 같았다. 그러다 결국 뿅- 새  
된 소리를 지르며 움직일 때 그것은 자기를 분해  
하면 안된다고 하소연하는것 같았다. 아무래도  
여기의것을 뿜으면 안되겠어. 아바이에게 말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나는 조용히 스파나를 놓고말았다.

아바이는 오지 않았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썩-악》 하고  
증기분배실에서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초조하게  
들려왔다. 증가가 남아 뿜아버리는 소리였다. 허  
나 실지 증기가 남는것인가. 아니었다. 우리 직  
장에서 설비를 만가동시키지 못하기에 증기가 저  
쓰일때 쓰이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아나버리는것  
이었다.

초조한 눈길로 두리번두리번 현장을 살펴봤으  
나 조작반옆에서 재잘거리는 처녀들뿐 아무도 보  
이지 않았다.

뿜프를 분해해야 할가. 아니, 안돼. 그럼 어떻  
게 해야 하는가.

아직까지 뿜프를 해체하지 않고있다고 눈을 부  
릅뜨는 아바이의 얼굴이 보여왔다. 우리 작장때  
문에 공장의 생산이 멎을수 있었다.

속에서 불이 일어 그자리에 앉아있을수 없었다.

벌떡 일어서 성큼성큼 처녀들옆을 지나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그들의 목소리를 귀박으로 흘  
리며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밖에 나서니 습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얼굴을  
갈겼다. 몸이 으시시 떨렸다.

보수반으로 뛰어간 나는 곧장 부속품창고로 들  
어갔다. 어둡시근한 창고의 랑쪽벽을 따라 질서  
있게 쌓아놓은 갖가지 부속들이 희미한 광선속에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아무리 살펴보고 뒤져봐  
도 내가 찾는 메달은 없었다. 하긴 여기에 그것  
이 있었다면 아바이가 예비뿜프를 뜯자고 했겠는  
가.

얼마후 나는 맥없이 부속품창고에서 나왔다.

《어디서 메달을 본게 없나?》

보수작업장에서 무언가 만들던 성찬에게 혹시  
나하여 물어보았다.

《없어.》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위로하듯 부언  
하는것이였다. 《아마 래일쯤엔 꺾아올거야.》

《래일이 뭐야, 당장 없어 그러는데. 아바이인 예  
비뿜프의것이라도 뿜아쓰자는데 그거야 차마...》

《아바이가 뿜아쓰라면 뿜아쓸거지, 별걸 다 격  
정한다야.》 성찬은 한심하다는듯 나를 보며 혼시  
를 하는것이였다. 《로동자란 그저 시키는대로 하  
면 되는거야. 너두 참...》

시키는대로 한다구? 로보트가 아닌 사람이 어  
떻게 좋건 나쁘건 시키는대로만 하겠는가. 그럴  
수 없는게 또 그러지 말아야 하는게 인간이 아닐  
가.

나는 묵묵히 밖으로 나왔다. (정말 이젠 뿜프  
를 뜯어야 하겠구나. 어쩔수 없이...)

터벅터벅 표백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며칠전 다른 뿜프를 수리  
하면서 아직 쓸수 있는 메달을 아예 새것으로 교  
체하자고 뿜아놓은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나는  
다시 보수작업장으로 뛰어들어갔다. 낡은 부속  
들속에서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을 때 나는 환성  
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왜 아까 그 생각  
을 못했는지 이상할 지경이였다.

이것이면 당장은 생산을 보장할수 있다. 새 메  
달을 꺾아온 다음 교체하면 될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급히 표백실하층으로 돌아  
왔다. 혼자 메달을 맞추느라 애쓰는데 머리우에  
서 인기척이 났다.

올려다보니 아바이가 서있었다.

《여기서 뭘해?》

그닥 높지는 않으나 불만이 압축된, 우뢰소리  
를 배태한 웅글은 음성이였다. 당장 노성이 터져  
나올것 같았다. 3층에 갔다가 뿜프는 그대로 있  
고 나는 없으니 성이 독같이 났을것이였다. 그래  
도 전처럼 고향을 지르지는 않았다. 내가 뭔가  
하고있는걸 봐서인지...

《메달을 조립해요.》

《메달? 메달이 어디서 났니?》

그는 뜻밖인듯 눈을 크게 뜨고 뿜프옆에 바싹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는  
지 그는 손을 내밀어 메달을 만져보는것이였다.

《어디 있던거냐?》

《낡은 부속들속에서 골라냈어요. 며칠전에 뿜  
아놓은건데 아직 쓸수 있을것 같아서... 3층예비  
뿜프를 뜯었다가 갑자기 그걸 돌려야 한다면 어  
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며 나는 아바이의 눈치를 살폈다.  
아바이가 《이건 못써.》 할가봐 겁이 났던것이다.  
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뿜프를 조립하였다.

이윽고 뿜프가 경쾌한 음향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 아바이는 기름묻은 손을 걸레로 닦으며 나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전에 보지 못한 흐뭇한 웃  
음이였다. 아니,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만족해하는... 내가 세멘트  
창고의 웰트지를 벗겨 전동기에 씌우고 직장장에  
게서 육을 먹었을 때 그때도 아바이는 지금처럼  
만족해했었다. 무엇이 아바이를 만족케 했는지  
나는 아직 알수 없었다. 그러나 아바이가 기뻐하  
는걸 보니 나도 기뻐다. 마치 내가 뿜프를 새로  
만들어내기라도 한것처럼 마음이 붕 떠올랐다.  
지금은 아바이가 더없이 다정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다. 표백 3층에 아직 일  
감이 있었던것이다.

아바이보다 한발 먼저 올라간 나는 코살을 쥔 그렸다.

《왜 이렇게 가스냄새가 나?》

《굴뚝... 원료가 염소를 잘 먹지도 않고... 어디 새지나 않는지...》

기대우에서 내려오던 처녀표백공이 역시 얼굴을 쥔 그리며 근심스레 말했다.

가스냄새가 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다. 나는 미간을 찌프리고 점점 뵈해지는 염소 탭 주변을 바라보았다. 가까이 갈수록 세계 코를 자극하는 냄새... 분명 새는구나.

사고였다!

당장 염소관을 막고 새는 부위를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온 공장이 스프생산때문에 한분한초를 쪼개며 전투를 벌리는 이 시각 감히 생산을 중단시킬수 있는가? 방금전에 아바이는 생산을 멈추지 않기 위해 예비뿔프의 메달까지 뽑자고 하지 않았는가.

생산을 멈추지 않고 새는 부위를 막을수는 없을까? 그래야 한다. 꼭!

《명철동무, 염소발브를 막을까요?》

처녀표백공이 초조히 물었다.

《아니, 나뉘!》

나는 염소탐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비닐관의 끝후란찌에서 노르스름한 김이 알릴듯말듯 뿜어 나오는게 보였다. 구멍이 점점 커지는가?!

그전에 성찬이와 함께 염소탐을 검토할 때 바킹을 교체했어야 하는건데... 때늦은 깨달음이 머리를 때렸다!

저렇게 나오면 순식간에 온 직장과 공장을 오염시킬수 있다.

나는 조작반에 눈을 주었다.

《방독면이 어디 있소?》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까지 갔다올 시간이 없었다. 그 시간이면 온 직장이 숨을 못쉬게 될수 있고 그사이 탭을 통과한 원료는 다 불합격품이 될수 있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였던지, 짧은 혈기로 인해서였던지 그때 나는 염소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없었다. 무작정 염소탐을 향해 내려뛰는데 《명철이!》하는 위압적인 웨침소리가 내 뒤덜미를 덮쳤다.

나는 주춤 멈춰서며 돌아보았다.

아바이의 부릅뜬 눈이 나를 쏘아보고있었다.

《방독면을 가져와! 빨리!》

《일없어요.》하고 다시 내달리려는데 아바이의 억센 손이 내 팔을 꼭 움켜잡았다. 뒤미처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울렸다.

《죽자고 그래? 빨리!》

그 순간 나는 정말 저 가스속에서 방독면 없이는 견딜수 없다는걸 깨달았다.

나는 계단을 단번에 서너개씩 건너뛰며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무실에 이르렀다. 숨이 턱에 닿고 목에서 단내가 났으나 방독면을 움켜쥐고 직장장의 놀란 목소리를 등뒤에 들으며 《가스가 새요.》하고 한다미 던진후 다시 내달렸다. 3층으로 올라가며 방독면을 썼다. 곧바로 염소탐우를 향해 라선형계단을 날듯이 뛰어올랐다.

탐우에 뛰어오른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바이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후란찌를 조이고있었던것이다.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내가 빨리 오지 못해서, 더 기다릴수 없어서 아바이가 방독면도 없이 올라왔구나. 죄스러움에 심장이 졸아들었다.

《내려가라요. 아바이. 빨리...》

아바이는 머리를 끄덕이고 손짓을 했다. 다 됐으니 함께 내려가자는 뜻이었다.

나는 아바이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하고 관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독면을 쓴 나는 바쁘지 않았던것이다. 혹시 다른데도 미흡한데가 없는지...

그때였다. 밑에서 갑자기 통탕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딥고선 철판이 움쉴움쉴 흔들렸다. 처녀의 아츠러운 비명! 심장이 똑 떨어져내리는 것 같았다. 책 머리를 돌린 나는 일순 호흡이 딱 멎어버렸다. 아바이가 경사급한 계단으로 나무통처럼 굴러내려가고있었던것이다. 가스에 질식된것이였다.

그것은 나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표백공들이 아우성치며 달려오고 직장장이 뛰어왔다.

얼마후 지배인의 승용차가 아바이를 싣고 병원으로 질주하였다.

하얀 배기가스를 흘날리며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바라우면서 직장장 도로우에 멍하니 서있던 나는 일을 마저 하기 위해 표백3층으로 스적스적 올라 갔다.

나때문에 아바이가 그렇게 되였다는 생각이 가슴을 물어뜯었다. 그전날 염소관을 검토하면서 성찬이가 필요없다고 했어도 기어이 후란찌를 살펴봐야 했을걸. 오늘뿐아니라 래일도 끄떡없도록 해놓았어야 하는건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이였다. 아바이가 나를 붙잡았을 때 뿌리치고 올라갔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러자 불쑥 뜻하지 않았던 의혹이 머리를 쳐들었다. 탐우에 올라가면 질식되리란걸 아바이는 알고있었다. 《죽자고 그래?》하던 그의 웨침소리가 귀전에 계속 광광 울려왔다. 그러던 그가 방독면을 가져오길 기다리지 못하고 올라갔다! 아니, 기다리지 않았었다. 그사이에 그가 후란찌

를 다 조인걸 보면 나를 보낸 즉시 올라간것이였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걸 그는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아버이는 왜 나를 방독면 가지러 보냈는가?

나는 그만 선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그 거칠고 과격한 언행의 뒤에 숨어있는 뜨거운 사랑이, 그것을 때늦게 발견한 놀라움이 나를 멍청하게 만들었던것이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던 아버이의 그 사랑을 나는 왜 여태 모르고 지냈는가. 그에게 불만을 품어온 지난날을,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정함을 나는 용서할수 없었다.

고르로운 기대들의 동음이 너무도 태평스럽게 들려왔다. 아버이의 피가 스민 정상적인 생산의 동음이였다.

×

입원실에는 직장장과 부문당비서가 와있었다.

반원들과 함께 들어서는 나를 보자 아버이의 눈에 미소가 어리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불시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와 나는 고개를 숙이였다.

《아버이, 의사도 절대안정을 요구하는데 이젠 이 젊은이들에게 말기고 꼭 쉬십시오.》하는 직장장의 말에 아버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꾸하였다.

《예, 쉬겠습니다. 애들이 이젠 나보다 나은걸요.》

하루밤사이애 폴짝 늙어버린듯한 아버이, 간신히 들리는 가느다란 거센 목소리, 아버이는 손짓으로 나를 불러 자기옆에 앉히였다. 나를 바라보는 그 정에 찬 간절한 눈빛에 나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며 목이 짝 잡혀들었다.

부문당비서는 서글픈 눈길로 아버이를 바라보면서 알릴듯말듯 머리를 저었다.

《아버이는 그저 옆에서 지도나 해야지... 그제웁니까? 아직 20대인줄 아십니까? 게다가 방독면도 없이 그 가스속에...》하고 말을 끊었다가 《아버이같은 로세대를 당에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같은분이 쓰러지면 누구보다도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십니다.》했다.

아버이는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비서동무, 내 이젠 마음을 놓수다. 이 명철이같은 애들이 있어서... 기동감이웨다.》

모두의 눈길이 나에게 쏠렸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놀라움과 호기심에 찬 눈들이였다. 나는 그만 당황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작업반에서 제일 어린 애송이를 기동감이라니, 성찬이처럼

비위도 맞출줄 모르고 아버이의 그 진정도 반 아들일줄 몰랐던 나를, 오늘같은 사고를 낸 나를...

《거 창조라고 하던가 그런게 애에게 있거든요. 로동계급의 머리가 있단 말이웨다.》

아버이는 힘들게 숨을 뽑아쉬고 쉬엄쉬엄 말을 이었다. 《로동자란 잘되든 못되든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로동계급이라고 해서 자기의 본분을 누구나 아는게 아니더군요. ...

명철이같이 제 머리를 가지고 창조할줄 아는 사람이 진짜배기 로동계급이지요.》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진짜배기 로동계급이라니? 내가 무엇을 창조했단말인가. 나는 발명한것도 없고 연구해낸것도 없다. 그런 내게 문득 어제 뽀프메달을 교체했을 때 만족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던 아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일에는 창조라고 할만한것이 없었지만 거기서 아버이는 그 귀중한 싹을 보았는가. 당과 인민이 바라는것을 위해, 자기 일터의 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해 안타까와하고 머리를 쓰는것, 혹은 그것을 창조의 뿌리라고 할수 있겠는지...

학교를 떠날 때 선생님이 하던 말이 다시 생각났다. 그때 선생님이 하던 《창조자》란 말의 뜻이, 《로동계급》이란 말의 뜻이 오늘 아버이가 말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던지...

불현듯 나는 아버이가 바라는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안타까와하고 또 불만스러워하던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것 같았다.

륙십나이가 된 오늘까지 아버이가 무엇때문에 피로와했고 무엇을 간절히 열망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마음을 놓고 쉬겠다고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자신의 그 간절한 뜻이 실현되길 바라며 그 뜻을 꽃피울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주저없이 내던 아버이였다. 아, 아버지...

아버이의 그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수 있겠는지 나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보답하기 위해 나는 모든것을 다하리라.

아버이의 얼굴에 깊이 패인 그 주름살 하나하나를 나는 숭엄한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그토록 원망스럽기만 하던 아버이의 얼굴이 오늘은 이토록 훌륭하고 귀중하게 안겨오는것이 스스로 놀라우면서도 그것을 의식하는것이 기쁘고 환희로움을 어찌할수 없었다.



시조

## 인간사랑의 화폭속에

윤경주

### 심장이 다시 뛴다

심장이 다시 뛴다  
로를 구원한 영웅청년의 몸에서  
뜨거운 피  
삶이  
온몸에 물결친다

이 순간을 위해 바쳐진  
동지들의 피  
뼈와 살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소생전투  
눈물없이  
볼수도, 들을수도 없는 인간사랑의 화폭들...

땅우에선  
강력한 의료진이 무어지고  
하늘에선  
은빛날개가 펼쳐지고  
전파가 날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늘과 땅  
이웃과 동지들  
일터와 집단이  
온 나라가 들끓고

아, 당중앙이 지켜보던 력사의 순간이여

이렇게 소생되었다  
어제는 외진 섬마을 등대지기 로인이  
오늘은 용해장의 한 청년이  
진정 생이란  
부모가 준것이라

나는 그가 살았다는 보고보다도  
심장이 뛰는 소릴 더 듣고싶다고  
수화기를 심장 가까이에 대라신  
우리의 김정일동지

아 그 순간  
고동친다 한 심장이 아닌  
천만의 심장이

뜨거운 피  
삶이

축복받은 래일이  
온몸에 물결친다  
위대한 심장에 숨결을 잇고...

### 회진길

내 지금 회진길을 걷노라  
산뜻한 위생복  
상쾌한 마음...  
발걸음 저절로 가벼워지는  
이런 날 이런 때는 정말 좋구나

호실마다 넘쳐나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렇게 몸이 튼튼해지니  
마음도 젊어져  
퇴원하면 령감님과 산보도 하고  
현대식으로 《련애》도 해보겠다는  
함경도 할머니의 결산 룡말...

기쁘구나  
어제는 이 길에서  
강선의 용해공을 로앞에 세웠고

그전날엔  
먼바다 어로공을 배웅하였노라  
오늘은  
저 금당벌의 농장원이  
정든 고향땅  
땀흘려 가꾼 벌에 다시 서게 되리니

힘겨웠고  
남모르는 속도 많이 태웠노라  
치료전을 벌리던 그 나날  
레사롭던 날의  
정다운 별빛도  
창가에 싱싱한 잎새들의 설레임도  
그밤엔 얼마나 야속하던지...

아 기쁨과 웃음

행복과 미래를 꽃피우는 회진길  
이 길에 나설 때면  
속삭이듯 안겨오는  
생활의 음향들

붉은 눈이 내린다는 강선땅  
밤노을이 불타는  
어느 집 창가에선  
건강한 남편과 아버지를 보게 되는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 넘쳐나리

넘쳐나리  
먼바다어장에  
만선의 기쁨안은  
어로공의 흐뭇한 미소가

이제 문덕의 농장원도

벼이삭 물결치는 논둑길을 걸으며  
더덩실 춤을 추리

오 회진길  
풍요한 들길과  
창조의 노래높은 공장구내길과 잇닿아있는 길  
이 길엔 언제나  
해빛넘치는 거리거리  
웃음많은 창들이 활짝 열려있나니

내 걷는 회진길은 길지 않아도  
나는 걷고있다  
이 땅의 모든 생활의 구간을  
건강한 조국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아침도 가고있다  
생활의 음향들이 속삭이는 회진길을...

## 나의 한생

내 잠시 병원을 떠나  
려행길에 오른 그날

달리는 렬차칸  
길손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  
다급히 울리는  
렬차방송원의 목소리

-손님들중에 의사가 있으면  
세번째 객차로 와주세요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산촌의 먼 고향길  
어머니 찾아가는 길  
이 길에서나마  
한갓 렬행의 즐거움만을 안고가던  
그 가슴을 흔드는 그 목소리

의사의 량심을 두드리는 그 부름

아, 이 땅 그 어디에  
내 가있어도  
인민을 위한 성실한 복무  
생명을 지켜선 그 한길에  
때없이 찾는 부름이 있어

즐거운 렬행마저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로 이어간  
참된 길이 있어라

내 잠시 뜰수도  
비울수도 없는 의사의 직무  
아 그 모든 생명과 함께  
그 모든 운명의 생활과 함께  
언제나 살고있다 나의 한생이

## 퇴원병력서를 쓰며

창가에 별무리 내려앉는 밤  
나는 지금 퇴원병력서를 쓰고있다  
생각을 거듭하며 한자 또 한자  
한 생명에 바쳐진 정성과 노력  
힘겨웠던 치료전의 그 나날들을 그려보며

이런 밤엔 정녕 있었던가싶구나  
쪽잠이 그립던 그밤들의 피곤도  
의식 잃은 환자결에 앉아  
숨결을 가늠하던 그 순간의 안타까움도

천리방선 초소에서  
바람세찬 산정의 송전선철탑  
이 땅의 그 많은 거리와 일터에서  
때없이 날아드는 편지를 받을 때면  
이렇게 쓴 퇴원병력서를 놓고  
내 가슴에 깊어지는 생각이여

건강이 회복된 튼튼한 몸으로  
건설장과 별에서 혁신자로 손꼽히는  
그네들의 그 모든 퇴원병력서 갈피들에  
얼마나 사연많은 날들이 흘러갔던가

바람찬 인차를 한몸으로 막고  
 두팔을 잘리운 탄부의 품에서  
 피에 젖은 입당청원서를 보게 되었을 때  
 하반신이 마비된 영예군인총각과  
 일생을 약속한 처녀의 심장에서  
 불같은 사랑을 잃게 되었을 때

의사인 내 심정의 솔직한 고백은  
 탄부의 생명도  
 끊어진 그 두팔의 운명도  
 영예군인청년의 그 행복한 래일도  
 진정 담보할수 없었노라

허나 그들이  
 이어진 두팔로 당원증을 받게 되고  
 두다리로 대지를 힘있게 활보하며  
 병원문을 나선 그 걸음으로  
 축복의 결혼식장에 들어서던 날

아 어이하여  
 그 퇴원병력서의 구절들이  
 내 가슴 찢듯이 찢어드는것이나

정녕 얼마나 많은 피와 살점  
 값비싼 약제들이  
 그들의 온몸에 흘러들어갔던가

인간의 생명을 위해  
 억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는 나라  
 아 내 쓰는 퇴원병력서는 몇장 되지 않아도  
 저 무한대한의 우주공간에도 다 담을수 없는  
 인간사랑의 총체가 예서 빛나거니

오 인간과 그 생명의 무게를 알게 하고  
 인간과 그 생명앞에  
 어떻게서야 함을 깨우쳐주는  
 퇴원병력서, 인간사랑의 숭고한 자욱이여

그래서 이런 밤  
 더더욱 생각은 깊어지고  
 퇴원병력서의 구절들은  
 뜨거운 이슬로 눈굽을 적셔주는것이리  
 이 가슴 뿌듯이 안겨오는것이리  
 아 별처럼  
 별무리처럼

## 이삭이 총알처럼 여물었다고

리종덕

금물결 설레는 들에 나서니  
 터질듯 잘 여문  
 벼이삭을 만지며  
 알알이 총알처럼 여물었다고

풍년나락 하늘가에 닿은  
 다락밭에 가보아도  
 탐스런 강냉이를 어루쓸며  
 이삭마다 총알처럼 여물었다고

분조원들 기쁨에 겨워  
 레사로이 넘기는 말이어도  
 내 가슴엔  
 이삭처럼 무겁게 실리누나

새봄맞이 씨뿌리던 그날  
 원썬들의 핵전쟁소동에  
 원썬격멸의 피가 솟구쳐  
 다 타지 않은 담배불을 비벼끄고  
 발이랑에 말없이 들어서던 마음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전화의 그날처럼  
 사회주의진지를 지켜선  
 병사의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부터 들에 살았거니

봄도 그 마음속에 꽃피워  
 끝날같은 령상모임 키웠고  
 여름도 그 가슴속에 끓여  
 줄대처럼 푸른 잎 자래웠으니  
 올해의 이 이삭  
 어찌 총알처럼 여물지 않았으랴

오 사회주의승리의 노래인양  
 끝없이 설레는 이삭이여 이삭이여  
 우리의 신념 열매로 맺고  
 우리의 의지 이삭으로 익어  
 총알처럼 총알처럼 여물었구나

## 내 삶이 시작된곳에서

류희숙

두해만에 찾은 고향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기 고향을 떠났던 나에게 있어서 고향땅을 다시 밟는 감회란 이루 형언키 어렵다.

푸른 잎을 펼쳐들고 아름이 벌게 아지를 쳐 키를 넘는 뽕나무림. 거기서 오디를 따먹으며 좋아라 깔깔대던 한여름철의 학교길, 저녁마다 토끼풀 뜯는 나를 찾아 동구밖까지 울리던 어머니의 부름소리...

그 무엇에나 따뜻한 정이 깃들고 애뜻한 추억을 불러주는 고향이다.

우리 학교는 온 마을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마을 등판에 있었다.

그 학교를 지나야 집으로 갈수 있었다.

학교앞을 가까이하면서 눈에 띈것은 야산등판에 휘날리는 붉은기였다.

내가 켜 어렸을적부터 마을의 전망대가 있는 등판에는 명절과 기념일마다 붉은기가 나뭇기군하였는데 례의 그 붉은기가 오늘도 펴력이고있었다. 다른것이 있다면 그때보다 기폭도 더 크고 기발대도 훨씬 더 높이 솟은것이였다.

마치도 그앞으로 뻗어간 무연한 벌들과 온 마을을 한품에 안을듯 한여름의 미풍에 무겁게 펴력이는 모습은 깊은 사색을 불러주며 시야에 안겨들었다.

아 붉은기!

나는 붉은기에 이끌리어 저도 모르게 등판에 올라섰다.

저쪽앞에서 등이 약간 구뭇할사한 긴장한 아버지가 걸어가고있었다. 유심히 보니 30년동안 이 마을에서 리당비서로 있다가 얼마전에 일손을 놓은 리아바이였다.

이제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아바이였지만 나는 저도 모르게 친근감을 안고 아이적처럼 아저씨라고 불렀다.

《어이구, 이게 누구요. 우리 평양집난이가 또 왔구만.》

언제나와 같이 나를 반겨맞은 아바이는 내 손에 들려있는 가방부터 받아주었다.

이 아바이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

내가 여덟살때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붉은넥타이를 매여준 아바이였다. 군에서 나온 간부들과 함께 우리 학교 입단식에 참가한 아바이는 나의

목에 붉은넥타이를 매여주고나서 정색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 넥타이가 왜 붉은색인지 아니? 이 넥타이는 백두산에서 안고온 붉은기와 한폭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붉지. 이제부터 너도 이 붉은넥타이를 매고 붉은기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한생을 붉은기처럼 티없이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철없던 그때에는 아바이가 한 말의 깊은 뜻을 미처 다 몰랐는데 그후 내 인생의 굽이굽이마다에서 나는 이 말을 새겨보군하였다.

생활속에서 성장해갈수록 나의 마음속에는 굳세고 강직한 아바이의 구리빛얼굴이 더욱 뚜렷이 새겨졌고 붉은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 소년단넥타이는 나의 마음속에 신념과 량심을 심어주었으며 삶의 성실한 아지를 펼쳐주었다.

태줄을 묻어서만 삶이 시작된곳이라면 내 나이 한살한살은 저 자본주의나라 아이들의 나이와 무엇이 다르랴.

그래서인지 붉은기를 대하면 마음은 더 억세여지고 눈이 확 뜨인다. 고향은 나에게 붉은넥타이 시절을 주었고 나의 운명을 붉은기와 일치시켰다. 그것은 아마도 삶이 시작된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것이 아닐가.

지금도 나는 아바이가 마을사람들의 신념을 닦아주고 량심을 정화시켜주며 붉은기를 지켜 얼마나 값있고 보람찬 인생행로를 걸어왔는가를 자주 생각해보군한다.

우리 생활과 얼마나 깊게 인연맺어진 붉은기인가. 붉은기를 생각하면 고향의 이름없는 리당비서였던 저 아바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마치도 어머니모습처럼...

저 아바이도 지리지 억눌려 살다가 붉은기아래서 해방의 환희와 기쁨을 맛보았고 저 붉은기아래서 나서 처음 분여지를 받았으며 바로 저 붉은기를 들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를 헤쳐 승리를 안아왔다. 전쟁이 끝난후 몸에 파편을 안고 고향에 돌아온 아바이는 저 붉은기밑에서 협동화의 첫 종소리를 울렸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땅에 씨앗을 물었다. 이렇듯 아바이는 붉은기와 더불어 이 땅의 주인된 새삶을 받아안았고 붉은기를 지켜 피땀을 흘려왔으며 붉은기에 한생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아왔다.

나의 목에 그가 매여준 붉은넥타이는 그가 지켜준 그 삶, 빛나는 그 숨결을 이어준 그 순간이었으며 붉은기가 새겨준 삶의 계속이었다.

그래서 사회주의터전에서 굴욕이란 말자체를 모르고 세상에 부러움 없이 꽃피난 내 삶이 아닌가. 바로 그 행복의 터전우에 우리 말과 글을 배운 나의 학교가 있었고 날마다 마주앉았던 책상과 흰고무공 쫓아 진종일 뛰놀던 드넓은 운동장도 있었다. 내 청춘의 고운 꿈도 저 붉은기아래서 활짝 피어났다.

아, 그 붉은기아래서 나는 지나온 생의 길을 추억받았고 앞날을 기약하고있다.

이미 오래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으로 떠나올 때 기발이 필력이는 등성이에서 손저어 내려주던 리당비서아바이의 말없는 당부는 오늘까지도 내 가슴에 스며있어 내 생의 걸음걸음에 힘을 더해주고 좌표로도 돼주었다.

나는 아바이에게 물었다.

《아저씨, 오늘이 무슨 기념일이라도 되는가요? 기발을 다 띄웠거든요.》

그 말에 묵묵히 걸던 그는 빙그레 웃으며

《기념일은 무슨 기념일이겠나. 그저 매일 띄워 놓구 있지, 그게 우리 생활이지.》하고는 계속하여 이런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최상최대의 국상을 당한 그 이듬해, 평양에 올라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아바이는 북받치는 오열을 참지 못하며 한동안 몸을 흔들었다.

한것은 결코 비통함때문만이 아니었다.

붉게 피는 아침노을속에 거연히 서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뵈오니 충효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이 흥벽을 두드렸기때문이다.

한생을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며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가꿔주신 이 땅, 이 조국을 더 아름답고 부강하게 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수령님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고 제자, 전사로서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깨달음이 절절했기때문이다. 그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나서는 길로 당중앙청사의 붉은기를 우러러 마음속결의도 아뢰었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받드시여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요 버리면 죽음이라는 불멸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계시지 않는가.

나의 생각은 삶에 대한것으로 다시 깊어진다. 소년단시절 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함께 지낸바 있는 니나에 대한 서글픈 마음이 짙게 갈라든다.

그의 조국이 붉은기를 버리자 그의 목에서도 붉은넥타이가 풀리어졌다. 붉은기를 내동댕이친 배신자들때문에 삶이 꽃피던 그의 고향이 죽음에 시작된 황야로 되어버렸다. 붉은기는 바로 이처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나는 뜨거움을 삼키며 아바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삶이란 곧 신념이며 그의 리념이 비낀 붉은기가 아닌가. 바로 그의 생애는 이렇듯 붉은기아래서 흘렀고 또 흘러가고있다.

그가 생의 하루하루를 이 붉은기앞에, 수령님의 한생앞에 비추어보면서 살아가고있는것도 바로 붉은기를 지켜 우리 조국을 오늘에로 이끌어 오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워가려는 그지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도덕의리심과 량심화된 충실성에 뿌리를 두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붉은기를 띄워 놓고 사는것이 생활로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 이 아바이만이 아닌 이 나라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이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을 간직하고 붉은기를 지켜 사심없는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하거늘 이 땅에 차넘치는 신념은 붉은기신념이고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깨끗한 그 마음은 언제나 붉은기와 한빛이다.

이 기발 있어 우리 조국은 영원히 불패의 보루로 솟아빛나고 우리의 사회주의 이 제도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영원토록 행복의 락원으로 꽃피여날것이니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의 푸른 하늘가에서 필력이는 붉은기를 내리울수 있단말인가.

모진 세월의 눈비에도 절대로 퇴색될줄 모르는 우리의 붉은 기발, 이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절대로 물들지 않는 우리의 붉은 기발.

위대한 우리 장군님의 신념이며 의지인 그 붉은기발은 **김일성**민족이 생을 받아안은 영원한 삶의 요람이고 고향이다.

그래서 붉은기에 나의 고향 작은 등판과 아바이의 모습도 비껴여 있는것이라.

이것이 얼마전 고향마을에서 내가 받아안은 고향에 대한 새로운 느낌이며 표상이다.

좌- 드넓은 대지의 설레임소리가 붉은기의 필력임에 보조를 맞추며 산천이 하나가 된듯 끝없이 물결치고있었다.



# 농장원들속에서

김상현

## 1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관리위원장 리옥희는 아래방에서 흘러나오는 남편과 딸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귀기울였다.

《아버지, 오늘은 휴식날인데 어머니보고 산나물 캐러 함께 가자고 하세요. 남들은 다 온 집안이 떨쳐나 먼산에들 가는데… 늘 봐야 우리만 어머니가 빠진다니까요.》

《아서라, 정남아, 어머니 오늘 판매계획이 있을게다. 너희 어머니이기전에 먼저 온 농장의 어머니란걸 또 잊어버렸느냐.》

한동안 잠잠했던 딸의 음성이 이어진다.

《하지만 판매들이 엄마들과 함께 가는걸 보면 부러워서…》

《원 부러울것두 쟤다. 넌 자랑으로 여기려무나. 휴식날도 농장살림을 돌보는 어머니를 모신 딸답게…》

딸의 목소리가 더는 흘러나오지 않는다. 아버지 한테 설복당해서 수그러들긴 했어도 불이 부어있을 딸애의 얼굴을 눈앞에 그리며 리옥희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웅심깊은 남편에 대한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온다. 운흥리에 와서도 벌써 십년가까이 일해오지만 농장일을 돌보느라 제구실을 못하는 안해를 탓할 대신 오히려 깊이있게 알아주며 각성이 부족한 자식들을 일깨워주는것이 아닌가.

(여보, 고마워요. 바다물속같은 당신의 그마음을 생각해서도 제가 일을 더 잘하겠어요.)

리옥희는 언제나와 같이 이렇게 남편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 생각했던대로 오늘은 씨불임총화에서 제일 뽕꼬리를 차지한 발전소마을분조에 나가보리라 마음먹었다.

회의지도를 나왔던 군경영위원회 김인형기사장의 말이 고막을 친다.

《관리위원장동무, 2반 2분조는 왜 맨 꼴찌요? 지난해 농살 제일 잘 지었다는 분조가… 혹시 분조장이 이제 나이들어서 맥을 놓은게 아니요?!》

리옥희는 기사장을 설득시킬 말이 얼핏 떠오르지 않아 《그래도 두고보세요. 쟁잡는게 매라구 농사만 잘 지으면 될게 아닙니까!》라는 열변한 말로 곱때고말았었다. 사람좋은 김인형기사장의 얼굴에 떠오르던 묘한 웃음이 잊혀지지 않는다. 조롱기가 섞인듯한 그 미소는 마치도 《관리위원장동무, 무슨 대답이 그렇소?! 씨불임을 남먼저 실속있게 끝내도록 분조장들을 이끌어주어야 할 동무가 도리어 무원칙하게 역성들려주다니…》라고 꾸짖는듯싶었다.

발전소마을 분조장 방운호.

분조장들중에서 제일 좌상이다. 좀체로 속을 드러내지 않을뿐더러 어느 누구도 상냥스럽게 대해 줄줄 모르는 딱한 성격이다. 그가 누구보다도 농사를 잘 짓는다는 한가지 생각만을 하면서 자주 내려가보지도 못하고 또 인간적으로 친숙해지지도 못했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리옥희였다. 그러니까 김인형기사장에게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된 딱딱한 대답을 못하지 않았던가.

문득 지난해 씨불임총화때도 방운호분조가 뒤자리를 차지했던 일이 돌이켜졌다. 김매기철에도 역시 앞선축이 못되군하였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방운호네 분조는 농사도 제일 잘 짓고 모든 밭들이 풀 한대도 없이 꽃밭처럼 말끔할까? 전에는 물론 지난해에도 평가계획수행률순위에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했을뿐더러 2등인 분조보다도 20프로나 앞섰다. 발전소마을분조의 내막을 깊이 파고들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며 생각에 골똥하던 리옥희는 오늘 첫번째 사업대상으로 방운호의 분조를 택하게 되었던것이다.

농장마을은 이른아침부터 흥성거리었다. 대흥동굴 먼산으로 떠나면서 서로 찾고 부르는 농장원들의 활기에 찬 목소리들과 웃음소리들이 꽃향기 충만한 대기속에 흘러넘치었다. 더없이 밝은 농장원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무겁던 옥희의 마음도 펴 가벼워졌다. 그는 관리위원회에 들려 직일을 선 일군에게 제기된 문제들이 없는가 알아보고나서 곧장 발전소마을로 향하였다.

리옥희는 걸어가는 오봉산의 록음을 보느라니 씨불임에 정심팔려 산천의 비화도 못느끼고 살아왔음을 절감했다. 채 물들지 않은 갖가지의 록음 빛갈로 어렴풋이 제 모습을 드러내던 오봉산의 숲들이 어느덧 진하게 물들어 눈에 두드러지게 안겨왔다. 이깔숲은 진록색으로, 참나무, 물푸레나무숲은 연록색으로, 황철나무, 피나무 숲은 청록색으로 록음이 짙어졌다. 개벚꽃이 만발하여 짙은 향기를 풍기고 길가의 관목숲에는 작은 나팔주둥이같은 새옹꽃이 봉오리를 활짝 펼치었다.

오봉산숲속에 서 랑랑한 삐죽새소리가 메아리쳐 오는데 대동강변의 물황철나무숲에서는 꽃향기에 취하여 흥에 취운듯한 피팔새소리가 아름답게 화답하며 야무지게 들려왔다.

《피팔피팔 피르르팔… 피르르 피르르팔…》

옥희의 귀에는 피팔새소리가 마치도 《분조농사 모르다니… 피르르 모르다니…》하고 자기를 놀려대는것처럼 들려와서 부지중 허거픈 미소를 그리었다. 대동강을 꿰지른 줄다리를 건느고 중학교의 교재림을 지나서 2분조마을로 들어서던

리옥희는 발전소 앞 동강포전에서 후치질을 하고 있는 너인을 발견했다.

(누구일가? 2분조에 너성보잡이란 방운호의 딸밖에 없는데 그럼 필녀가?...)

언뜻 짙이는 생각이 있었으나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눈길을 모아도 누구인지 가려볼 수 없었다.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운호의 딸 방필녀였다. 지난해부터 너성보잡이로 소문을 내더니 이제는 제법 틀이 잡혀서 소를 몰아가는 처녀의 숨씨가 남자들 못지 않게 힘이 있고 자연스러워보였다. 아니, 어딘가 모르게 더욱 매력있고 돋보이는 것이어서 리옥희는 한동안이나 경이에 찬 눈길로 지켜 보았다. 얼핏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다른 일을 좀 못하더라도 필녀한테서 꼭 후치질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이였다. 분조마다 너성보잡이들을 키워내자고 호소한 관리위원장자신이 후치질을 할 줄 몰라야 되겠는가.

흙밭에 감자포기들이 묻히지 않나 살피며 후치질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필녀는 옥희가 밭에 온 줄 감감 모르고 있었다. 이따금 《와와》 소를 세우고 허리를 굽혀 감자잎새를 덮은 흙밭을 헤쳐 놓는다. 한포기라도 파묻힐세라 흙밭을 밀어내는 필녀의 손길은 얼마나 알뜰하고 정성스러운가. 눈부신 햇빛에 이슬을 반짝이는 싱싱한 감자잎새들과 필녀의 매력적인 자태를 번갈아보며 리옥희는 여태 느껴보지 못했던 처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감정으로 하여 가슴이 달아올랐다.

옥희가 바투 다가가자 필녀의 뒤를 따르며 굽배이를 쪼아먹던 멧새들이 포득거리며 날아갔다. 그바람에 뒤돌아보던 필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 관리위원장동지가 어떻게...》

소를 세우며 허리굽혀 인사하는 필녀의 흥조로 물든 얼굴에는 수집음과 반가움이 엇갈린 따뜻한 미소가 어리었다. 남다른데라고는 없는 수수해보이는 처녀이건만 언제부터 이 처녀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마음속에 드림없이 자리잡게 되었는지 옥희자신도 놀랄 지경이었다. 키도 자그마하고 별로 곱게 생긴 얼굴도 아니어서 눈에 띄지않던 처녀였는데 지금 저 별빛같은 필녀의 눈매는 얼마나 정겨웁게 느껴지는가.

《필녀, 오늘 왜 먼산에 안갔어? 큰남골등판에 고비, 평풍나물이 한창이라던데...》

《우린 후날 가지로 했어요. 위원장동지.》

《후치질이 팔려서 그래?》

《예, 좀... 그래서 후치군들이 오늘 일하고 후날 쉬겠다고 자청해나서는걸 아버지가 겨우 말려서 휴식시켰어요.》

방긋이 웃으며 레사롭게 말하는 필녀가 대견스러워 옥희는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럼 아버지도 산에 안갔겠구만...》

《예, 후치등태준비를 하고있어요.》하고 말하는 필녀의 눈길에는 《우리 아버지야 분초일밖에 모

르는 사람인데 응당 그래야지요.》라는 뜻이 어리여있는듯싶었다.

(경험이 없는 후치군들이 등태를 잘못 썩워서 소잔등에 멍이 들게 할가봐 그러는구나. 방운호가 살림군인것만은 틀림없어.)

옥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필녀한테서 보탑을 넘겨잡고 《이라》하고 소를 몰아나갔다. 애벌후치질이어서 새로 고랑을 쟈야 하므로 옥희의 서툰 숨씨가 대번에 드러났다. 필녀가 할 때는 흙밥이 일매지게 제껴지며 감자포기사이로 흙이 들어가던 것이 서툰 탓에 종개뻔뻔듯 얇게 쟈지던가 혹은 너무 깊이 폭 떠서 몇포기씩 감자썩을 덮어버리는 것이였다.

《와와.》 별수없이 옥희는 소를 세웠다.

덜썩은 흙을 파헤치며 필녀가 소곤댔다.

《그냥 쟈십시오. 제 파낼테니... 그래도 많이 해보셨어요. 언제 후치질까지...》

옥희는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논엔 익고 손엔 설다더니 생각처럼 안되는구나. 뽕뽕뽕뽕하는게... 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변명비슷한 옥희의 말에 필녀는 깔깔 웃었다.

《호호호... 그래도 제법 잘하셔요. 전 침에 어쨌는지 알아요? 곡식포길 막 떠나갔다니까요. 첫 밭갈이생송아질 길들이느라니 땀깨나 뿜곤했어요. 저녁엔 녹초가 되서 꿈쩍할 맥도 없더라니까요.》

하던 필녀는 보탑을 놀리는 옥희의 일손을 거들어 주며 말을 잇는다. 《위원장동지, 자전걸 타보셨지요. 리치는 비슷해요. 자전거손잡이 놀리듯이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참말 필녀가 일깨워주는대로 하니 흙물결이 일매지게 번져지며 감자포기들을 파묻지 않고 흙밥이 고르롭게 오르는 것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 후치질하느라 수고하시우다.》

등뒤에서 울리는 석침한 음성에 소를 세우며 고개를 돌리니 걸망태를 진 배병세로인이 환히 웃고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

옥희는 보탑을 필녀에게 넘겨주고나서 발머리에 선 배병세의 곁으로 다가갔다. 로인의 표정에서 별다른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덩덤히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휴식일에야 집안일을 돌봐야지 집안식구들이 좋아하겠소?!》라는 질책이 어린듯싶었다. 하지만 배병세의 말은 꼭 무뚝뚝하고 대범스러웠다.

《언제 벌써 나왔는지 땀깨나 흘렸수다래. 피벗기려 가던 길에 관리위원장동무가 보이더라니 들렸지요. 자, 여기 좀 걸터앉으시우.》

옥희는 담배쌈지를 푸는 배병세의 옆 각담머리에 걸터앉았다. 언제 한번 만나달라고 찾아온적 없던 이가 웬일일가 하고 마음을 조이면서...

독한 씨레기담배연기를 맛나게 들이켰다가 내 불며 배병세는 무겁게 말을 뱉다.

《처녀보잡이로 이름난 필녀를 보느라니 축산마을 박응관의 로친 최순옥이 생각나질 않겠소. 세월이 빠르기란 참... 최순옥이 발갈이, 후치질을 잘해서 남자들 찜찌먹겠다고 소문놓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그 로친이 년로보장받았으니... 나두 늙었지...》

배병세의 음성은 탄식조로 울리었지만 주름 많은 얼굴은 활기로 빛나고 두눈에는 영채가 어리었다.

(최순옥이 소문난 보잡이였었다니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닌가. 공로보장자로 운흥리의 녀성들중에서는 훈장도 제일 많이 탄 최순옥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사람을 깊이 알기란 얼마나 어려운것인가!)

리옥희는 자책감으로 하여 낮빛이 어두워졌다.

관리위원장이 최순옥이를 잘 모르고있다는것을 깁새챜듯 배병세가 말했다.

《최순옥이 쉽지 않은 내인이지요. 일을 참 많이 했수다. 조합이 무어지자 녀성보잡이루 선출 그은것두 그 내인이구, 김 땀 땀 남이 한고랑 땀 땀 두고랑매구, 풀땀 땀 남이 삼백키로 땀 땀 룡백키로, 칠백키로씩 배군했수다. 축산반에서 돼지관리공을 하면서두 일 많이 했지요. 마감에 좀 말썽이 생겨서 농산반으로 나오긴 했어두...》

배병세의 입에서 뿜박의 말이 나오자 옥희는 가슴이 섬쩍해지며 저도 모르게 낮이 화근해짐을 느꼈다. 최순옥이 《말썽》을 부려 축산반에서 농산반으로 나왔다는 말이 관리위원장인 자기를 빗대놓고 하는 비난에 찬 말로 들려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수년 세월이 흘렀어도 최순옥이 《말썽》을 부렸던 때 일이 어제런듯 되살아났다. ...

1작업반탈곡장의 전동기가 고장나서 강냉이탈곡을 제기일에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탈곡사업지도로 내려와있던 군 지도기관의 한 일군이 대책안을 내놓았다. 축산반사료분쇄기의 전동기를 하루동안만 떼여다가 탈곡을 하자고... 축산반장을 불러 합의하니 어미돼지쌍불이기때여서 조사료분쇄가 걸린다고 난감해하면서도 별수없이 동의하였다. 그런데 낮에 다른 작업반에 나갔던 옥희가 저녁에 관리위원회에 들어오니 그 일군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서 관리위원회 말도 안되는 농장원을 축산반에 두어선 땀하겠는가고 하며 당장 농산반에 내보내자고 제기하는것이 아닌가. 영문을 알아보니 돼지관리공 최순옥이가 작업반장한테서 지시받은것이 없다면서 전동기를 실려간 1반 분조장에게 종내 떼여주지 않았을뿐더러 그 일군이 찾아갔는데도 반장승인없이는 못주겠다고 딱 잡아떼서 전동기도 못가져오고 탈곡도 못했다는것이였다.

리옥희는 최순옥의 립장을 대변에 이해하였다.

조사료분쇄가 걸린다고 하던 축산반장의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자기 집 살림살이가 아니라 농장살림을 위해 욕심을 부리며 고집을 쓰는 최순옥을 이해하여줄대신 개인감정을 가지고 무원칙하게 구는 부장의 편협한 사업작풍에 대하여 옥희는 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업편계를 생각하여 좋은 말로 그를 설복하려들었다. 그러나 그

일군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고집을 썼다. 옥희는 자기의 직권으로는 그 사람을 당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더우기 관리위원장사업을 갖 시작한 때였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그 일군의 의견을 따를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최순옥은 한 일군의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의 희생물로 되고말았던것이다.

그후 당위원회와의 협의밑에 일을 성실히 하여 온 최순옥에 대한 표창추천사업이 제기되고 리의 녀성농장원들중에서는 처음으로 그가 로력훈장을 수여받게 되였다. 하지만 최순옥의 《말썽》을 잘못처리한 리옥희의 죄책감만은 가셔지지 않고 때때로 되살아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

발머리로 나와서 소를 돌리던 필녀가 배병세로인에게 인사하며 방긋 웃는다. 처녀는 마주보는 배병세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 웃음으로 빛나는지 옥희는 여태 그러한 로인의 낮빛을 본적이 없음을 느꼈다.

《필녀야, 너도 좀 쉬렴.》

목소리 또한 무뚝뚝한 그답지 않게 무척 정겨우게 울리었다.

《할아버지, 조금 더 췌구 쉬겠어요.》

필녀의 대답은 벌써 저 앞에서 들려왔다.

배병세는 생각에 잠기는듯 다시금 덤덤한 표정이 되며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최순옥이 축산반에 들어간뒤로는 녀성보잡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트랙토르가 왕왕 발갈구 제초길 두르는 시대에 소발갈일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구... 더구나 남정들이 있는데 무얼 힘들게 녀성들까지 발갈일 시키겠는가구 주장하는 축들이 생겼지요. 그래두 우리 산골실정에서야 소발갈일 살려야 하구, 더구나 미국놈들과 맞서 싸우는 조건에서 녀성들두 발갈일 배워둬야 하는건데... 우리 생각처럼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서글픈 낮색으로 새로 만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난 배로인이 금시 밝은 표정이 되며 말을 잇는다.

《그런데 오늘 저렇게 필녀랑 후치질을 잘하는 걸 보니 기특한 생각뿐이외다. 한때 최순옥일 인물은 별로 없어두 운흥리에선 제일 고운 체네라고 했었는데... 일이 사랑이니까 그렇게들 생각했지요. 그때 박응관이 총각들중에서는 편다난다 하는 축이었지요. 농장의 첫 트랙토르운전사였구 운전두 오래 했수다. 한데 응관이가 순옥이한테 얼마나 눈독을 들였었다구요. 응관이가 끝내 순옥이와 눈맞춰가지구 트랙푼에 체네와 함께 타구

빙글거리며 다니던게 엇그제 같은데... 나인 어쩔수가 없지, 이젠 축산에서 벌이나 보고있으니... 웅관이가 손속일 얼마나 고와했는줄 알우. 왜 안그랬겠수. 농장에서 제일 고운 체넬 색시삼았는데야...

하물며 지금 저 필녀를 곱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수. 아마 필녀가 계속 저렇게 잘하면 한때 최순옥이처럼 제일 고운 체넬로 사람들한테 믿음받게 될거구 필녀의 배필로는 농장에서 제일 꼽히는 총각이 나설거외다.》

활짝 밝게 웃으며 마주보는 배병세의 눈빛은 《그렇지 않소? 관리위원장.》하고 묻는듯 하였다.

옥희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만나 달라고 한번도 온적 없던 로인이 발에까지 찾아와서 기뻐하는 까닭을 그는 이제야 깨닫는것이였다. 그렇구말구요. 아버지 방필야 우리 농장에서 제일 고운 처녀지요. 제일 꼽히는 총각이 필녀의 배필로 될거구요.》

로인을 바라보는 리옥희의 물기어린 눈길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 2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인다고 단감주대접에 해가는줄 모르겠군.》

배병세가 벗어놓았던 절망태를 지려는것을 방운호가 말린다.

《원, 비서아바이두, 이젠 칠순인데 좀 쉬엄쉬엄하시구려.》

《이사람, 그래두 아직 실 생각은 없어. 몸은 늙어두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가부지. 분조중태랑이야 우리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집에 언제 다시 오시겠소. 오셨던김에 점심이나 자시구 가시우.》

《점심은 절망태에 싸넣는것이 있네.》

방운호가 노르끄레한 기름이 동동 뜨는 감주쪽 박을 들어올리며 한개만 더 들고가라고 권하는데도 배병세는 막무가내로 사양하며 떠나갔다.

《허참, 아바이두, 고집만은 여전하시군.》

로인의 뒤모습을 서운한 눈길로 한동안이나 바라우던 방운호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리옥희는 후치등태를 갈아대주려고 딸한테 나왔던 방운호의 손길에 이끌려 배병세와 함께 그의 집 샘물터에 와서 앉았었다. 그런데 두사람의 대화과정에 옥희는 또하나의 여태 몰랐던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배병세와 방운호의 사이가 보통 가깝지 않다는것, 남다른 깊은 인연으로 얹혀져있다는 사실이었다. 최순옥이 소문난 보잡이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듯이 그들의 깊은 인연도 전혀 모르고 사업해오지 않았던가.

자책에 잠기는 옥희의 어두운 표정과 심리를 제판으로 해석한듯 방운호가 샘물에 담근 동이에서 쪽박이 넘치게 단감주를 퍼담아 늙식기에 부어주며 말했다.

《관리위원장동지, 이거 실례가 된것 같수다. 배아바이하구만 애길 해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기에...위원장동지도 오셨겠다, 휴식날이겠다, 회포도 나눌겸 한끼 대접시켜보내자던건데 어찌도 고집불통인지 종시 떠나가버렸군요.》

옥희는 사양하지 않고 감주그릇을 받아놓고나서 방운호에게도 권하며 뉘우치듯 말을 뱉었다.

《난 여태 방동무가 배아바이와 그렇게 가까운 사인줄 몰랐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난김에 다 말씀드리지요.》하고 방운호는 과묵한 그답지 않게 체격 말을 받았다. 《배아바이가 방촌마을에서 오래동안 세포비서로 일했는데 그때 제가 아바이한테서 일을 배웠지요. 지금까지두 전 배아바이같은 직배기일군을 만나보지 못했수다. 이래라저래라 누구한테 시키길 천상 싫어하는 성격이었지요. 말보다도 실천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나갔수다. 분조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꾸중할대신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가슴아파하던 비서아바이였수니다.》

한숨 돌리려는듯 운호는 잠간 말을 끊었다.

해별은 더 따갑게 쟁글쟁글 내려쬐이고 강변물 황철나무숲의 피골새소리는 더 한층 감쪽하고 야무지게 들려왔다.

《피르폴 피르피르... 피르피르 피르폴...》

옥희의 귀에는 피골새소리가 아까와는 또 다르게 들려오는듯싶었다.

《몰랐지요. 사람들을... 피르피르 몰랐지요...》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너무도 모르고 일해왔지.)

옥희는 자신을 뉘우치며 이어지는 운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해 봄, 필녀어미가 강냉이모판관릴 말았는데 그만 실수해서 두둑이나 데워놔수다. 심심하던 강냉이모가 초절금해놓은것처럼 풀쭈군해졌지요. 분조가 범석 뚫었다우. 다 키운 강냉이모를 못쓰게 만들었다구요. 그런데도 비서아바인 말한마디 없었수다. 그날밤 무슨 일이 벌어졌겠수. 비서아바이가 남모르게 가위를 들고나와서 꼭두마릴 다 잘라줬지요. 첩엔 누가 했는지 몰랐겠수다. 새싹이 돌아나게 하려구 그걸 잘라주려 나왔던 필녀어미두 분조장이 누구한테 시켜서 한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분조장두 모른다질 않겠수. 그뎨 배아바이 아들 철호가 인민반에 다닐땐데 그너석이 <비밀>을 루설하는바람에 알게 됐지요. 남다 자는 밤중에 비서아바이가 칸데라를 켜잡구 잘라줬다는 사실을요. 전 그때부터 비서아바이 남다른 일군으로 보고 존경하기 시작했수다.》

옥희는 운호의 얼굴에 여적 볼수 없었던 경건한 미소가 어린것을 보았다. 언제나 덤덤하고 똑하기만 한것 같던 그의 얼굴에 흘러넘치는 따뜻한 인정미를 보며 옥희는 생각이 깊어졌다.



(량심과 의리를 지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생활의 교사로, 은인으로 되어준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산다. 고결하고 아름답게 살려는것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속성이 아니겠는가.)

방운호는 배병세와 함께 보낸 나날들을 돌이켜 보며 몇가지의 잊지 못할 사연들을 전해주는것이였다. 운호의 음성은 더 부드럽게 열정적으로 이어졌다.

《배병세아바이와 일할 때 우리 분조는 씨불임 때나 김멜 때는 앞선축이 못됐어두 가을에 수확고판정때는 첫차릴 양보하지 않았수다. 아바인 분조원들에게 파종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며 절반몹을 차지한다는걸 실지 모범으로 보여줬지요.

집집마다 온돌수릴 해서 온돌절 말끔히 거뒀 밀거름으루 넣구 잡관목잎을 베서 (그걸 록비라고 했는데) 밭에 쭉 퍼구 갈군했지요. 그럼 곡식이 배로 잘되군 했수다. 김멜 땀 <심은 자랑 말구 김멜 자랑하렷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며 남먼저 후치를 메우구 김고랑두 앞장서 타나가군했수다. 세포비서가 이렇게 하는데야 따라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수. 우린 해마다 알곡계획을 넘쳐하군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장과 표창을 탔수다. 그래두 비서아바인 공로메달밖에 받은것이 없지요. 혹시 선거날이면 아바이가 훈장을 달구 나오는데 모두가 전쟁때 비행기사랑임조로 싸우면서 미국놈 비행길 썰떨구고 받은것입니다.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전쟁로병은 운호리에 배병세아바이밖에 없는줄 전 알지요. 그래두 언제한번 전쟁때 싸우던 애길 우리한테 들려준적 없수다. 제자랑하는 사람은 배안의 병신으로 아는 아바이였으니 그럴수밖에요.

한번은 강냉이모내길 제기일에 못끝내서 보잡이들까지 나섰지요. 밭갈인 끝나구 외진 뽕기밭들만 옮기면 되는 막판이여서 저두 다른 동무들두 빨리 옮길 생각만 하구 규정을 잘 지키지 못했수다. 톱날형으루 옮기지 않구 일직선으루 냅다 옮겼지요. 그런데 해질녁에 보니 비서아바이가 글썽 우리가 옮겼던걸 파내서 톱날형으루 다시 옮기는것이 아니겠수. 량심가책이 되여 그의 곁에 가서 다시 옮겨나가면서두 속이 편치 않습디다. 섭섭한 생각도 들구요. 누구의 눈에두 안 띄울 외판밭인데 너무하다구 여겼지요. 집에 갈때까지 배아바인 말 한마디 없습디다. 사실은 그게 더 어렵더군요. 침묵이 위압이 되구 교양이 된다는게 그래서 나온 말인게지요.

배아바이네집 샘물터가 참 좋았지요. 실한 복숭아나무도 한그루 비껴서있었구요. 아바이넨 그 샘물에 감주동일 담그어놓군했는데... 단 감줄담그는 철호 어머니숨씨가 괜찮아서 우린 밭갈이나 후치질하다 목이 킬킬해나면 찾아가서 한사발씩 들이키군했수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기두 했지 그집 감주 퍼마시는걸 제 집 뽕수 마시듯 했수다.

파종총활 한 다음날 배아바이가 절 샘물터에 불러왔히구 말합디다.

<운호, 이 사람, 날 모질다구 욕했올테지.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구. 강냉이포길 톱날형으루 어긋 어긋 심는다는건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일세. 수령님께서 어느 한 농장에 나가시여 관리위원장과 농사문제를 의논하시다가 손수 주어드신 조약돌들을 톱날형으로 놓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셨지. 관리위원장 손을 잡아 이끌어 앞에 앉히시구... 강냉인 이렇게 어긋어긋 톱날형으로 심어야 통풍도 잘되구, 수확고도 펴 높아진다구... 몸소 저택정원에서 시험해보셨다구 하시면서 ...

내 언젠가 누이네 집에 갔다가 우연히 수령님 교시를 받은 그곳 관리위원장을 만났었네. 그 애길 듣구야 내 어찌 수령님교시대루 일하지 않을 수 있겠나. 정말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을수 있겠나. ...

그러니 운호, 이 사람, 그리 알아주게.>

세포비서아바이 애긴 길지 않았어두 제가 받은 충격은 컸수다. 그때부터 전 일본새두 사람됨두 배아바일 닮기 시작했지요.》

방운호는 할 이야기를 다한듯 빙그레 웃으며 마주본다. 옥희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얼마나 숭고한 믿음과 의리로 맺어진 두사람의 고결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방운호분조장도 배병세아바이의 본을 받아 이렇게 샘물터에 감주동이를 담그어놓고 보잡이들에게 대접하고있구나. 이런 분조장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2반 2분조는 분조장이 있건없건 누구나 일을 찾아서 자각적으로 한다는 사실의 깊은 내막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 아닌가!)

배병세와 방운호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될수록 리옥희의 사색은 깊어만갔다. 배병세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 파목한 방운호로 하여금 활기에 넘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땃꽃향기 그윽한 대기속에 울려퍼지는 피콜레 소리에 귀기울이는듯 이윽도록 강변물창힐나무숲 쪽으로 시선을 주고있던 방운호가 마무리하듯 덧 붙었다.

《진짜 괜찮은 아바이지요. 말은 없어두 늘 웃는 얼굴이구요. 전 여태 낫을 찌프린 아바일 보지 못했수다. 한때 성민 고집스럽구요. 미국놈비행길 썰떨구며 싸울 때두 파편에 머릴 부상당하구두 종시 후송되지 않구 중기좌질 지켜냈다질 않수. 한생을 그렇게 제몸 돌보지 않구 사는 아바이지요. 칠순인데두 피벗기려 다니다니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불씨가 되여 사람들 심장을 달구며 한생을 살아온 아바이지.》

배병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뜨거워진 옥희는 입속말로 운호의 마지막말을 되뇌였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 불씨가 되여 사람들 심장을 달구며 한생을 살아온 아바이...》



### 3

필녀와 함께 후치질을 하면서도 옥희는 배병세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방운호가 들려준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제가 농업대회에 참가하구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까지 모시게 된것이 방운호가 잘 나서겠나요. 배아바이같은분들이 절 키워준 덕분이지요. 그래서 전 잊지 못해하는거외다. 그 런 로당원들들...》

배병세가 남기고 간 길지 않은 이야기들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옥희의 뇌리에 인박혀졌다.

지난날 운흥리의 《제일 고운 처녀》로 이름났었다는 최순옥을 한시바빠 만나고싶었다. 최순옥이도 산나물캐러 갔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친 옥희는 필녀에게 던지시 물었다.

《필녀, 아침에 광성이 어머니랑두 산에 갔나?》

《예, 갔어요. 영금이 엄마랑 같이...》

옥희의 속내를 모르는 필녀의 대답이다.

《광성이 아버지인 안가구?!》

《광성이 아버지야 축산반 벌관리때문에 갈수 없잖아요.》

《참 그렇지.》

또 한동안 이야기는 끊어졌다.

옥희는 묵묵히 후치질을 해나갔다.

《위원장동지, 이제 아주 잘하셔요. 한것동안에... 참 놀랍군요.》 하고 필녀가 추어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만큼 옥희는 혼자생각에 골돌한것이였다. 그는 오후에도 필녀와 함께 후치칠하다가 큰남골에서 산나물을 캐가지고 나오는 최순옥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필녀, 오후엔 쉬라구, 내가 할테니... 아버지한테 단 감주대접받은 값이야 해야지.》

《안됩니다. 위원장동지, 괜히 래일 출근못하실려구 그래요?! 제 말은 일일이 제가 해야지요.》

방필녀가 펄쩍 놀라며 옥희의 손에서 보탑을 빼앗으려들었다. 처녀에게 진숙을 말할수도 없고 하여 옥희는 별수 없이 양보하며 절충안을 내놓았다.

《필녀 생송아질 길들여가면서두 했을라니 말 잘 듣는 소로야 왜 못한다구 그러나. 그럼 전습공이야 시키겠지. 말동무도 할겸...》

《무얼 전습공이라구 할텐가요?! 이제 알심있는 후치공이 됐는데요. 호호호...》

방필녀는 유쾌한듯 깔깔대며 곱게 눈을 흘기면서 옥희를 마주보는것이였다. 옥희는 이 한것동안에 처녀와 무척 친숙해졌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

최순옥은 큰남골에서 맨먼저 나오는 녀인들속에 끼여있었다. 해는 아직 서산에 기울지 않았다

《광성이 어머니!》 하고 옥희가 찾는 소리에 관리위원장임을 알아본듯 최순옥이 성급히 다가왔다. 그는 관공이 약간 도드라질사한 혈색좋은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서글서글한 두눈을 빛내이며 반색을 한다.

《관리위원장이 어떻게 여기 와서 후치질까지 하시우. 쉬는날에나 집안일을 돌보질 않구...》

옥희는 그의 목직한 배낭을 받아 각담머리에 놓아주며 응대했다.

《쉬는겸 나왔어요. 어릴 갔땡기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발근쟁이라우, 낮옥부치엔 쫓더라니 큰남골까지기엘 갔땡지요. 한창입니다. 정남이랑 뒤에 올텐데 마중가보지 않겠수?》

옥희는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야 말했다.

《아버지가 갈거예요. 애들두 이제 습관됐답니다. 어머니 힘 바랄건 없다는걸...》

최순옥은 말이 없었다. 옥희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두눈에 따뜻한 물기가 어림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천만마디의 말을 대신하며 자기를 이해해주고있음을 깨닫는 옥희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옥희의 음성은 저도 모르게 떨리는듯싶었다.

《성님은 처녀적에 보잡이로 이름났었다지요. 전 오늘에야 나이 선이 넘어 필녀한테서 후치질을 배웠어요. 오늘 배병세아바이랑 성님애길 했답니다.》

《배병세아주반이 오셨땡수?》 하고 묻는 최순옥의 한껏 밝아지는 낮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며 옥희는 말했다.

《중태 만들 피땡기러 가다가 들렀어요. 조합초기에 성님이 처녀보잡이루 운흥리에선 <제일 고운 처녀>루 이름났었다구 알려주더군요.》

《원 정남이 엄마, 무슨 정신빠진 소릴... 제일 못난등일 <제일 고운 처녀>라니 어이없기란 참 호호호...》

최순옥은 허리를 꼬부리며 뺨이 끊어져라 찔랄 웃어제끼다가 남자들의 손길같이 드센 주먹으로 옥희의 어깨팍을 쿵 소리나게 쥐여박으며 오금을 박았다.

《정남이 엄마, 어디 가서 두번 다시 외우질 말우. 사람 망신시켜두 분수가 있지...》

롱담속에 진실이 있다고 순옥의 마지막말을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몰라 옥희는 어정정한채로 물었다.

《성님, 그럼 배아바이가 거짓말한게군요. 처녀적에 발갈이두 후치질두 하지 않았어요?》

옥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것을 본 최순옥의 낮빛이 굳어졌다. 그는 계면쩍은듯 낮을 붉히며 말했다.

《원 참 정남이 엄마두 곧은배기란... 내 말을 새겨들어야지요. 왜 거짓말이겠수. 사실이외다. 배아바이한테 보잡일 배워서 한때 이름 날렸수다.》

《그래요?!》하며 최순옥의 두툼한 손을 꼭 잡아주는 옥희의 두눈에는 《그때 애길 듣고싶어서 그래요.》라는듯한 절절한 빛이 어려여있었다. 옥희

의 심정을 헤아린듯 최순옥은 정색한 낯빛이 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사람이 무슨 일이나 마음먹기에 달린다고 하지 않수. 내가 그때 애길 하자면 어떻게 돼서 녀성보잡이가 되겠다구 맘먹게 됐는가 하는것부터 말해야지요.

배병세아주버니가 그때 우리 세포위원장을 했수다. 갓 제대되어왔을 때였지요. 세월이 흐르는 물갈다더니... 그 아주반이 가슴에 훈장락장을 주련이 달구 마을에 들어서던 때 일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칠순이 됐으니... 잘 싸우고 돌아왔다구 온 동네가 배아주반일 칭찬했수다. 제자랑을 모르는 아주반이지만 미국놈들과 싸우던 애길 하라는 동네로인들 말을 듣지 않을순 없었지요. 그때 장림동어구에 있던 배아주반네 큰집에서 듣던 전투담이 귀에 선하외다.

전탄철골 지켜낼 비행기사단군조임물 반구 전탄역전열 무명고지에서 싸웠더군요. 배아주반인 중기부사술 했는데 미국놈비행길 일곱대나 쏜 떨렸다질 않수. 폭탄을 떨구느라 내리꽃히는걸 올리받아 쏘곤했다우. 목숨을 내대는 결사전이였지요.

전우들이 희생도 됐구, 더러는 부상당해서 병원에도 후송됐다우. 그 아주반두 폭탄파편에 머릴 맞았었지요. 귀가에 헤적해보이는 허물자리가 대번에 눈에 띄웠수다. 분대장이 위병병을 불러 담갈 들이대는걸 배아주반인 끝내 버티구 실려가지 않았따우.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날까지 전탄철골 사수해냈다질 않수. 52년 6월에 중기사술 하던 분대장은 영웅칭호 반구, 부사수이던 배아주반인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답니다.》

최순옥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추억에 잠긴 그의 어글어글한 두눈에 여태 본적 없는 류다른 생기가 흘러넘치고있었다. 옥희는 그의 못박힌 손을 꼭 잡아주며 말없는 눈길로 이야기를 재촉했다 불현듯 최순옥의 둥실한 얼굴이 더 밝고 부드러워지며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흘렀다.

《우린 그날 배병세아주반한테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셨던 애길 들었지요. 전쟁을 이긴 그해 8월 어느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평양에 불러주셨는데 배아주반도 뽑혔다우. 눈물이 글썽해서 장군님 만나뵈던 애길하던 그 아주반모습이 잊혀지질 않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배아주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고향이 어딘가, 부모모님이 계시는가, 나이는 몇인가, 고향에 약속해둔 처녀가 있는가? 어찌두 다정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친부모님처럼 스스럼없이 여겨져서 어려움도 잊고 다 말씀올렸대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아주반 잔등을 두드리주시면서

<동무들이 잘 싸워서 우리는 미국놈들을 이겼소. 그래그래, 참 잘 싸웠소. 모두가 영웅들이요. 조선의 아들답소.》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이 메고 감격에 북받쳐서 <장군님,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가 이긴겁니다.》라는 말씀도 종시 못드리고 눈물만 비오듯했다질 않수. 비행기나 몇대 떨군게 무얼 그리 장한 일인가구, 그런데도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처럼 과분한 말씀을 주시었다구 목메여 말하던 배아주반 모습이 눈에 선하외다.

모란봉극장에서 회의하구 연회에두 참석했다우. 배아주반이 어디에서 그런 대접 받아보았겠는가구 상에 올랐던 반찬가지수까지 다 말합디다. 저녁에 숙소에서 동무들과 애길 나눴는데 거기에도 가슴치는 사연이 있었지요. 구레나룻이 보기 좋던 한 영웅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합디다. 그 영웅의 고향은 서해안의 한 농촌마을인데 51년도 여름에 수령님께서 그곳에 나가시여 영웅의 안해를 만나주셨다질 않겠수.

어특새벽이였대요. 풀잎을 쫓은 위장망을 어깨에 걸치구 후치질 하냈는데 글썽 폭탄구멍이 승승한 밭에서 수령님을 만나뵈게 될줄이야 내인이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수. 내인은 썩 후에야 알았대요. 자기를 만나주신분이 김일성장군이신줄... 그래서 더 감격이 크구 눈물이 난다는거지요. 그래서 더구나 김일성장군님 말씀을 평생 잊을수 없다면, 눈치무딘 녀편네가 수령님께 온전한 말씀한마디 여쭙지 못했다면서 그 영웅이 더 목메여하더랍니다.

영웅이 전해준 수령님 말씀을 그대를 외웁디다.

<전선에 나간 주인을 대신해서 보탑을 잡은 동무를 보니 우리도 힘이 나오. 정말 장하오. 동무들이 후방을 지켜 이렇게 잘 싸우니 우린 꼭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이길것ियो. 승리의 날 주인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보탑을 잡고 잘 싸웠다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보탑을 잡고 싸우는 마을의 모든 녀성들에게 감사를 전해주시오.》

김일성장군님 말씀을 전해듣구 내인들이 더 감동했수다. 우리 장림동에도 전쟁때 잘 싸운 녀성보잡이들이 있었지요. 이젠 40년나마 세월이 흘렀으니 그때 내인들은 다 돌아가구 칠부지였던 내가 녀성보잡이애길 하느라 관리위원장앞에 앉았다. 전쟁때 보잡이였던 내인들이 수령님 말씀이 고마워서 모두 눈물 흘립디다. 그날 애젊은 내 가슴에도 수령님 말씀이 소중히 간직되었지요. 나두 꼭 녀성보잡이가 돼야겠다구 맘먹었다우. 미국놈들을 내쫓구 조국을 통일하자면 어느때건 우리가 후방을 지켜 싸워야 할게 아니요. 배병세아주반이 결국 내 가슴에 불씨를 안겨준셈이지요. 녀성보잡이가 되도록 말외다.》

최순옥이 불시에 이야기를 뚝 끊고 잡았던 옥희의 손을 놓으며 일어섰다. 웬일인가싶어 옥희도 따라 일어섰다. 그의 이야기에서 받아안은 충격으로 하여 심장은 쿵쿵 세찬 박동을 울리는듯싶었다.

(배병세와 최순옥이 그런 사람들인줄 여태 감감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무슨 관리위원장을 할 자격이 있담.)

뼈아픈 자책감이 옥희의 가슴을 저미었다.

배병세와 최순옥- 그들에 대하여 옥희는 어떻게 알고있었던가?

공로있는 전쟁로병 배병세는 년로보장을 받을 때까지 파오없이 성실히 일하여온 초급일군이였었다는것, 셋이나 되는 남동생들이 모두 제한몹씩 하는 일군들로 자라나 둘째 경세는 량강도 어느군에서 당일군으로 사업하고 준세라는 셋째는 국경경비대에서 고급군관으로 복무하고 넷째인 원세는 땅크사단에서 정치위원으로 일하고있다는것, 농장의 영화기술원 겸 직관원으로 일하고있는 배로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배철호는 학생때 뜻하지 않던 사고로 뇌타박을 받아 비생산부문에서 일하게 되었다는것, 며느리는 문산농장의 이름난 작업반장 백봉명의 딸 백운녀이며 지난해 가을에 손녀를 보았다는것, 농장의 부대로력들중에서는 배로인이 농기구준비를 누구보다도 착실히 하고있다는 정도로 그에 대하여 알고있을 뿐이었다. 옥희가 관리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배병세가 이미 년로보장을 받은 때였으므로 그와의 사업연계가 없었으니 별로 친숙해질 기회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최순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있었는가? 축산반에서 일으킨 《말썽》을 잘못 처리한것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옥희였으나 최순옥의 남편 박웅관이 예순나이에 이를 때까지 축산반에서 벌관리공으로 일해오지만 원칙밖에 모르는 《곰은막대기》여서 제낫대기란 꼬물만치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며, 한잔만 마셔도 낮이 벌개지는 술도 못하는 사나이라는것, 그의 아들 삼형제가 끝끝해서 모두 군대에 내보냈는데 막내 광성이만이 지금 군사복무를 하고있고 막이 창성이와 둘째 칠성이는 제대될 때 대학추천을 받고 대학을 나와 도소채지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종사하고있다는것으로 알고있는 정도였다.

옥희는 여태까지 사람과의 사업을 수박겉핥기로 해왔음을 뉘우쳤다. 수박의 새파란 결만 알고 붉은 속은 볼줄 모르듯이 사람들을 알고 지내왔다. 수박을 쪼개야 붉은 속이 드러나듯이 대중속에 깊이있게 들어가야 사람들의 붉은 속마음을 알아내고 그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평범해보이는 생활속에서도 누구나 알고있는 범상한 생활자료들이 아니라 충성의 불꽃으로 피여날수 있는 비상하고도 감명깊은 생활자료들을 찾아낼줄 알아야만 관리위원장다운 안목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최순옥은 옥희의 속내는 알바 없다는듯 서둘러 배낭을 추슬러지며 다급히 말했다.

《정남이 엄마, 저기 정남이랑 오는군요. 빨리 가서 받아줍시다.》

옥희가 어정쩡해하며 한참 후치질을 하고있는 필너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자, 어서요.》 하며 그는 무작정 손을 잡아끌었다. 그리고는 필너쪽을 향하여 《필너야, 너두 그만 소를 떼렴. 소두 좀 먹여야지.》 하고 명령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최순옥이 필너와는 보통 가깝지 않은 사이임을 그 말투만 보고도 짐새칠수 있었다.

《위원장동지, 광성이 어머니랑 어서 함께 가보세요. 저두 인차 소를 떼겠어요.》라고 하는 처녀의 스스럼없는 대답이 방필너가 최순옥을 남달리 대하고있음을 직감하게 하였다.

최순옥이 방필너에게도 처녀시절이야기를 들려준것이 아닐가.

산나물배낭을 받아주니 기뻐 어쩔줄 모르는 딸애를 보면서도 줄다리를 건너 마중오던 남편이 《이거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았나?! 정남이 엄마가 정남이 마중을 다하구...》 하면서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옥희는 남편과 가정에 대한 생각보다도 배병세와 최순옥이며 그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사는 방운호와 방필너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 4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에 마주앉은 리옥희는 온몸이 숨처럼 노그라지는듯한 피곤을 느꼈다.

《래일아침에 출근 못하시려구 그래요?!》라고 하면서 보탑을 빼앗던 방필너의 얼굴이 떠오른다.

말을 잘 듣는 후치소로 필너와 번갈아했는데도 몸이 이지경인데 생종아지를 길들이며 후치질을 처음 배우면서 하느라니 오죽 힘겨웠을가. 방필너의 수고를 헤아리게 된 리옥희는 일군이 돼보야 일군의 심정을 알아줄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듯싶었다. 어찌 필너에 대한 생각뿐이라. 조합의 첫 세포위원장이였던 배병세며, 장림동마을의 《제일 고운 처녀》였던 녀성보잡이 최순옥이며, 일본새도 사람됨도 배로인을 닮으려 애써왔다는 방운호... 여태 몰랐던 이 귀중한 사람들의 진속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옥희는 하루동안의 인상이 너무도 가슴벅차게 되살아나는것이여서 관리위원장을 해오는 전기간 여적 그 어느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높은 정신적 양양을 체험하게 되는것이였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가장 크고 소중한것은 무엇인가?

어떤 생활의 계기점에서 방운호가 충격을 받고 새출발을 하게 되었던가?

철없던 시절에 전쟁을 겪은 처녀 최순옥이가 어떻게 되여 녀성보잡이로 《제일 고운 처녀》로 되였는가?

방운호와 최순옥의 이야기들이 생생한 화폭처럼 머리속에 되살아오르면서 새로운 열정과 사업의욕으로 심장을 피끓게 하는것이였다.

옥희는 문득 최순옥에게 오늘 꼭 하려고 마음 먹었던 말을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축산반에서의 최순옥의 《말썰》을 잘못처리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양해를 구하려던 문제였다. 그런데 최순옥의 이야기를 듣는데만 정신팔려 감감 잊어버리고말지 않았는가. 하긴 그까짓 지난 일이 무엇이라. 오물쭈물한 녀성이 아니고 남자들 못지않게 대범스러운 성격인 최순옥이고 보면 벌써 다 잊어버렸을 옛일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관리위원장구실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의 진속을 알아주고 그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구어 농사를 더 잘 짓는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참된 일군이 된다면 나의 진심이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충성의 불길을 지필수 있을것이 아닌가.

옥희는 온몸에 넘치는 신심과 용기를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다. 지난해에 농사를 제일 잘 지었던 방운호의 분조가 파종총화에서 뒤꼬리를 차지하게 된 내막을 김인형기사장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것이였다.

기사장방은 비어있었다. 접수에 알아보니 방금 전에 군당위원회에 갔다는것이였다. 옥희는 다시 금 군당위원회를 찾았다.

부부장의 석심한 음성이 울렸다.

《관리위원장동무, 건강하오? 기사장동무 사업 토론을 끝내구 나왔소. 또 휴식을 안한게구만. 기사장을 찾은걸 보니… 몸을 돌보라구, 눈병은 어떻게? 말썰부리진 않소?》

《큍 나왔어요. 부부장동지, 안심하세요.》

《그래?! 관리위원장이 오늘은 좀 달라진것 같다. 목소리도 밝고 시원스러운게… 허허허…》

《달라지다니요?! 로쇠병에 걸렸다구 비판 주실편 언제구요. 호호호…》

목소리만 듣고도 아래일군의 심리를 꿰뚫는 한 종환부부장의 예리한 감각에 옥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야, 달라졌어. 목소리에서 벌써 새힘이 느껴지거든. 부흥의 해 일군다운 패기와 정열이 넘치오. 운흥리 금년농산 일등이 문제없겠소. 지난 해 2등을 했지만… 약한 소릴 곧잘 하던 옥희동무가 날더러 안심하라고 하다니… 허허허… 기쁘구만. 이제 됐소. 운흥리에 대해선 마음놓겠소. 씨불임때 기세로 김매길 냅다 제끼지요.》

《알겠어요. 부부장동지, 일은 맘먹기에 달린다지 않습니까. 김매길 잘하겠어요.》 하고 말하던 옥희는 부지중 미소를 그리었다. 최순옥이 하던 말을 저도 모르게 그대로 외우고있다는걸 느꼈기 때문이였다.

《제기할 문제는 없소?》

《없습습니다.》

《몸을 돌보며 일하라구, 눈병치료도 소홀히 여기지 마요.》

《고마워요, 부부장동지.》

수화기를 놓고도 부부장의 음성의 따뜻한 여운으로 하여 한동안이나 생각에 잠겨있던 옥희는 전화종소리에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김인형기사장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요? 무슨 일이 생겼소? 오늘은 쉬겠다고 하구선 또 나와서 날 찾으니…》

김인형의 음성에는 근심이 실렸다.

《아니예요. 기사장동지, 오늘 꼭 쉬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문제가 있어서 그림니다.》

옥희의 밝은 음성에 안심이 되는듯 김인형의 목소리도 썩 가벼워졌다.

《무슨 문제기에… 어서 말하오.》

《오늘 2반 2분조에 나갔었는데 제 미처 포착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분조장동무가 질 좋은 두엄을 더 많이 장만해서 내느라구, 씨불임마감 고비까지 한삼태기라도 더 넣구 심느라구 그렇게 된거예요. 비옥도가 제일 못한 몇개 포전엔 잡 관목일을 베서 깔고 갈았더군요. 기사장동지두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조합초시기에 비료대신 록비를 베어 논밭에 깔아 갈구 씨불임하던걸 말예요.》

운호동무가 그렇게 하구 파종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온돌수릴 해서 새까만 구들짖 밀거름으로 넣었어요. 분조농살 잘 짓겠다구 펼쳐나선 단합된 힘에 전 탄복했어요. 이 모범적사실을 기사장동지한테 알리지 않으면 잠이 올것 같지 않아 수화길 들었습니다.》

옥희가 말을 끊었는데도 기사장은 응대가 없다. 전류 흐르는 소리가 웅 고막을 울릴뿐…

《왜 말씀이 없으세요? 기사장동지.》

《음, 생각이 많아져서 그러우, 그런걸 난 웅줄하게 생각했으니… 용서하우, 관리위원장동무.》

《용서라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도리어 똑똑한 대답을 못드린걸 뉘우치는데요.》

《아니요, 옥희동무, 동무는 부흥의 해 시대정신을 안고사는 일군답소. 오늘 우리 경영위원회 일군들에게도 큰 문젠 시사해줬소. 이민위원의 어버이수령님 뜻을 받들어 농장원대중속에 더욱 깊이있게 들어가서 일하며 배우도록 말ियो.》

옥희는 오늘 자신의 체험을 너무도 값높이 알아주는 기사장이 고마워서 뭐라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기사장의 갈린듯한 음성이 이어졌다.

《옥희동무, 이제 그만 돌아가보우, 세대주와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소. 할 얘기들이 많겠는데 래일 내려가겠소. 만나서 얘길 나누지요. 자, 그럼…》

수화기를 놓고도 옥희는 까딱할념 안하고 생각에 잠겼다.

후치질하는 방필녀가 너무도 대견스러워 《제일 고운 처녀》라고 불러주며 환히 웃던 배병세로인의 얼굴도, 성격이 똑한 평소의 그답지 않게 배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하여 따뜻한 인정미가 흘러넘치던 교수머리 방운호의 선이 굵은 듬직한 얼굴도, 장림동마을에선 제일 못난둥이였던 자



기를 《제일 고운 처녀》였다고 하다니 사람을 웃기지 말라고, 어디 가서 두번 다시 외우지 말라며 남자들 손길같이 드센 주먹으로 어깨팍을 쥐여박던 최순옥의 활달한 얼굴도, 한껏동안에 벌써 관리위원장이 후치질을 다 배웠다고 기뻐하던 필녀의 명랑하고 귀인성스런 얼굴도 서로 잊바꿔 떠오르며 눈앞에 얼른거리는것이어서 옥희는 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가슴설레이는 것이었다. 옥희는 여태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의 감정을 체험하며 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그렇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으로 심장이 불타지 않는 일군의 눈은 결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우리 시대 인간들을 똑똑히 가려볼수 없는 것이다. 오늘 나의 심장이 방운호나 방필녀와 같은 발전소마을사람들과 함께 불타올랐기에 농사를 잘 지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어제날에는 배병세가 최순옥을 《제일 고운 처녀》로 키워냈다면 오늘은 인간됨도 일본새도 배로인을 그대로 닮은 방운호가 자기의 딸 필녀를 그와 똑같이 키워내고있

는 것이다. 어찌 방필녀만이 《제일 고운 처녀》이라. 필녀가 비서로 일하는 청년동맹초급단체의 처녀들만 하여도 영애, 춘희, 명숙이, 혜옥이... 그들모두가 다 《제일 고운 처녀》들로 자라 한마음한 뜻이 되어 분조농사를 잘 짓고있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안고 아글타글 모대기며 살아온 배병세나 최순옥이처럼 농장의 모든 새 세대 청년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정신으로, 붉은기정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아글타글 모대기며 농사를 지어나가도록, 그들모두가 《제일 고운 처녀》들로 《심장을 달구는 사람》들로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내가 아닌가.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위치와 책임감을 그 어느때보다도 새롭게 자각한 리옥희는 온몸에 뿌듯이 차오르는 희열과 긍지감, 사무치는 격정과 새힘을 느끼면서 사무실을 나섰다.

록음이 짙어가는 오봉산마루에 저녁노을이 불타고있었다. 맑고 구성진 삐죽새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 웃음소리

권강일

노상 웃음이지  
우리 작업반처녀들  
하루일을 앞둔 휴게실에서도  
무에 그리 좋은지 까르르 까르르

기대앞에 일할 때는 어이 참았담  
점심참에 잠시 모여앉아도  
이야기 이야기끝에 터지는 웃음소리  
웃음끝에 흘러나는 명랑한 노래

한장 좋은그 시절이 떨기떨기  
꽃으로 피어나는 소리일가  
때로 잘못된 일 꾸짖어봐도  
다음날엔 잊은듯 밝게 웃지

늘쌍 일로 바쁜 공장지배인도  
웃음소리에 이끌려 작업장 기웃  
바라보단 입귀가 저절로 벌썬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인가?

아무렴 있구말구  
《고난의 행군》길 험치 않아도  
아버지장군님을 하늬처럼 믿는 마음  
어려운 일 헤쳐가는 보람은 크지  
가슴들이 넘쳐났지 그 자랑으로

그 웃음에 작업반은 언제나 개인 하늘  
그 웃음은 작업반이 둘러앉는 우등불  
그 웃음으로 넘지 못할 령이 있으랴  
그 웃음으로 가지 못할 길이 있으랴

장장만리 시련을 웃음으로 헤쳐간  
백두산의 녀대원들 그 마음을 안고사는  
아, 우리 작업반의 처녀들  
아버지장군님의 귀한 딸들이여!



## 애국자 문익점

무릇 역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그들은 당대와 후대에 자기의 자취를 뚜렷이 남기고있다.

당시의 시대적조건과 환경속에서만 애국자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태반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문익점은 600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의연 애국자로 찬양되고있으며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있다.

문익점(1329~1398. 호:삼우당, 자:일신)은 충숙왕 16년에 경상남도 진주의 강성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문숙신 또는 문여준이라는 말도 있다.)는 일찌기 젊어서는 과거에도 급제하여 한때 리부상서의 벼슬도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통치배들의 부패무능과 무위도식, 원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으로 하여 점차 강성하였던 왕실이 쇠퇴몰락해지기 시작하자 벼슬을 버리고 남해바다가의 고향마을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문익점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아버지에게서 글도 배우고 세상리치도 깨닫게 되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가 아는 글과 세상리치들은 다 흙과 흙을 다루는 농사꾼들을 통하여 배우고 깨우친것들이었다.

또한 문익점은 당시의 이름난 문인인 리곡의 문하에 있으면서 문장을 배우고 학문도 넓히었다. 문익점은 32살때인 1360년(공민왕 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김해부의 사록(정 8품벼슬)으로 있다가 그 이듬해에 성균관 순유박사(성균관의 종 7품벼슬)로 되었다. 나라의 최고교육기인 성균관에서의 벼슬생활은 문익점의 학문과 그 재능을 한껏 시위할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벼슬길에 오른지 3년째 되는 해인 공민왕 12년에는 나라의 모든 정사를 총괄하는 중서문하성에서 좌사의대부(정 4품벼슬)로 되었다. 좌사의대부로 임명되자마자 그는 원나라에 가는 사신일행의 서장관으로 임명을 받았다. 서장관은 다른 나라에 가는 사신일행의 모든 문서기록과 그 처리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는 쉽게 임명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

찬성사 리공수를 정사로, 밀직제학 허강을 부사로, 좌사의대부 문익점을 서장관으로 하는 고려의 사신일행이 원나라를 향해 떠난것은 1363년 3월이었다.

당시 원나라에는 충선왕의 서자인 덕흥군과 그를 시종하고있던 최유라는자가 있었다. 덕흥군과 최유는 원나라 황실의 부추김을 받아 반원기운이 농후하던 공민왕을 꺼꾸러뜨리려고 획책하고 있었다.

이자들의 친원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하여 문익점은 운남지방으로 귀양을 갔었다. 귀양도중에 그는 거기서 하얗게 된 목화꽃송이가 아득하게 펼쳐진 목화밭을 보게 되었다. 원래 목화는 중국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고 인도에서

재배하던것을 중국에다가 들여다 퍼뜨린것이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목화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신으로, 장사일로 원나라를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누구 하나 목화에 대하여 깊이 생각지도 않았었다.

어려서부터 흙냄새에 익숙되고 농민들과 가까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려도 모든 백성들이 잘 입고 잘먹게 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해온 문익점에게 있어서 목화밭은 무심히 지나칠수 없는곳이었다. 더우기 사신일행으로 떠날 때 경상도지방에 《불역전법》을 남먼저 받아들여 널리 보급시키여 린근은 물론 널리까지 그 이름이 자자했던 장인 정천익으로부터 중국의 목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것이다. 문익점은 목화밭에서 원나라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호감을 사서 결국에는 목화씨 10개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자기 나라의 귀중품이 다른 나라로 나가는것을 엄격히 금지하고있는 원나라의 실정에서 그 10개의 목화씨를 정하게 가져오기 위하여 문익점은 붓과 먹 등을 가득 장만한 다음 그중의 한 붓대 속에 목화씨를 감추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문익점은 1364년 10월부터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목화재배에 달라붙었다. 그는 장인인 정천익에게 다섯개를 주고 자기도 다섯개를 심었다. 그러나 문익점의 밭에서는 겨우 두포기가 살았으나 열매는 하나도 달리지 않았었다. 장인이 심은 밭에서는 네포기가 살았고 그중 한포기에는 열매가 잘 달리었다.

새하얀 구름덩어리같은 목화송이가 피어나 거기에서 100여개의 씨를 받았으니 이것이 고려땅에서 자라난 첫 목화씨였다.

문익점은 첫 목화씨를 가지고 3년동안이나 재배법을 연구완성하여 고향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심게 하였다. 그로부터 10년도 채 못되어 목화는 온 나라에 퍼지었다.

그후 정천익은 목화씨를 뽑는 씨아를 만들었으며 문익점의 손자인 문래는 실 뽑는 《물레》를, 문래의 동생 문영은 베틀에서 처음으로 《무명》을 짰다. 《물레》와 《무명》이라는 이름도 문래와 문영의 이름에서부터 유래된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의 정확성여부에 앞서 문익점과 그 일가의 애국애족의 뜨거운 마음을 높이 긍정해야 할것이다.

삼배와 모시, 명주밖에 없던 이 나라에 비로소 무명천이 생기게 되었으며 비단이란 걸쳐볼수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비단 못지 않게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따스한 무명옷을 해입게 되었던것이다.

문익점은 목화와 함께 운남지방의 기후, 풍토, 풍속 등을 서술한 《운남풍토기》라는 책을 남기고 1398년 6월 일생을 마쳤다.

리원희